

KREI

World · Grain · Market · Trends



2026 제15권 제1호

World · Grain · Market · Trends

해외곡물시장 동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 11-2026-01

2026 제15권 제1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Trend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은 농업관계자 및 일반인이 해외곡물시장을 이해하고 정부가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관련 정보, 주요 지표를 정리·분석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곡물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http://grains.krei.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 담당〉

박준기 선 임 연구 위원 jkpark@krei.re.kr (061-820-2173)
박도연 연구 위원 dypark@krei.re.kr (061-820-2055)

◆ 그동안 월간으로 발간되었던 해외곡물시장동향 보고서가 2019년도부터는 격월간으로 바뀌었습니다.

CONTENTS

해외곡물시장 동향

세계 곡물시장 동향	5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1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32
곡물 시장의 선물가격 동향 및 전망	46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Issue Box〉

호주의 농업 · 곡물 생산 동향과 바이오 시큐리티 정책	73
-----------------------------------	----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해외곡물시장 뉴스 - 로이터	125
-----------------	-----

세계 농업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14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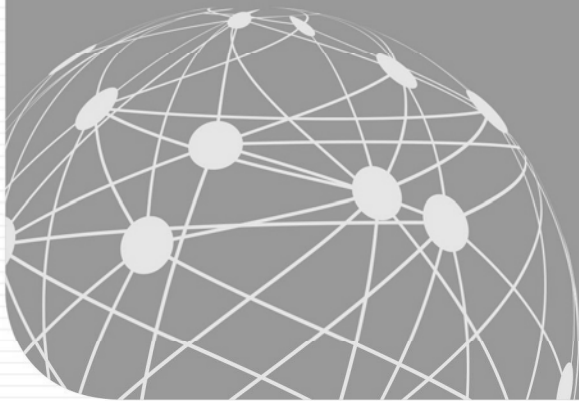
부 록

세계 곡물 통계	175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179



Part 1. 해외곡물시장 동향

세계 곡물시장 동향	5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1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32
곡물 시장의 선물가격 동향 및 전망	46



세계 곡물시장 동향

박도연(해외곡물시장 담당자)*

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1.1. 곡물 전체¹⁾

2026년 2월 기준 2025/26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9억 7,351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2% 증가할 전망이며, 소비량은 29억 3,592만 톤으로 이전 2024/25년 대비 2.6% 증가할 전망이다. 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하향 조정하면서 전년보다 0.2%p 감소한 26.8%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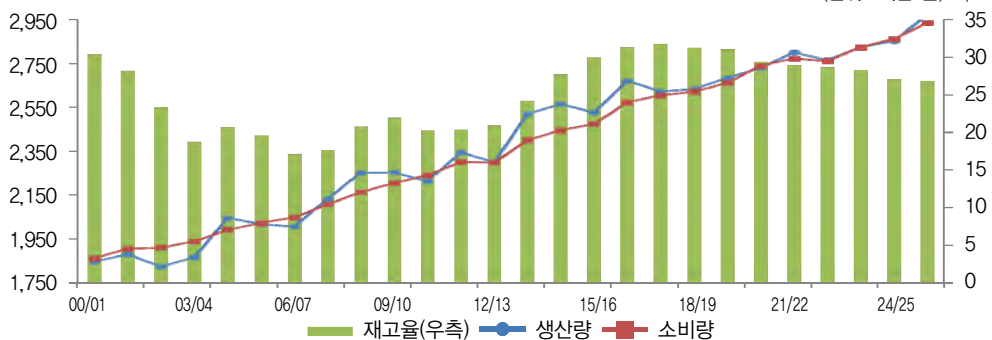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

구분	2000/01	2010/11	2015/16	2020/21	2023/24	2024/25	2025/26 (2월 전망)
생산량	1,846	2,212	2,526	2,729	2,823	2,853	2,974
소비량	1,861	2,239	2,474	2,739	2,823	2,862	2,936
재고율	30.4	20.3	29.9	29.3	28.2	27.0	26.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그림 1〉 세계 곡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톤, %)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dypark@krei.re.kr

1) 곡물 전체는 밀, 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1.2. 품목별 수급 동향

품목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쌀은 2026년 2월 기준 소비량은 증가하나 생산량, 재고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5억 4,128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7만 톤(0.1%) 감소하나, 소비량은 같은 기간 1,134만 톤(2.2%)이 증가한 5억 3,847만 톤으로 전망된다. 쌀 재고율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35.4%이다.

다음으로 밀의 경우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모두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전년 대비 4,136만 톤(5.2%) 증가한 8억 4,180만 톤이며, 소비량은 1,853만 톤(2.3%) 증가한 8억 1,983만 톤으로 전망된다. 밀 재고율은 전년 대비 1.4%p 증가한 33.8%로 전망된다.

2025/26년 세계 옥수수 수급은 생산량과 소비량은 증가하나 재고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12억 9,591만 톤으로 전년 대비 6,533만 톤(5.3%) 증가하겠으며, 소비량은 12억 8,681만 톤으로 전년 대비 3,632만 톤(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 재고율은 22.5%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는 생산량과 소비량은 증가하나 재고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2025/26년 대두 생산량은 4억 2,818만 톤으로 2024/25년보다 103만 톤(0.2%) 증가하겠으며, 소비량은 4억 2,474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101만 톤(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 재고율은 전년 대비 0.3%p 감소한 29.6%이다.

〈표 2〉 품목별 수급 동향

(단위: 백만 톤, %)

품목	구분	2000/01	2010/11	2015/16	2020/21	2023/24	2024/25	2025/26 (2월 전망)
쌀	생산량	399	451	478	509	524	542	541
	소비량	394	444	468	499	521	527	538
	재고율	37.3	23.2	30.8	38.0	34.5	36.3	35.4
밀	생산량	583	650	739	773	792	800	842
	소비량	584	653	714	777	797	801	820
	재고율	35.3	30.6	34.7	36.7	33.8	32.4	33.8
옥수수	생산량	592	849	1,021	1,134	1,231	1,231	1,296
	소비량	609	868	1,007	1,154	1,226	1,250	1,287
	재고율	28.7	13.2	31.1	25.8	25.7	23.5	22.5
대두	생산량	176	265	316	370	396	427	428
	소비량	171	253	317	367	384	414	425
	재고율	20.0	29.1	25.1	26.9	30.0	29.9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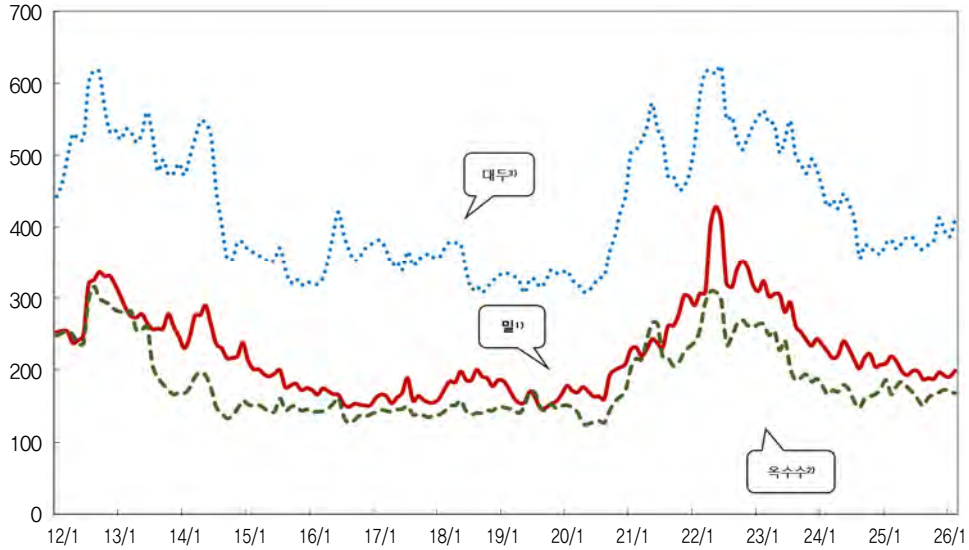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2. 세계 곡물 선물/현물(FOB)가격 동향

2026년 1월과 2월 곡물 선물가격은 글로벌 곡물 공급 여건, 미·중 무역 관계, 바이오연료 정책 변화, 지정학적 긴장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등락을 반복하였다. 1월 초 밀 선물가격은 풍부한 글로벌 곡물 공급으로 하락 압력이 존재했으나 미국 평원의 가뭄과 흑해 지역의 긴장 고조가 가격을 지지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같은 시기 대두 가격은 중국 국영 비축업체의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냈다. 1월 중순에는 미국과 유럽 간 그린란드 영유권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과 풍부한 글로벌 공급으로 인해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후 1월 하순에는 달러 약세와 활발한 수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이 동반 상승하였다. 특히 옥수수는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 기대와 에탄올 혼합 연료 판매 확대 논의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월 초 대두 가격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여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월 하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브라질의 기록적인 대두 수확이 세계 시장에 공급되면서 곡물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았다. 이후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확대 가능성과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재개 기대감이 시장을 지지하며 대두 가격은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2월 말에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가능성 등 지정학적 긴장으로 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옥수수와 대두 가격도 수출 수요와 바이오연료 수요 전망에 힘입어 동반 상승하였다.

〈그림 2〉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선물가격 동향(2012.01~2026.2)

(단위: 달러/톤)



- 주: 1)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Feb and ERS Feb

1월과 2월 밀 선물가격은 각각 191달러/톤, 199달러/톤으로 평균 195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11~12월 평균 194달러/톤보다 0.2% 상승했다(그림 3, 표 3). 옥수수 선물가격은 1월과 2월 각각 170달러/톤, 169달러/톤으로 평균 169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2개월 평균 가격(172달러/톤)보다 1.4% 하락했다(그림 4, 표 3). 대두 선물가격은 1월과 2월 톤당 각각 387달러/톤, 410달러/톤으로 평균 398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앞선 2개월 평균(404달러/톤)과 비교하여 1.4% 하락했다(그림5, 표 3).

2026년 1월과 2월 현물가격은 이전 2개월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밀, 옥수수, 대두, 쌀 모두 상승하였다. 품목별 톤당 평균 가격은 밀 253달러, 옥수수 216달러, 대두 443달러였으며, 쌀의 경우, 태국 장립종은 402달러, 캘리포니아 중립종은 900달러였다(표 4).

〈표 3〉 곡물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23/24	2024/25	2025.2	2026.1	2026.2	변동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 ¹⁾	222	203	212	191	199	-8.1	-6.2	4.5
옥수수 ²⁾	174	172	192	170	169	-1.0	-12.1	-0.5
대두 ²⁾	444	374	382	387	410	-15.6	7.2	5.9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임.
 자료: USDA AMS Feb and ERS F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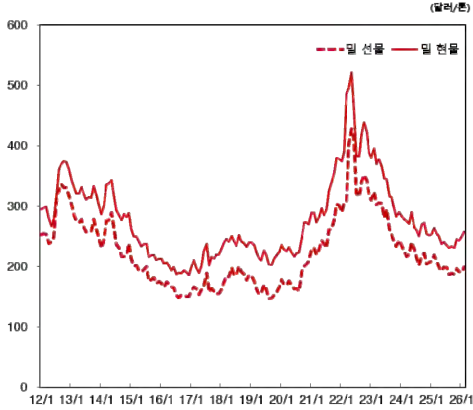
〈표 4〉 곡물 현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23/24	2024/25	2025.2	2026.1	2026.2	변동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 ¹⁾	299	257	264	249	257	-14.1	-2.5	3.1	
옥수수 ²⁾	203	209	225	213	218	3.4	-2.9	2.4	
대두 ²⁾	473	410	414	430	457	-13.3	10.5	6.2	
쌀 ³⁾	태국	624	474	437	396	407	-24.0	-6.9	2.7
	캘리포니아	1,011	789	705	850	950	-21.9	34.8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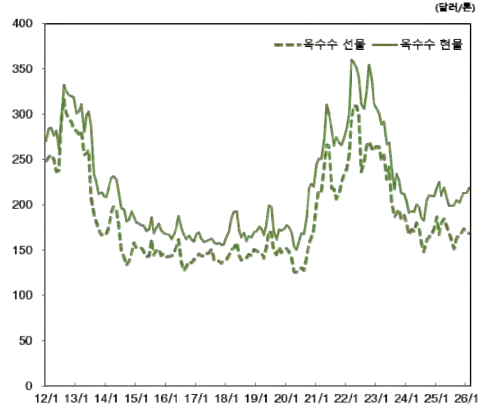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임.
 3) 쌀의 곡물연도는 8-7월임.
 자료: IGC Market Data Feb 2026, USDA Rice Outlook Feb 2026.

〈그림 3〉 밀 월별 선물/현물가격 동향 (2012.1~20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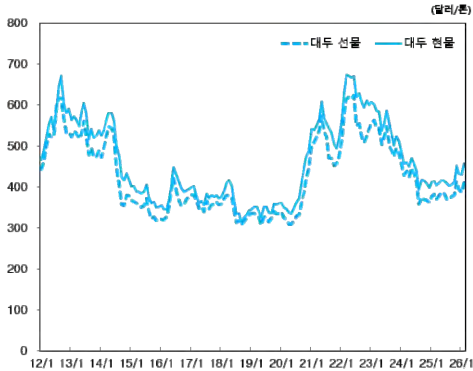
주: 1) 밀 선물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밀 현물은 US HRW Gulf
 자료: USDA AMS Feb and ERS Feb IGC Market Data

〈그림 4〉 옥수수 월별 선물/현물가격 동향 (2012.1~20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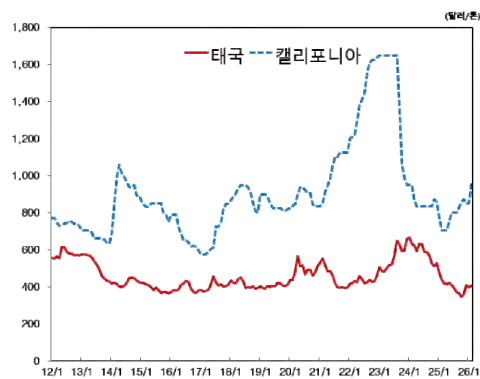
주: 1) 옥수수 선물은 Chicago Yellow Corn 2등급
 2) 옥수수 현물은 US 3YC Gulf
 자료: USDA AMS Feb and ERS Feb IGC Market Data

〈그림 5〉 대두 월별 선물/현물가격 동향 (2012.1~2026.2)



주: 1) 대두 선물은 Chicago 1등급
 2) 대두 현물은 US 2Y Gulf
 자료: USDA AMS Feb and ERS Feb IGC Market Data

〈그림 6〉 쌀 월별 현물가격 동향 (2012.1~2026.2)



주: 1) 태국 100% 장립종 B등급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자료: USDA AMS Feb and ERS Feb IGC Market Data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김민수(애그스카우터 대표)*

쌀, 밀, 잡곡을 합한 세계 곡물의 2025/26년 수급에 대한 2월 전망은 1월 전망보다 좋지 못했다.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수요 측면에서 소비량과 교역량이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공급량과 수요량 모두 증가했으며 공급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세계 쌀의 2025/26년 수급에 대한 2월 전망은 1월 전망보다 좋았다.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수요 측면에서 소비량과 교역량이 감소해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국가별로는 미얀마의 쌀 소비량이 감소했으나 중국, 일본, 한국의 쌀 소비량은 증가했다. 미국, 태국의 쌀 수출량이 감소했으나 미얀마의 쌀 수출량은 증가했다. 중국, 일본의 쌀 수입량은 증가했다. 2024/25년 대비 세계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소비량과 교역량이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세계 밀의 2025/26년 수급에 대한 2월 전망은 1월 전망보다 좋지 못했다.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과 교역량이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국가별로는 미국, 캐나다의 밀 소비량이 감소했으나 우크라이나,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밀 소비량은 증가했다. 캐나다,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의 밀 수출량이 증가했으나 유럽연합의 밀 수출량은 감소했다.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밀 수입량은 증가했다. 2024/25년 대비 세계 밀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이 증가했으며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세계 옥수수 2025/26년 수급에 대한 2월 전망은 1월 전망보다 좋지 못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소비량과 교역량이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국가별로는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은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멕시코의 옥수수 소비량은 증가했으나 유럽연합의 옥수수 소비량이 감소했다.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이 증가했으나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량은 감소했다. 멕시코의 옥수수 수입량이 증가했으나 유럽연합의 옥수수 수입량은 감소했다. 2024/25년 대비 세계 옥수수 공급량과 수요량이 모두 증가했으며 수요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재고량은 하향 조정됐다.

세계 대두의 2025/26년 수급에 대한 2월 전망은 1월 전망보다 좋았다. 기초재고량, 생산량, 소비량이 증가했으나 수출량은 변동 없었으며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국가별로는 브라질,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했다. 2024/25년 대비 세계 대두 공급량과 수요량이 모두 증가했으며 공급량 증가 폭이 더 커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 agscouter@naver.com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2025/26년 주요 품목의 세계 수급 전망을 다룬다. 주요 국가의 품목별 수급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농무부가 2월 10일에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WASDE)'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곡물 전체¹⁾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년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29억 7,400만 톤으로 4.2%, IGC는 30억 300만 톤으로 4.7%, FAO는 30억 2,300만 톤으로 5.4%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37억 4,800만 톤으로 2.7%, IGC는 37억 7,600만 톤으로 3.3%, FAO는 38억 9,200만 톤으로 3.7%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29억 5,900만 톤으로 2.9%, IGC는 29억 5,200만 톤으로 2.4%, FAO는 29억 3,800만 톤으로 2.2%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5억 3,700만 톤으로 7.6%, IGC는 5억 900만 톤으로 5.6%, FAO는 5억 100만 톤으로 3.7%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7억 8,800만 톤으로 1.8%, IGC는 8억 2,400만 톤으로 6.6%, FAO는 9억 3,600만 톤으로 7.7%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과 관련해서 2024/25년 대비 USDA는 26.6%로 0.3%포인트 하락을 전망한 반면, IGC는 27.9%로 1.1%포인트, FAO는 31.9%로 1.7%포인트 상승을 전망했다.

1) 곡물 전체는 쌀, 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표 1〉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2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2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2,853	2,974	4.2	2,868	3,003	4.7	2,868	3,023	5.4
공급량	3,650	3,748	2.7	3,654	3,776	3.3	3,754	3,892	3.7
소비량	2,876	2,959	2.9	2,882	2,952	2.4	2,876	2,938	2.2
교역량	499	537	7.6	482	509	5.6	483	501	3.7
기말재고량	774	788	1.8	773	824	6.6	869	936	7.7
기말재고율	26.9	26.6		26.8	27.9		30.2	31.9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2. 쌀

2.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년 세계 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USDA는 5억 4,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IGC는 5억 4,300만 톤으로 0.2%, FAO는 5억 6,200만 톤으로 2.0%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7억 3,300만 톤으로 1.5, IGC는 7억 3,000만 톤으로 1.5%, FAO는 7억 7,100만 톤으로 2.8%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5억 4,200만 톤으로 2.1%, IGC는 5억 3,700만 톤으로 0.8%, FAO는 5억 5,500만 톤으로 2.8%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6,300만 톤으로 3.3%, IGC는 6,000만 톤으로 3.4% 증가를 전망한 반면, FAO는 6,100만 톤으로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억 9,100만 톤으로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한 반면, IGC는 1억 9,300만 톤으로 3.2%, FAO는 2억 1,800만 톤으로 3.8%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과 관련해서 2024/25년 대비 USDA는 35.2%로 0.8%포인트 하락을 전망한 반면, IGC는 35.9%로 0.8%포인트, FAO는 39.3%로 0.4%포인트 상승을 전망했다.

〈표 2〉 세계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2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2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542	541	-0.2	542	543	0.2	551	562	2.0
공급량	722	733	1.5	719	730	1.5	750	771	2.8
소비량	531	542	2.1	533	537	0.8	540	555	2.8
교역량	61	63	3.3	58	60	3.4	61	61	0.0
기말재고량	191	191	0.0	187	193	3.2	210	218	3.8
기말재고율	36.0	35.2		35.1	35.9		38.9	39.3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2.2 국가별 수급²⁾

2.2.1 수출 시장

인도의 쌀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억 5,2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0만 톤, 2023/24년 대비 1,41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5,200만 ha로 2024/25년 대비 58만 ha 증가할 전망이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4.39톤으로 2024/25년 대비 0.0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2,7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83만 톤, 2023/24년 대비 1,06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5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17만 톤, 2023/24년 대비 1,05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80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6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태국의 쌀 수급 전망은 이월 재고량과 수출량을 제외하면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2,04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080만 ha로 2024/25년 대비 28만 ha 감소할 전망이며,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86톤으로 0.0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26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720만 톤으로 1월 전망 대비 3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66만 톤, 2023/24년 대비 269만 톤 감소할 것으로

2) 국가별 쌀 생산량은 백미(milled rice) 기준이므로 도정 전의 쌀 생산량 즉 생산 면적과 단위당 수확량을 고려한 수확량(rough production)과는 차이를 보임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35만 톤으로 1월 전망 대비 34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60만 톤, 2023/24년 대비 11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쌀 수급 전망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2,6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5만 톤, 2023/24년 대비 12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680만 ha로 2024/25년 대비 15만 ha 감소할 전망이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6.12톤으로 2024/25년 대비 0.04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2,27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79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6만 톤, 2023/24년 대비 11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205만 톤으로 1월 대비 9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50만 톤, 2023/24년 대비 94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파키스탄의 쌀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94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2만 톤, 2023/24년 대비 4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60만 ha로 2024/25년 대비 30만 ha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92톤으로 2024/25년 대비 0.18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4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51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만 톤, 2023/24년 대비 14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203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2만 톤, 2023/24년 대비 63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미얀마의 쌀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생산량은 1,200만 톤으로 1월 전망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25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680만 ha로 2024/25년 대비 6만 ha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76톤으로 2024/25년 대비 0.05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940만 톤으로 1월 대비 3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60만 톤으로 1월 대비 1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95만 톤으로 1월 대비 12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7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표 3〉 주요 수출국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인도	152.00 (▲2.00/▲14.17)	127.00 (▲5.83/▲10.60)	25.00 (▲2.17/▲10.58)	48.00 (0.00/▲6.00)
태국	20.40 (▼0.44/▲0.40)	12.65 (▲0.15/▲0.35)	7.20 (▼0.66/▼2.69)	3.35 (▲0.60/▲1.14)
베트남	26.00 (▼0.75/▼1.20)	22.70 (▲0.10/▲0.20)	7.90 (▼0.16/▼1.14)	2.05 (▼0.50/▼0.94)
파키스탄	9.40 (▼0.32/▼0.47)	4.20 (▲0.10/▲0.20)	5.10 (▼0.03/▼1.43)	2.03 (▲0.12/▲0.63)
미얀마	12.00 (▲0.10/▼0.30)	9.40 (▼0.20/▼0.50)	2.60 (▲0.03/▼0.15)	0.95 (0.00/▼0.27)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8 Feb. 10, 2026

2.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쌀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223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72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0만 톤, 2023/24년 대비 6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50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9만 톤, 2023/24년 대비 4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나이지리아의 쌀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554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3만 톤, 2023/24년 대비 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450만 ha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1.96 톤으로 2024/25년 대비 0.07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8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3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 대비 13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쌀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77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7만 톤, 2023/24년 대비 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3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9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쌀 수급 전망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3,3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130만 ha로 2024/25년 대비 10만 ha 감소할 전망이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4.68톤으로 2024/25년 대비

0.03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5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9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8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만 톤, 2023/24년 대비 385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필리핀의 쌀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23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만 톤, 2023/24년 대비 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470만 ha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4.15톤으로 2024/25년 대비 0.03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7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4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8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쌀 수급 전망은 소비량과 수입량을 제외하면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억 4,633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5만 톤, 2023/24년 대비 17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2,900만 ha로 2024/25년 대비 1만 ha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7.21톤으로 2024/25년 대비 0.05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4,703만 톤으로 1월 대비 1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0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310만 톤으로 1월 대비 1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76만 톤, 2023/24년 대비 157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의 쌀 수급 전망은 이월 재고량과 생산량을 제외하면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9만 톤으로 1월 대비 1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만 톤, 2023/24년 대비 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02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만 톤, 2023/24년 대비 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9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만 톤, 2023/24년 대비 5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의 쌀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생산량은 754만 톤으로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5년 대비 25만 톤, 2023/24년 대비 2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48만 ha로 2024/25년 대비 2만 ha 증가할 전망이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7.00톤으로 2024/25년 대비 0.13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813만 톤으로 1월 대비 13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80만 톤으로 1월 대비 4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 대비 8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쌀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생산량은 354만 톤으로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25년 대비 5만 톤, 2023/24년 대비 1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68만 ha로 2024/25년 대비 2만 ha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6.90톤으로 2024/25년 대비 0.05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85만 톤으로 1월 대비 4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3만 톤, 2023/24 대비 3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41만 톤으로 1월과 같았으며 2024/25년 대비 8만 톤, 2023/24년 대비 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4〉 주요 수입국의 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2.23 (▼0.05/▲0.21)	7.25 (▲0.40/▲0.67)	5.05 (▲0.09/▲0.41)	1.71 (▲0.03/▲0.41)
나이지리아	5.54 (▼0.23/▼0.07)	8.50 (▲0.20/▲0.50)	3.20 (▼0.10/▲1.31)	2.42 (▲0.24/▲1.01)
유럽연합	1.77 (▲0.17/▲0.40)	3.60 (▲0.10/▲0.35)	2.30 (▼0.23/▲0.19)	1.06 (▲0.07/▲0.36)
인도네시아	33.60 (▼0.50/▲0.58)	35.30 (▼0.20/▼0.90)	0.80 (▼0.01/▼3.85)	4.68 (▼0.90/▼1.49)
필리핀	12.30 (▼0.07/▼0.03)	17.60 (▲0.20/▲0.80)	4.60 (▼0.82/▲0.10)	3.09 (▼0.70/▼0.31)
중국	146.33 (▲1.05/▲1.71)	147.03 (▲2.07/▼1.09)	3.10 (▲0.76/▲1.57)	105.00 (▲0.50/▲2.00)
멕시코	0.19 (▲0.02/▲0.04)	1.02 (▲0.01/▲0.03)	0.90 (▲0.01/▲0.05)	0.20 (▲0.06/▲0.08)
일본	7.54 (▲0.25/▲0.24)	8.13 (0.00/▼0.02)	0.80 (▼0.04/▲0.08)	1.67 (▲0.12/▲0.07)
한국	3.54 (▼0.05/▼0.16)	3.85 (▼0.33/▼0.34)	0.41 (▲0.08/▲0.01)	0.67 (▼0.08/▼0.54)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8 Feb. 10, 2026

3. 밀

3.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년 세계 밀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8억 4,200만 톤으로 5.3%, IGC는 8억 4,200만 톤으로 5.1%, FAO는 8억 3,500만 톤으로 4.6%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1억 200만 톤으로 3.0%, IGC는 11억 500만 톤으로 2.9%, FAO는 11억 5,000만 톤으로 3.0%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8억

2,400만 톤으로 1.7%, IGC는 8억 2,300만 톤으로 1.6%, FAO는 8억 500만 톤으로 1.5%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억 2,200만 톤으로 5.7%, IGC는 2억 900만 톤으로 6.6%, FAO는 2억 500만 톤으로 6.2%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2억 7,800만 톤으로 6.9%, IGC는 2억 8,200만 톤으로 7.2%, FAO는 3억 3,700만 톤으로 7.0%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의 경우 USDA는 33.7%로 1.6%포인트, IGC는 34.3%로 1.8%포인트, FAO는 41.9%로 2.2%포인트 상승을 전망했다.

〈표 5〉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2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2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800	842	5.3	801	842	5.1	798	835	4.6
공급량	1,070	1,102	3.0	1,074	1,105	2.9	1,116	1,150	3.0
소비량	810	824	1.7	810	823	1.6	793	805	1.5
교역량	210	222	5.7	196	209	6.6	193	205	6.2
기말재고량	260	278	6.9	263	282	7.2	315	337	7.0
기말재고율	32.1	33.7		32.5	34.3		39.7	41.9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3.2 국가별 수급

3.2.1 수출 시장

유럽연합의 밀 수급 전망은 이월 재고량과 수출량을 제외하면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억 4,4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185만 톤, 2023/24년 대비 86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2,397만 ha로 2024/25년 대비 123만 ha 증가할 전망이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6.01톤으로 2024/25년 대비 0.64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1,4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50만 톤, 2023/24년 대비 4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3,150만 톤으로 1월 대비 10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5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65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566만 톤으로 1월 대비 145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4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2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밀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8,9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9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 대비 2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2,630만 ha로 2024/25년 대비 150만 ha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40톤으로 2024/25년 대비 0.46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4,17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70만 톤, 2023/24년 대비 27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4,4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1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46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10만 톤, 2023/24년 대비 30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밀 수급 전망은 소비량과 기말재고량을 제외하면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2,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과는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550만 ha로 2024/25년 대비 30만 ha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4.18톤으로 2024/25년 대비 0.32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840만 톤으로 1월 대비 3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2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4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75만 톤, 2023/24년 대비 45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63만 톤으로 1월 대비 3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70만 톤, 2023/24년 대비 12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밀 수급 전망은 소비량과 기말재고량을 제외하면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5,401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6만 톤, 2023/24년 대비 49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507만 ha로 2024/25년 대비 56만 ha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58톤으로 2024/25년 대비 0.13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071만 톤으로 1월 대비 13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4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 대비 5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44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1만 톤, 2023/24년 대비 52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2,534만 톤으로 1월 대비 13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8만 톤, 2023/24년 대비 639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밀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생산량은 3,996만 톤으로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25년 대비 402만 톤, 2023/24년 대비 65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062만 ha로 2024/25년 대비 4만 ha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76톤으로 2024/25년 대비 0.39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985만 톤으로 1월 대비 5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50만 톤, 2023/24년 대비 9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900만 톤으로 1월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5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589만 톤으로 1월 대비 43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71만 톤, 2023/24년 대비 6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호주의 밀 수급 전망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3,7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89만 톤, 2023/24년 대비 1,10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270만 ha로 2024/25년 대비 36만 ha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91톤으로 2024/25년 대비 0.30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910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 대비 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7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35만 톤, 2023/24년 대비 71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512만 톤으로 1월 대비 3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13만 톤, 2023/24년 대비 27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밀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생산량은 2,780만 톤으로 1월 대비 3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929만 톤, 2023/24년 대비 1,19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650만 ha로 2024/25년 대비 16만 ha 증가할 전망이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4.28톤으로 2024/25년 대비 1.36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810만 톤으로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25년 대비 95만 톤, 2023/24년 대비 10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800만 톤으로 1월 대비 2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469만 톤, 2023/24년 대비 97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31만 톤으로 1월 대비 17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7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3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인도의 밀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억 1,79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66만 톤, 2023/24년 대비 7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280만 ha로 2024/25년 대비 97만 ha 증가할 전망이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3.60톤으로 2024/25년 대비 0.04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1,251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55만 톤, 2023/24년 대비 1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

비 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724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44만 톤, 2023/24년 대비 97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6〉 주요 수출국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144.00 (▲21.85/▲8.62)	114.50 (▲5.50/▲4.00)	31.50 (▲3.58/▼6.51)	15.66 (▲4.00/▼0.12)
러시아	89.50 (▲7.90/▼2.00)	41.70 (▲1.70/▲2.70)	44.00 (▲1.00/▼11.50)	14.69 (▲4.10/▲3.00)
우크라이나	23.00 (▼0.40/0.00)	8.40 (▲0.10/▲2.50)	14.00 (▼1.75/▼4.58)	1.63 (▲0.70/▲0.12)
미국	54.01 (▲0.16/▲4.91)	30.71 (▼0.41/▲0.53)	24.49 (▲2.01/▲5.28)	25.34 (▲2.08/▲6.39)
캐나다	39.96 (▲4.02/▲6.55)	9.85 (▲1.50/▲0.90)	29.00 (▼0.31/▲3.56)	5.89 (▲1.71/▲0.60)
호주	37.00 (▲2.89/▲11.04)	9.10 (0.00/▲0.80)	27.00 (▲3.35/▲7.16)	5.12 (▲1.13/▲2.71)
아르헨티나	27.80 (▲9.29/▲11.95)	8.10 (▲0.95/▲1.05)	18.00 (▲4.69/▲9.77)	4.31 (▲1.71/▼0.23)
인도	117.95 (▲4.66/▲7.40)	112.51 (▲3.55/▲0.17)	0.25 (▲0.06/▼0.09)	17.24 (▲5.44/▲9.74)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8 Feb. 10, 2026

3.2.2 수입 시장

서남아시아의 밀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생산량은 1,938만 톤으로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25년 대비 418만 톤, 2023/24년 대비 13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4,044만 톤으로 1월 대비 2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7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075만 톤으로 1월 대비 5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15만 톤, 2023/24년 대비 4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북아프리카의 밀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생산량은 1,745만 톤으로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25년 대비 161만 톤, 2023/24년 대비 10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4,745만 톤으로 1월 대비 5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30만 톤, 2023/24년 대비 9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3,370만 톤으로 1월 대비 1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99만 톤, 2023/24년 대비 212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의 밀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소비량은 3,080만 톤으로 1월 대비 7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37만 톤, 2023/24년 대비 29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3,330만 톤으로 1월 대비 8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413만 톤, 2023/24년 대비 27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밀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억 4,007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4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2,358만 ha로 2024/25년 대비 1만 ha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5.94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억 4,8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0만 톤, 2023/24년 대비 5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6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8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763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표 7〉 주요 수입국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서남아시아	19.38 (▼4.18/▼1.39)	40.44 (▲0.20/▲0.72)	20.75 (▲3.15/▲0.41)	11.39 (▼1.27/▼1.08)
북아프리카	17.45 (▲1.61/▲1.08)	47.45 (▲1.30/▲0.97)	33.70 (▲1.99/▲2.12)	12.00 (▲1.58/▲0.46)
동남아시아	0.00 (0.00/0.00)	30.80 (▲2.37/▲2.94)	33.30 (▲4.13/▲2.74)	4.97 (▲1.16/▲0.46)
중국	140.07 (▼0.03/▲3.48)	148.00 (▼2.00/▼5.50)	6.00 (▲1.83/▼7.63)	124.85 (▼2.93/▼9.67)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8 Feb. 10, 2026

4. 옥수수

4.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년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12억 9,600만 톤으로 5.3%, IGC는 13억 1,300만 톤으로 6.0%, FAO는 13억 1,200만 톤으로 7.5% 증가를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 역시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15억 9,000만 톤으로 2.8%, IGC는 16억 200만 톤으로 4.2%, FAO는 15억 9,900만 톤으로 4.7%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3억 100만 톤으로 3.9%, IGC는 12억 9,800만 톤으로 3.9%, FAO는 12억 7,300만 톤으로 3.0%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억 700만 톤으로 10.7%, IGC는 1억 9,600만 톤으로 4.8%, FAO는 1억 9,200만 톤으로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억 8,900만 톤으로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IGC는 3억 500만 톤으로 5.5%, FAO는 3억 1,600만 톤으로 10.1% 증가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2.2%로 1.3%포인트 하락을 전망한 반면, IGC는 23.5%로 0.4%포인트, FAO는 24.8%로 1.6%포인트 상승을 전망했다.

〈표 8〉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2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2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1,231	1,296	5.3	1,239	1,313	6.0	1,221	1,312	7.5
공급량	1,546	1,590	2.8	1,538	1,602	4.2	1,527	1,599	4.7
소비량	1,252	1,301	3.9	1,249	1,298	3.9	1,236	1,273	3.0
교역량	187	207	10.7	187	196	4.8	188	192	2.1
기말재고량	294	289	-1.7	289	305	5.5	287	316	10.1
기말재고율	23.5	22.2		23.1	23.5		23.2	24.8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4.2 국가별 수급

4.2.1 수출 시장

미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수출량과 기말재고량을 제외하면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4억 3,234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407만 톤, 2023/24년 대비 4,26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3,693만 ha로 2024/25년 대비 332만 ha 증가하겠으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11.71톤으로 2024/25년 대비 0.45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억 3,453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293만 톤, 2023/24년 대비 1,16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8,382만 톤으로 1월 대비 254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122만 톤, 2023/24년 대비 2,65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5,402만 톤으로 1월 대비 254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462만 톤, 2023/24년 대비 923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억 3,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 대비 1,2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2,260만 ha로 2024/25년 대비 30만

ha 증가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5.80톤으로 2024/25년 대비 0.30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9,6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0만 톤, 2023/24년 대비 1,2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4,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0만 톤, 2023/24년 대비 47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68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90만 톤, 2023/24년 대비 465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5,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0만 톤, 2023/24년 대비 1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750만 ha로 2024/25년 대비 60만 ha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7.07톤으로 2024/25년 대비 0.18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67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1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3,7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50만 톤, 2023/24년 대비 7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58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4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생산량은 2,900만 톤으로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5년 대비 2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420만 ha로 2024/25년 대비 10만 ha 증가할 전망이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6.91톤으로 2024/25년 대비 0.37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620만 톤으로 1월 대비 2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7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200만 톤으로 1월 대비 10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9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74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65만 톤으로 1월 대비 8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81만 톤, 2023/24년 대비 11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4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230만 ha로 2024/25년 대비 40만 ha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6.30톤으로 2024/25년 대비 1.1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14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만 톤, 2023/24년 대비 1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3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6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106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6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30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00만 ha로 2024/25년 대비 5만 ha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5.50톤으로 2024/25년 대비 0.27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4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2023/24년 대비 3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2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204만 톤으로 1월 대비 3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139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9〉 주요 수출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 재고량
미국	432.34 (▲54.07/▲42.67)	334.53 (▲22.93/▲11.66)	83.82 (▲11.22/▲26.54)	54.02 (▲14.62/▲9.23)
브라질	131.00 (▼5.00/▲12.00)	96.50 (▲2.50/▲12.50)	43.00 (▲1.50/▲4.74)	3.68 (▼6.90/▼4.65)
아르헨티나	53.00 (▲3.00/▲1.40)	16.70 (▲0.30/▲1.50)	37.00 (▲7.50/▲0.74)	5.89 (▼0.69/▼3.41)
우크라이나	29.00 (▲2.20/▼3.50)	6.20 (▼0.30/▲0.72)	22.00 (▲1.98/▼7.49)	1.65 (▲0.81/▲1.11)
러시아	14.50 (▲0.50/▼2.10)	11.40 (▲0.50/▲1.20)	3.00 (0.00/▼3.60)	1.06 (▲0.15/▲0.30)
남아공	16.50 (▼0.56/▲3.07)	14.20 (▲0.20/▲0.36)	2.20 (▲0.30/▼0.07)	2.04 (▲0.10/▲1.39)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8 Feb. 10, 2026

4.2.2 수입 시장

유럽연합의 옥수수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생산량은 5,695만 톤으로 1월 대비 2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07만 톤, 2023/24년 대비 5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817만 ha로 2024/25년 대비 51만 ha 감소하겠으나,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6.97톤으로 2024/25년 대비 0.17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7,500만 톤으로 1월 대비 3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10만 톤, 2023/24년 대비 3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950만 톤으로 1월 대비 5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7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23/24년 대비 31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멕시코의 옥수수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생산량은 2,570만 톤으로 1월 대비 30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60만 톤, 2023/24년 대비 21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됐다. 생산 면적이 670만 ha로 2024/25년 대비 121만 ha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84톤으로 2024/25년 대비 0.37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5,140만 톤으로 1월 대비 4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230만 톤, 2023/24년 대비 4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630만 톤으로 1월 대비 5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7만 톤, 2023/24년 대비 208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은 1,5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5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만 톤, 2023/24년 대비 2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이집트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67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만 톤, 2023/24년 대비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85만 ha로 2024/25년 대비 7만 ha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7.88톤으로 2024/25년 대비 0.27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71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0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48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은 1,16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만 톤, 2023/24년 대비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1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소비량과 수입량을 제외하면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3,103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4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5,210만 톤으로 1월 대비 2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9만 톤, 2023/24년 대비 3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2,1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0만 톤, 2023/24년 대비 221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3억 124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32만 톤, 2023/24년 대비 1,24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이 4,496만 ha로 2024/25년 대비 22만 ha 증가할 전망이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6.70톤으로 2024/25년 대비 0.1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억 2,1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00만 톤, 2023/24년 대비 1,4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됐다. 수입량은 8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1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533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표 10〉 주요 수입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유럽연합	56.95 (▼2.07/▼5.00)	75.00 (▼1.10/▼3.10)	19.50 (▲0.74/▼0.31)	5.86 (▼0.35/▼1.43)
멕시코	25.70 (▲2.60/▲2.15)	51.40 (▲2.30/▲4.40)	26.30 (▲0.37/▲2.08)	6.10 (▲0.57/▲0.47)
일본	0.02 (0.00/▲0.01)	15.50 (▲0.10/▲0.20)	15.50 (▲0.04/▲0.21)	1.39 (▲0.02/▲0.09)
이집트	6.70 (▼0.30/▼0.50)	17.10 (▼0.20/▲1.80)	10.50 (▼0.06/▲2.48)	1.79 (▲0.10/▲0.36)
한국	0.09 (0.00/0.00)	11.60 (▲0.05/▲0.10)	11.50 (▲0.06/▼0.05)	2.02 (▼0.01/▼0.02)
동남아시아	31.03 (▼0.11/▲0.41)	52.10 (▲0.39/▲3.10)	21.50 (▲0.70/▲2.21)	2.74 (▼0.14/▼0.45)
중국	301.24 (▲6.32/▲12.40)	321.00 (▲5.00/▲14.00)	8.00 (▲6.18/▼15.33)	180.15 (▼11.78/▼31.04)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8 Feb. 10, 2026

5. 대두

5.1 세계 수급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5/26년 세계 대두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4억 2,800만 톤으로 0.2% 증가를 전망한 반면, IGC는 4억 2,800만 톤으로 0.2% 감소를 전망했다. FAO는 4억 3,000만 톤으로 변동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의 경우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5억 5,200만 톤으로 1.8%, IGC는 5억 1,000만 톤으로 1.8%, FAO는 5억 200만 톤으로 1.2% 증가를 전망했다.

소비량도 세 기관 모두 2024/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USDA는 4억 2,500만 톤으로 2.7%, IGC는 4억 3,100만 톤으로 2.9%, FAO는 4억 2,900만 톤으로 3.9% 증가를 전망했다. 교역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억 8,800만 톤으로 2.2%, IGC는 1억 8,700만 톤으로 1.1% 증가를 전망한 반면, FAO는 1억 8,500만 톤으로 동일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말재고량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1억 2,600만 톤으로 1.6%, FAO는 7,300만 톤으로 1.4% 증가를 전망한 반면, IGC는 7,900만 톤으로 3.7% 감소를 전망했다.

기말재고율의 경우 2024/25년 대비 USDA는 29.6%로 0.4%포인트, IGC는 18.3%로 1.3%포인트, FAO는 17.0%로 0.4%포인트 하락을 전망했다.

〈표 1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24/25 (추정)	2025/26 (2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2월 전망)	전년 대비	2024/25 (추정)	2025/26 (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427	428	0.2	429	428	-0.2	430	430	0.0
공급량	542	552	1.8	501	510	1.8	496	502	1.2
소비량	414	425	2.7	419	431	2.9	413	429	3.9
교역량	184	188	2.2	185	187	1.1	185	185	0.0
기말재고량	124	126	1.6	82	79	-3.7	72	73	1.4
기말재고율	30.0	29.6		19.6	18.3		17.4	17.0	

※ 기말재고율은 기말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PS&D, IGC, FAO-AMIS

5.2 국가별 수급

5.2.1 수출 시장

미국의 대두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1억 1,59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06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7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255만 ha로 2024/25년 대비 234만 ha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3.56톤으로 2024/25년 대비 0.15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7,29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90만 톤, 2023/24년 대비 755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4,286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837만 톤, 2023/24년 대비 34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952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68만 톤, 2023/24년 대비 20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대두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생산량은 1억 8,000만 톤으로 1월 대비 2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850만 톤, 2023/24년 대비 2,5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4,940만 ha로 2024/25년 대비 200만 ha 증가할 전망이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3.64톤으로 2024/25년 대비 0.02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6,540만 톤으로 1월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340만 톤, 2023/24년 대비 71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1억 1,400만 톤으로 1월

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25년 대비 1,086만 톤, 2023/24년 대비 981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791만 톤으로 1월 대비 10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10만 톤, 2023/24년 대비 819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급 전망은 이월 재고량을 제외하면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4,8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6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650만 ha로 2024/25년 대비 96만 ha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94톤으로 2024/25년 대비 0.01부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4,82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0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437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82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8만 톤, 2023/24년 대비 314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2,292만 톤으로 1월 대비 8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45만 톤, 2023/24년 대비 113만 톤 감소할 전망이다.

파라과이의 대두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생산량은 1,150만 톤으로 1월 대비 5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130만 톤, 2023/24년 대비 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380만 ha로 2024/25년 대비 5만 ha 증가할 전망이며, 단위당 수확량도 ha당 3.03톤으로 2024/25년 대비 0.31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373만 톤으로 1월 대비 50만 톤 상향 조정됐다. 2024/25년 대비 7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63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량은 770만 톤으로 1월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4/25년 대비 12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2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38만 톤으로 1월 대비 1만 톤 하향 조정됐다.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9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12〉 주요 수출국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미국	115.99 (▼3.06/▲2.72)	72.99 (▲3.90/▲7.55)	42.86 (▼8.37/▼3.41)	9.52 (▲0.68/▲0.20)
브라질	180.00 (▲8.50/▲25.50)	65.40 (▲3.40/▲7.14)	114.00 (▲10.86/▲9.81)	37.91 (▲1.10/▲8.19)
아르헨티나	48.50 (▼2.61/▲0.29)	48.20 (▼2.04/▲4.37)	8.25 (▲0.38/▲3.14)	22.92 (▼0.45/▼1.13)
파라과이	11.50 (▲1.30/▲0.50)	3.73 (▼0.07/▲0.63)	7.70 (▲1.29/▼0.29)	0.38 (▲0.09/▲0.09)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8 Feb. 10, 2026

5.2.2 수입 시장

중국의 대두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2,09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5만 톤, 2023/24년 대비 6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030만 ha로 2024/25년 대비 3만 ha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03톤으로 2024/25년 대비 0.3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착유용 소비량 증가로 인해 전체 소비량은 1억 3,29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550만 톤, 2023/24년 대비 1,1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억 1,2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과는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말재고량은 4,43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108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대두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27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4만 톤, 2023/24년 대비 2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 면적은 107만 ha로 2024/25년 대비 6만 ha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단위당 수확량은 ha당 2.60톤으로 2024/25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1,652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48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1,40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1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53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의 대두 수급 전망은 1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28만 톤으로 2024/2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2023/24년 대비 8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량은 68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5만 톤, 2023/24년 대비 29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량은 67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27만 톤, 2023/24년 대비 24만 톤 증가할 전망이다.

〈표 13〉 주요 수입국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기말 재고량
중국	20.90 (▲0.25/▲0.06)	132.90 (▲5.50/▲11.10)	112.00 (▲4.00/0.00)	44.39 (▼0.10/▲1.08)
유럽연합	2.79 (▼0.14/▼0.02)	16.52 (▼0.48/▲0.52)	14.00 (▼0.71/▲0.53)	1.57 (▼0.03/▲0.28)
멕시코	0.28 (0.00/▲0.08)	6.89 (▲0.15/▲0.29)	6.70 (▲0.27/▲0.24)	0.68 (▲0.09/▲0.06)

※ 괄호 안은 2024/25년 및 2023/24년 대비 항목별 증감을 표기한 것임

자료: USDA, WASDE-668 Feb. 10, 2026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GFM (Global Financial Markets) 투자연구소장)*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시절처럼 지금 우리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發 뉴스로 함께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마두로 체포 후 압송이라는 영화 같은 일이 펼쳐지더니 미국의 對이란 공습 개시 이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부적으로 치열한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중국의 존재감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미증유(未曾有)의 폭등세를 시현 중인 한국 증시..... 이런 저런 악재들을 무시하고 유동성의 힘에 의지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3월이 시작됩니다.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국제정세도, 미국의 워싱턴 D.C. 기상도도 뒤죽박죽

연말에 가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2026년은 국내외적으로 공히 자주 회자되는 역사적인(historic) 해가 될 듯하다. 국제정세 측면에서는 세계 최강국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인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실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작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라는 조롱을 받아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벽두(1월 3일)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여 뉴욕으로 압송하였다(〈그림 1〉 참조). 그 날 백악관 인스타그램과 X(트위터)에 올라온 ‘FAFO; Fuck Around and Find Out’ 문구는 이후 숨 가쁘게 전개되어 온 국제정세가 웅변하듯이 이제 그(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임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였다.

* gfm5298@gmail.com

〈그림 1〉 아메리카 대륙과 북극해, 카리브해에서 펼쳐지는 영화 같은 현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 의지를 강하게 내비칠 때까지만 해도 세계 언론은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 운운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은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에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은 그보다는 훨씬 크고 일반인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익숙한 메르카토르 도법에 따른 세계지도도를 통해서는 그 지역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빙하가 점점 녹아가고 있는 북극해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 항로가 될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치를 보더라도 저 얼음 덩어리 땅의 군사적 위상은 엄청나다. 거기에다 저 지역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희토류 포함 온갖 자원까지 감안해 본다면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장인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인 로널드 로더(화장품 기업 창업자인 에스티 로더의 차남, 세계유대인의회 회장)가 일찌감치 그린란드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그리고 2월이 넘어가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및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기에 이르렀다(그림 2) 참조).

〈그림 2〉 현실화된 중동궤 지정학적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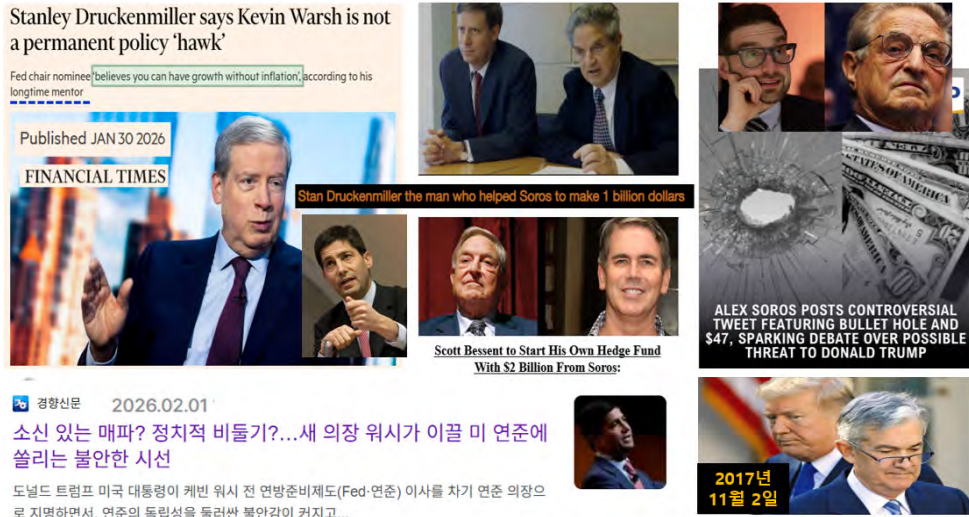
글로벌이코노믹 2026-02-23 06:29

미국·이란 핵 협상, 26일 제네바서 재개...극적 합의 끌어낼까?

트럼프 '제한적 공격' 시사 속 오만 중재로 회동...우라늄 농축 0% vs 권리 주장 팽팽
 미국, 항공모함 2척 동원한 무력 시위로 압박... 이란 "군사력 증강에 굴복 안 해" 맞대응
 IAEA 이사회·안보리 회부 시한 임박... '우라늄 농축' 금지선 놓고 막판 벼랑 끝 전술 예고

〈그림 1~2〉는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우리가 매일 접하는 TV 뉴스로 보도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미국의 정보력과 군사력은 이토록 대단했던 것인가? 지난 수십 년간 보아온 무기력한 미국과 미군은 왜 그랬던 것일까? 일국의 대통령 부부가 몇 시간의 군사작전으로 저렇게 체포되어 압송되었는데 그 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분노하기보다 환호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작년 6월 B2 스텔스 폭격기의 벙커버스터 폭탄 투하로 이란 핵시설이 파괴되었다 해놓고 또 핵 협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작년의 그것(핵시설 파괴 주장)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개전 하루도 되지 않아 이란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폭사시켰다는데, 그럼 이번 미국-이란 간 전쟁은 과거 베트남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戰과는 달리 단기전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이 혼돈 가운데 존재감 없이 뒷전에 밀려나 있을 것인가? 국제 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하여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 우려를 자극하지 않을 것인가? 세계 증시는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잘 버텨낼 것인가? 참으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세상이다.

〈그림 3〉 새 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 질게 드리우는 조지 소로스의 그림자



〈그림 3〉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하여 족보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92년 영국 파운드화가 고평가되었다고 평가한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화에 대한 대대적인 매도 공세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거덜 낼 당시 그의 오른팔로 활약했던 스탠리 드러컨밀러는 이후 월가의 전설로 자리 잡는다. 그 시절에 스콧 베센트를 조지 소로스 펀드에 영입한 이후로 베센트에게 드러컨밀러는 평생의 멘토와 같은 존재..... 드러컨밀러는 이후 개인 자산을 운용하는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했고, 이곳에서 약 15년 동안 파트너로서 함께 일한 케빈 워시와의 관계는 월가에서 부자(父子)와 같은 관계로 묘사되고 있다. 차기 통화정책의 수장(케빈 워시)과 현직 재정정책의 수장(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모두 드러컨밀러와 언제라도 편하게 통화하고 만날 수 있는 미국이 되면서 1930년생 조지 소로스의 그림자가 새삼스럽게 질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뚜렷한 대내외 정책을 표방하며 막강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전반부에 한 하늘을 함께 이고 가지 못할(불구대천; 不俱戴天) 소로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사실은 혼란스럽다(☹️) 일례로 조지 소로스의 후계자인 그의 아들 알렉스 소로스는 트럼프 암살을 선동하는 듯한 메시지를 몇 차례나 X에 올렸고,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거액의 자금을 대는 배후로 트럼프는 소로스 가문을 의심하고 있다. 집권 1기 초였던 2017년에 제롬 파월을 재닛 옐런의 후임으로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바라보는 표정과 눈빛은 당시 선택이 온전히 그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짐작케 했는데(☹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불화와 갈등을 보라), 케빈 워시로 최종 낙점 된 이번 연준 의장 지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꺼운 선택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짐작이다.

〈그림 4〉 연방 대법원의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위법” 판결 이후는?

미국 트럼프행정부 관세정책 근거 *2026년 2월

근거법	제정	대통령 권한	현황*	비고
국제비상경제수권법 (IEEPA)	1977년	광범위한 거래 규제	중지	이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는 위법 (연방대법원 판결)
무역법 제122조	1974년	관세, 수입쿼터 등	적용 개시	트럼프 "10% 적용"(2월20일) → "15% 적용"(2월21일)
무역법 제301조 등	1974년	양허혜택 정지 및 관세	적용 추진	USTR "사전조사 착수"
무역확장법 제232조	1962년	안보 위협하는 수입 조절	가능성	
관세법 제338조	1930년	미국차별행위에 관세부과	가능성	



us 미국 무역법 제122조

MIT 더니루데이

Section 122 — Balance-of-Payments Authority

(a) Presidential action

Whenever the President determines that action is necessary to deal with large and serious United States balance-of-payments deficits or to prevent an imminent and significant depreciation of the dollar, the President may impose temporary import surcharges or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Bernd Lange @berndlange 오후 7:46 · 2026년 2월 22일

Clarity and legal certainty are needed before any further steps are taken. At our extra meeting tomorrow, I will therefore propose to the EP-negotiating team putting legislative work on hold until we have a proper legal assessment and clear commitments from the US side. (3/3)

영어에서 번역(Google 제공)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내일 있을 추가 회의에서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할 것을 유럽의 협상팀에 제안할 것입니다. (3/3)

Donna J. Hurry @donnahurry

Big Country that wants to "play games" with the Middle East... (text partially obscured)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

美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국가비상경제제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그림 4〉 참조). 헌법상 관세를 포함한 조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는 판단인 셈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몇 시간 만에 ‘플랜 B’를 가동, 1974년 무역법 12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U 통상위원회 위원장의 반발에 대해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 믿고 관세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그동안 전 세계의 골칫거리였던 '관세(tariff)'는 이제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불확실성만 더욱 커지는 중이다. 무역법 122조의 관세 부과 조건만 보더라도 미국의 국제수지가 심각한 적자에 처하든지(☞ 무역수지는 대규모 적자지만 풀려나간 달러가 미국의 국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든 미국 내 투자를 위해서든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국제수지는 적자가 아니다) 달러화가 즉각적이고 심대한 약세 위기에 처하여야 하는데 지금 당장 미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이미 거둬들인 관세의 환급 문제는 대법원에서 아예 언급을 회피할 정도로 미국 정부에게나 관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나 골치 아픈 난제다. 워싱턴 D.C.의 정치 기상도도 뒤죽박죽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함인데, 피아(彼我) 구별도 쉽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그 근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 그리고 美-中 간의 패권경쟁이 깔려있음을 인식하고 가야 할 것으로 본다.

■ 고비에 이른 美 증시, 포모(FOMO)로 뜨거운 韓 증시

2023년 초부터 2025년 말까지 3년에 걸쳐 122%(나스닥), 78.3%(S&P 500) 등의 혁혁한 지수 상승률을 보이며 세계 증시를 리드해 온 미국 증시는 2026년 들어 다소 힘이 부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5〉 참조). 2000년 팬데믹으로 인한 급락 이후 상승 폭의 절반을 되돌리고 다시 상승세를 회복한 S&P500 지수는 이후 랠리의 조정을 또 상승 폭의 절반에서 멈춘 뒤 'AI 붐'으로 재개된 상승세를 지속해 왔지만 이상향 상승 채널의 상단에서 기술적 과매수 상태가 확연한 가운데 다음 방향성을 모색 중이다.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빅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 와중에 반도체 기업들은 Q(물량)와 P(가격)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 호황을 누리며 실적 개선과 주가 급등을 누려왔다. 반면에 그 칩을 구매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향후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며 걱정스러운 정도의 주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6〉 참조). 작년 10월 중순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업체 한 군데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한 곳이 파산에 이르렀을 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경고했던 '바퀴벌레'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도 뉴욕증시로서는 부담스럽다(〈그림 7〉 참조). AI 데이터센터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막대한 대출을 해왔던 대형 사모대출(Private Credit) 운용사인 블루 아울 캐피탈이 주력 펀드의 환매를 영구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당장 뉴욕증시의 급락을 초래할 정도의 이슈는 아니지만 '탄광 속 카나리아'의 교훈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뉴욕증시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이라는 재료도 소화해야 한다.

〈그림 5〉 美 S&P500 지수 주간차트



차트 인용: 인포맥스(2월 27일 장 마감 후), 이하 같음

〈그림 6〉 ‘Chip maker’ vs ‘Chip buyer’ ... 대비되는 주가 흐름



〈그림 7〉 사모펀드 업계의 부실에 대한 시장의 우려



앞서 2023년 초부터 2025년 말까지 3년에 걸친 나스닥 종합지수의 상승률은 122%라 하였는데, 2026년 2월 말까지 기간을 확대하면 116.6%로 낮아진다. 그런데 2023년 초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한국의 KOSPI는 179.2% 올라 미국의 3대 지수를 모두 앞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KOSDAQ의 경우 75.6%로 미국 다우존스 지수의 47.8%를 압도한다). AI 붐으로 인해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수혜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세계적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증시가 톡톡히 누릴 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원전 등 글로벌 기업들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탄탄한 제조업 포트폴리오에서 활황이 이어지는 데에다 비상계엄 국면 이후 대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딱 막히면서 갈 곳을 잃은 시중 유동성이 일제히 증시로 몰려들자 그야말로 미증유(未曾有)의 폭발적인 증시 폭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그림 8〉 참조).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의 열기(狂氣?)는 설 연휴 이후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인데, 기술적으로는 이미 역대급 과매수 국면에 접어든 국내 증시가 3월 들어서도 조정다운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림 8〉 KOSPI 월간 차트



차트 인용: 인포맥스(2월 27일 장 마감 후)

〈그림 9〉 국내 증시 수급 동향 (2025년 6월 4일 ~ 2026년 2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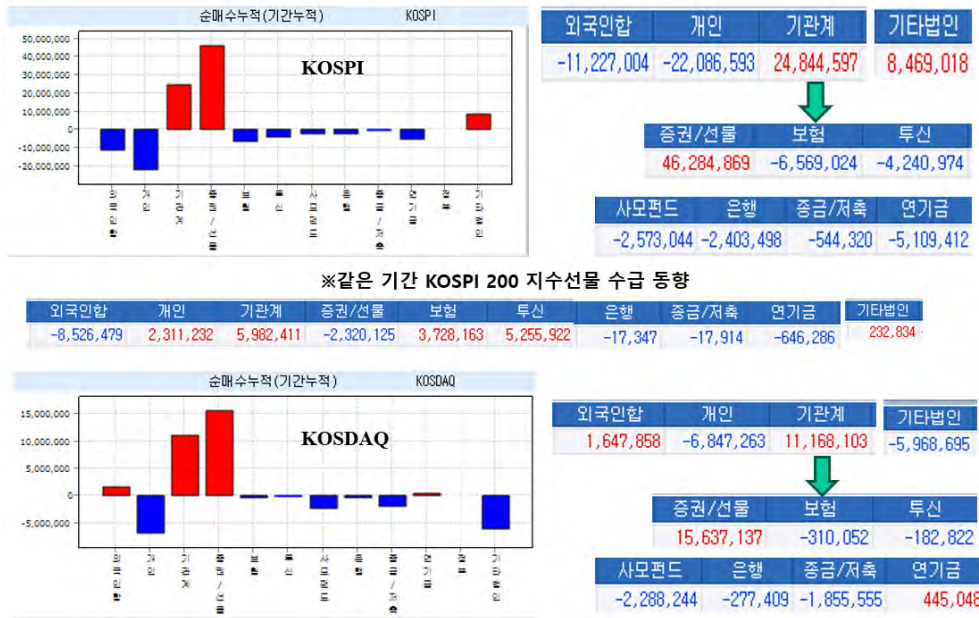


차트 및 자료 인용: 인포맥스

앞서 살펴본 이런저런 요인들이 절묘하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마침내 그 지긋지긋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는 역사적 시점에 우리가 서있다고 볼 수 있는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인데, 이 대목에서 수급주체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몇 가지 짚짚한 구석이 있다(〈그림 9〉참조). 대선 결과가 확인된 작년 6월 4일 이후 KOSPI의 급등세를 주도한 세력은 외국인도 개인도 아닌 기관, 특히 증권사중심의 금융투자업체들이다. 물론 외국인들이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초기 상승세를 주도하고 최근 들어서는 차익실현에 적극 나서는 등 시기별 매매패턴은 복잡다단하고 개인들이 직접투자에서 ETF나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비중을 높인 결과일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한국 주식 매수로 유통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KOSPI에서는 기타법인 수치에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지만 KOSDAQ에서는 역시나(!) 이번 주가 급등을 대주주들의 탈출 기회로 여기고 있음도 감지된다.

2. 환율 동향 및 전망

■ 놀라서 될 일이 아닌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8일 치러진 일본의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어내면서 자신이 그저 아베 신조 전(前) 총리의 후광으로 총리 자리에 오르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그림 10〉 참조). '책임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건 다카이치 총리 치하에서 시장으로서는 향후 일본의 재정적자 심화와 엔화의 약세에 베풀고 나서는 것이 제일감이다.

〈그림 10〉 2월 8일 일본 총선 결과와 달러/엔(USDJPY) 일간차트



1월 중순 1 달러 당 160엔이라는 심리적 저항 구간마저 올라설 기세를 보이던 달러/엔(USDJPY) 환율은 1월 23일 뉴욕 연방은행의 레이트 체크(Rate check; 달러들 사이에서는 실제 시장개입 전단계로 인식) 루머에 급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다시 엔화약세를 재개하였다. 자민당의 압승을 확인하고 다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 것은 ‘Buy on rumor, sell on news’라는 시장 격언으로도 이해할 수 있든지 일본 외환당국 차원의 개입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흐름도 결국 기술적 지지선에서는 막힌 뒤 다시 엔화약세로 돌아 3월 접어들면서 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에 단기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고 있다. 펀더멘탈에 반하는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이라는 시장가격 변수를 제압하기가 쉽지 않을 일임을 최근 달러/엔 환율 동향에서도 확인되는 셈이다. 달러/엔 환율 등락에 상당히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는 달러/원(USDKRW) 환율도 마찬가지다(〈그림 12〉 참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현실화로

(단기적) 국제유가의 급등과 달러강세는 불가피해 보이는 와중에 이번에도 당국의 1,480원 방어가 성공할지 지켜볼 일이다.

〈그림 11〉 달러/원(USDKRW) 환율 일간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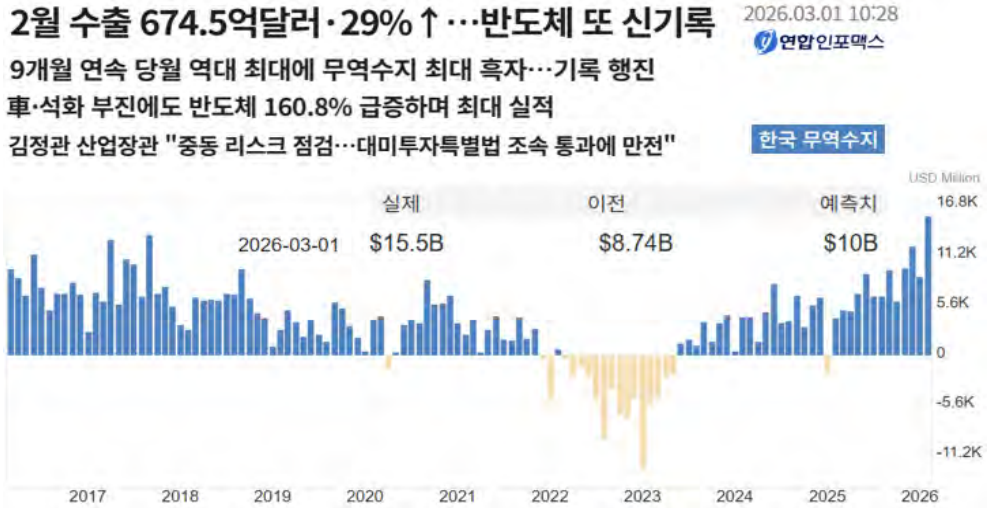
차트 인용: 인포맥스(2월 27일 장 마감 후)

■ 함께 살펴봐야 할 지표와 외환시장 바깥의 가격 변수들

국제외환시장에서의 투기적 포지션은 'Short(달러 매도)' 쪽으로 기울어있다. 기본적으로 연준(Fed)의 금리인하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를 이루는 데에다 세계적인 '탈(脫) 달러'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달러약세를 바란다 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반면 서울 외환시장은 'Heavy Long'으로 진단된다. 무역수지 흑자를 증가하는 포트폴리오 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달러강세라기보다는 원화약세 전망이 수출입 기업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확산되어 온 결과 앞으로 달러를 사야 할 곳보다는 달러를 내다팔아야 할 곳이 더 많아 보인다. 〈그림 12〉는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무역수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도체 부문의 호황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런 다행스러운 뉴스를 계속 접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림 13〉은 1,500원 위로 치솟는 환율은 무리라고 보는지 최근 들어 달러 매물을 내놓는 업체들이 출현함

을 시사한다. <그림 14>에서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시장에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safety)’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래저래 만만치 않은 병오년(丙午年) 한 해가 될 듯하다.

<그림 12> 반도체 수출 호황에 급증하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그림 13> 거주자외화예금 추이

주체별 거주자외화예금 잔액 추이

(기말기준, 억달러)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B - A
				11월	12월(A)	1월(B) ¹⁾	
기업	961.0	882.6	871.2	884.3	1,025.0	1,006.8 <85.3>	-18.2
(달러화)	(825.7)	(734.9)	(749.8)	(750.4)	(819.2)	(819.3) <85.1>	(0.1)
개인	148.8	156.2	141.8	151.1	169.3	173.5 <14.7>	4.2
(달러화)	(128.1)	(123.0)	(114.5)	(125.6)	(140.1)	(144.0) <14.9>	(3.9)
합계	1,109.8	1,038.8	1,013.0	1,035.5	1,194.3	1,180.3 <100.0>	-14.0
(달러화)	(953.8)	(857.9)	(864.3)	(875.9)	(959.3)	(963.4) <100.0>	(4.0)

주 : 1) < >내는 비중(%) 2) ()내는 달러화예금

〈그림 14〉 안전자산으로의 회피(?)(!)



차트 인용: TradingView, 인포맥스(3월 2일 현재)

곡물 시장의 선물가격 동향 및 전망

김민수(에그스카우터 대표)*

2025년 11월 중순 이후 낮아졌던 밀과 대두 가격이 2026년을 맞이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으며 2월 후반 밀 가격은 2025년 7월 말, 대두 가격은 2025년 11월 말 수준까지 올라섰다. 옥수수 가격은 2025년 연말까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6년 1월 12일 미국 농무부의 수급 전망 보고서 발표로 급락했으며 이후 낙폭을 줄이며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수급 측면에서 2025/26년 세계 밀, 옥수수 수급에 대한 2월 전망은 1월 전망 대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의 경우 세계 교역량이 늘어나게 되어 가용 가능한 기말재고량이 하향 조정됐다. 옥수수의 경우 세계 교역량과 더불어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어 기말재고량이 감소했다. 반면 세계 대두 수급에 대한 2월 전망은 1월 전망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과 소비량이 늘었으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해 기말재고량은 상향 조정됐다.

외부 시장과의 관계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 이란에서의 반정부 시위 격화와 미국의 개입,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추진 등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두드러져 곡물 가격의 상승세는 제한을 받았다.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와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이 쟁점화되면서 곡물 가격이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

* agscouter@naver.com

1. 시카고 상품거래소 곡물 선물가격 동향¹⁾

1.1 밀

2026년 1월 이후의 밀(연질 적색 겨울밀) 가격 흐름을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2026년 3월물이 기준이 되는 1월 1주 차(1/1~1/8) 평균 가격은 5.13달러, 최고가는 5.18달러, 최저가는 5.07달러이다. 5.07달러에서 개시되어 5.18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1달러 상승했다. 달러 강세 기조는 하락 요인이 됐으나 미국의 주간 판매량 증가로 인해 오르는 장이 형성됐다.

1월 2주 차(1/9~1/15) 평균 가격은 5.12달러, 최고가는 5.17달러, 최저가는 5.11달러이다. 5.17달러에서 개시되어 5.11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6달러 하락했다. 달러 강세와 러시아의 수출 확대 전망, 미국 내 분기 재고량 증가로 인해 반락했다.

1월 3주 차(1/16~1/23) 평균 가격은 5.16달러, 최고가는 5.30달러, 최저가는 5.08달러이다. 5.18달러에서 개시되어 5.30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2달러 상승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미국의 주간 수출 판매량 증가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상승세로 전환됐다.

1월 4주 차(1/24~1/31) 평균 가격은 5.32달러, 최고가는 5.42달러, 최저가는 5.23달러이다. 5.23달러에서 개시되어 5.38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5달러 상승했다. 달러 가치 하락, 미국 산지 한파 등으로 인해 상승세는 이어졌다.

2월 1주 차(2/1~2/7) 평균 가격은 5.30달러, 최고가는 5.35달러, 최저가는 5.27달러이다. 5.28달러에서 개시되어 5.30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2달러 상승했다. 달러 강세 기조와 차익실현으로 인해 강한 하락 압력을 받기도 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유럽 및 러시아 등 세계 주요 산지의 겨울 한파로 인해 상승세는 유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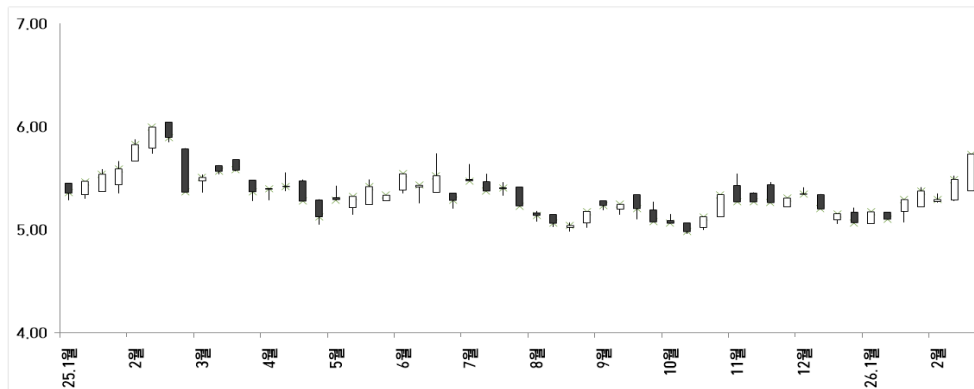
2월 2주 차(2/8~2/15) 평균 가격은 5.39달러, 최고가는 5.53달러, 최저가는 5.28달러이다. 5.29달러에서 개시되어 5.49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20달러 상승했다. 달러 가치 상승과 글로벌 공급 확대 전망으로 인해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으나 러시아의 기상 악화로 인한 선적 지연 소식과 미국의 주간 수출 판매량 증가로 인해 강세장을 형성했다.

1)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부셸 당 가격임

2월 3주 차(2/16~2/22) 평균 가격은 5.54달러, 최고가는 5.74달러, 최저가는 5.38달러이다. 5.38달러에서 개시되어 5.74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36달러 상승했다. 러시아의 생산 확대 전망에 강한 하락 압력을 받기도 했으나 2026/27년 미국의 파종 면적 감소가 예상되자 시장 참가자들은 밀 가격을 대폭 끌어올렸다.

〈그림 1〉 CME 밀(SRW) 선물가격 주간 단위 시계열 흐름(최근월물 기준)

(단위: US \$/부셸)



자료: CME

1.2 옥수수

2026년 1월 이후의 옥수수 가격 흐름을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2026년 3월물이 기준이 되는 1월 1주 차(1/1~1/8) 평균 가격은 4.44달러, 최고가는 4.47달러, 최저가는 4.38달러이다. 4.38달러에서 개시되어 4.46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8달러 상승했다. 달러 강세, 유가 하락 등 외부 시장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로 인해 오르는 장이 형성됐다.

1월 2주 차(1/9~1/15) 평균 가격은 4.26달러, 최고가는 4.46달러, 최저가는 4.20달러이다. 4.46달러에서 개시되어 4.20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26달러 하락했다. 수급 전망에서 미국 내 단수가 시장 예상과 달리 증가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기말재고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옥수수 가격은 폭락했다.

1월 3주 차(1/16~1/23) 평균 가격은 4.25달러, 최고가는 4.31달러, 최저가는 4.22달러이다. 4.25달러에서 개시되어 4.31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6달러 상승했다. 저가 매수세 유입과 미국의 양호한 수출 판매 소식으로 인해 반등했다.

1월 4주 차(1/24~1/31) 평균 가격은 4.29달러, 최고가는 4.31달러, 최저가는 4.27달러이다. 4.28달러에서 개시되어 4.28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변동 없었다. 미국의 양호한 주간 수출 검사 실적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 보합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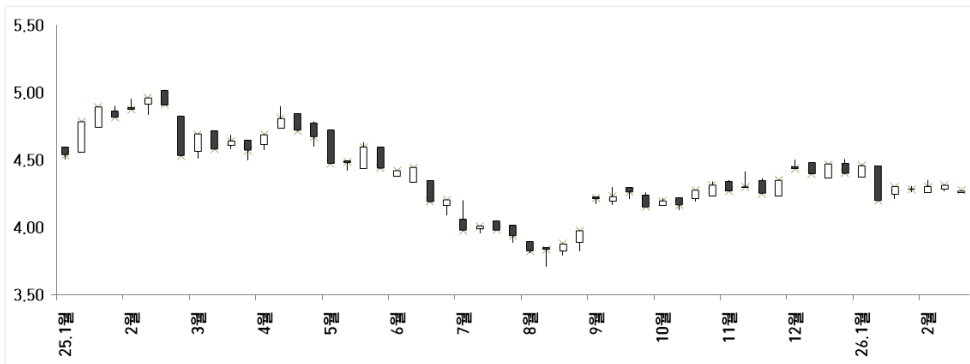
2월 1주 차(2/1~2/7) 평균 가격은 4.30달러, 최고가는 4.35달러, 최저가는 4.26달러이다. 4.26달러에서 개시되어 4.30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4달러 상승했다. 달러 강세, 유가 하락 등 외부 시장의 영향과 미국의 주간 수출 검사량 감소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았으나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유가가 반등하자 상승세로 전환됐다.

2월 2주 차(2/8~2/15) 평균 가격은 4.30달러, 최고가는 4.32달러, 최저가는 4.28달러이다. 4.29달러에서 개시되어 4.32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3달러 상승했다. 양호한 주간 수출 판매 실적과 브라질의 생산 전망 하향 조정 등으로 인해 추가 상승했다.

2월 3주 차(2/16~2/22) 평균 가격은 4.27달러, 최고가는 4.28달러, 최저가는 4.26달러이다. 4.26달러에서 개시되어 4.28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2달러 상승했다. 유가 강세와 미국의 에탄올 생산 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그림 2〉 CME 옥수수 선물가격 주간 단위 시계열 흐름(최근월물 기준)

(단위: US \$/부셸)



자료: CME

1.3 대두

2026년 1월 이후의 대두 가격 흐름을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2026년 3월물이 기준이 되는 1월 1주 차(1/1~1/8) 평균 가격은 10.58달러, 최고가는 10.67달러, 최저가는 10.46달러이다. 10.46달러에서 개시되어 10.62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6달러 상승했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과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오르는 장이 형성됐다.

1월 2주 차(1/9~1/15) 평균 가격은 10.49달러, 최고가는 10.63달러, 최저가는 10.39달러이다. 10.63달러에서 개시되어 10.53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0달러 하락했다. 미국 농무부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시장 예상과 달리 미국 내 단수가 줄지 않았으며 분기 재고 증가로 인해 반락했다.

1월 3주 차(1/16~1/23) 평균 가격은 10.61달러, 최고가는 10.68달러, 최저가는 10.53달러이다. 10.58달러에서 개시되어 10.68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10달러 상승했다. 유가 상승과 저가 매수세 유입, 미국의 주간 수출 판매량 증가로 인해 다시 상승했다.

1월 4주 차(1/24~1/31) 평균 가격은 10.68달러, 최고가는 10.75달러, 최저가는 10.62달러이다. 10.62달러에서 개시되어 10.64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2달러 상승했다. 유가 하락과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았으나 달러 가치 급락, 유가 급반등으로 인해 상승세는 이어졌다.

2월 1주 차(2/1~2/7) 평균 가격은 10.89달러, 최고가는 11.15달러, 최저가는 10.60달러이다. 10.60달러에서 개시되어 11.15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55달러 상승했다. 인도가 미국산 대두 및 대두유 수입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어 급등했다.

2월 2주 차(2/8~2/15) 평균 가격은 11.26달러, 최고가는 11.37달러, 최저가는 11.11달러이다. 11.11달러에서 개시되어 11.33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22달러 상승했다. 브라질의 생산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의 미국산 구매 확대 가능성에 주목해 대두 가격을 재차 끌어올렸다.

2월 3주 차(2/16~2/22) 평균 가격은 11.37달러, 최고가는 11.41달러, 최저가는 11.34달러이다. 11.34달러에서 개시되어 11.38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며 주간 가격은 0.04달러 상승했다. 외부 시장의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소폭 상승하는 장이 형성됐다.

〈그림 3〉 CME 대두 선물가격 주간 단위 시계열 흐름(최근월물 기준)

(단위: US \$/부셸)



자료: CME

2. 수급 지표와 곡물 선물가격 변동 요인

2.1 밀

2.1.1 세계 밀 수급 전망

미국 농무부의 2025/26년 세계 밀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1월 전망은 12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생산량과 수입량이 각각 0.5%씩 늘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과 수출량이 각각 0.1%, 0.5% 줄었다. 기말재고량은 1.2% 증가했으며 재고비율은 26.7%로 1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2월 전망은 1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1% 줄었으나 수입량이 1.0% 늘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량이 1.0% 늘었다. 기말재고량은 0.3% 감소했으며 재고비율도 26.5%로 1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표 1〉 세계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2(A)	259.77	841.80	217.73	824.06	221.96	277.51	26.5
25/26.1(B)	260.00	842.17	215.54	823.91	219.76	278.25	26.7
25/26.12(C)	260.03	837.81	214.39	822.97	218.71	274.87	26.4
증감률(A/B)	-0.1	0.0	1.0	0.0	1.0	-0.3	
증감률(B/C)	0.0	0.5	0.5	0.1	0.5	1.2	

※ 재고 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2.1.2 밀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미국

2025/26년 미국의 밀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1월 전망은 12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5% 늘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1.8% 줄었다. 기말재고량은 2.8% 증가했으며 재고비율도 45.6%로 12월 전망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2월 전망은 1월 전망 대비 공급량은 변동 없었으며 수요 측면에서 소비량이 0.4% 줄었다. 기말재고량은 0.5% 증가했으며 재고비율도 45.9%로 1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표 2〉 미국의 밀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2(A)	23.26	54.01	3.27	30.71	24.49	25.34	45.9
25/26.1(B)	23.26	54.01	3.27	30.84	24.49	25.21	45.6
25/26.12(C)	23.15	54.01	3.27	31.41	24.49	24.52	43.9
증감률(A/B)	0.0	0.0	0.0	-0.4	0.0	0.5	
증감률(B/C)	0.5	0.0	0.0	-1.8	0.0	2.8	

※ 재고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미국의 밀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2월 10일 발표된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파종 면적은 4,530만 에이커로 1월 및 2025년 12월 전망과 같았으며 2024/25년 대비 100만 에이커 줄었다. 생산 면적은 3,720만 에이커로 1월 및 2025년 12월 전망과 같았으며 2024/25년 대비

140만 에이커 줄었다. 단위당 수확량의 경우 2월 전망에서는 에이커당 53.3부셀로 제시되어 1월 및 2025년 12월 전망과 같았으며 2024/25년 대비 2.1부셀 증가했다.

〈표 3〉 미국의 밀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구분	2024/25	2025/26		
		12월 전망	1월 전망	2월 전망
파종 면적(백만 에이커)	46.3	45.3	45.3	45.3
생산 면적(백만 에이커)	38.6	37.2	37.2	37.2
단위당 수확량(부셀/에이커)	51.2	53.3	53.3	53.3

자료: USDA WASDE

나. 유럽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을 2,300만 톤, 수출량을 1,400만 톤으로 제시했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러시아의 밀 생산량을 8,950만 톤, 수출량을 4,400만 톤으로 제시했다.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을 1억 4,400만 톤, 수출량을 3,150만 톤으로 제시했다.

다. 기타

호주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호주의 밀 생산량을 3,700만 톤, 수출량을 2,700만 톤으로 제시했다.

캐나다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캐나다의 밀 생산량을 3,996만 톤, 수출량을 2,900만 톤으로 제시했다.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량을 1,890만 톤, 수출량을 970만 톤으로 제시했다.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을 2,780만 톤, 수출량을 1,800만 톤으로 제시했다.

인도의 밀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인도의 밀 생산량을 1억 1,795만 톤으로 제시했으며 수출 통제로 인해 밀 수출량은 25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밀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중국의 밀 생산량을 1억 4,007만 톤, 수입량을 6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2 옥수수

2.2.1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미국 농무부의 2025/26년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1월 전망은 12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5%, 생산량이 1.0% 늘었으나 수입량이 0.1% 줄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2% 늘었다. 기말재고량은 4.2% 증가했으며 재고비율도 19.3%로 12월 전망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2월 전망은 1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이 0.1% 줄었으나 수입량이 1.0% 늘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과 수출량이 각각 0.1%, 0.7% 늘었다. 기말재고량은 0.7% 감소했으며 재고비율도 19.2%로 1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표 4〉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2(A)	294.35	1,295.91	192.08	1,301.29	206.55	288.98	19.2
25/26.1(B)	294.70	1,296.01	190.22	1,299.80	205.11	290.91	19.3
25/26.12(C)	293.27	1,282.96	190.37	1,297.18	205.10	279.15	18.6
증감률(A/B)	-0.1	0.0	1.0	0.1	0.7	-0.7	
증감률(B/C)	0.5	1.0	-0.1	0.2	0.0	4.2	

※ 재고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2.2.2 옥수수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미국

2025/26년 미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1월 전망은 12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이 각각 1.3%, 1.6% 늘었다. 수요 측면에서 소비량이 0.7% 늘었다. 기말재고량은 9.8% 증가했으며 재고비율도 13.6%로 12월 전망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2월 전망은 1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변동 없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량이 3.1% 늘었다. 기말재고량은 4.5% 감소했으며 재고비율도 12.9%로 1월 전망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표 5〉 미국의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2(A)	39.40	432.34	0.64	334.53	83.82	54.02	12.9
25/26.1(B)	39.40	432.34	0.64	334.53	81.28	56.56	13.6
25/26.12(C)	38.91	425.53	0.64	332.25	81.28	51.53	12.5
증감률(A/B)	0.0	0.0	0.0	0.0	3.1	-4.5	
증감률(B/C)	1.3	1.6	0.0	0.7	0.0	9.8	

※ 재고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미국의 옥수수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변화를 살펴보면 2월 10일 발표된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파종 면적은 9,880만 에이커로 1월 전망과 같았으나 2025년 12월 전망 대비 10만 에이커, 2024/25년 대비 790만 에이커 늘었다. 생산 면적은 9,130만 에이커로 1월 전망과 같았으나 2025년 12월 전망 대비 130만 에이커, 2024/25년 대비 830만 에이커 늘었다. 단위당 수확량의 경우 2월 전망에서는 에이커당 186.5부셸로 제시되어 1월 전망과 같았으나 2025년 12월 전망 대비 0.5부셸, 2024/25년 대비 7.2부셸 증가했다.

〈표 6〉 미국의 옥수수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구분	2024/25	2025/26		
		12월 전망	1월 전망	2월 전망
파종 면적(백만 에이커)	90.9	98.7	98.8	98.8
생산 면적(백만 에이커)	83.0	90.0	91.3	91.3
단위당 수확량(부셸/에이커)	179.3	186.0	186.5	186.5

자료: USDA WASDE

나. 남미

브라질 곡물공급공사인 CONAB은 2월 12일 2025/26년 브라질의 옥수수 수급 전망을 발표했으며 전체 생산량은 1억 3,845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9% 감소했으나 2023/24년 대비 19.8% 증가했다. 1기작 생산량은 2,67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7.1%, 2023/24년 대비 16.3% 증가했다. 2기작 생산량은 1억 926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5% 감소했으나 2023/24년 대비 21.3% 증가했다. 3기작 생산량은 24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6.7%, 2023/24년 대비 0.8% 감소했다. 수출량은 4,650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11.7%, 2022/23년 대비 20.8% 증가했다.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을 1억 3,100만 톤, 수출량을 4,300만 톤으로 제시했다.

〈표 7〉 브라질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구분	2023/24	2024/25	2025/26
전체 생산량	115.53	141.16	138.45
1기작 생산량	22.96	24.94	26.70
2기작 생산량	90.06	113.23	109.26
3기작 생산량	2.51	2.99	2.49
수출량	38.50	41.63	46.50

자료: CONAB, SAFRA 2025/26 5th Levantamento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을 5,300만 톤, 수출량을 3,700만 톤으로 제시했다.

다. 유럽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을 2,900만 톤, 수출량을 2,200만 톤으로 제시했다.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유럽연합의 옥수수 생산량을 5,695만 톤, 수입량을 1,950만 톤으로 제시했다.

라. 기타

남아공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남아공의 옥수수 생산량을 1,650만 톤, 수출량을 220만 톤으로 제시했다.

캐나다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캐나다의 옥수수 생산량을 1,487만 톤, 수출량을 220만 톤으로 제시했다.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량을 2,570만 톤, 수입량을 2,630만 톤으로 제시했다.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을 3억 124만 톤, 수입량을 800만 톤으로 제시했다.

2.3 대두

2.3.1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미국 농무부의 2025/26년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1월 전망은 12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이 각각 0.1%, 0.7% 늘었으나 수입량이 0.1% 줄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3% 늘었으나 수출량은 0.1% 줄었다. 기말재고량은 1.7% 증가했으며 재고비율도 20.4%로 12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2월 전망은 1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이 각각 0.2, 0.6% 늘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4% 늘었다. 기말재고량은 0.9% 증가했으며 재고비율도 20.5%로 1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표 8〉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2(A)	123.66	428.18	185.99	424.74	187.57	125.51	20.5
25/26.1(B)	123.40	425.68	186.04	423.14	187.57	124.41	20.4
25/26.12(C)	123.24	422.54	186.14	421.85	187.70	122.37	20.1
증감률(A/B)	0.2	0.6	0.0	0.4	0.0	0.9	
증감률(B/C)	0.1	0.7	-0.1	0.3	-0.1	1.7	

※ 재고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2.3.2 대두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미국

2025/26년 미국의 대두 수급 전망 변화를 살펴보면 1월 전망은 12월 전망 대비 공급 측면에서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이 각각 2.7%, 0.2% 늘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량이 0.6% 늘었으나 수출량은 3.7% 줄었다. 기말재고량은 20.7% 증가했으며 재고비율도 8.2%로 12월 전망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2월 전망은 1월 전망 대비 변동 없었다.

〈표 9〉 미국의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

구분	기초재고	생산	수입	소비	수출	기말재고	재고비율
25/26.2(A)	8.84	115.99	0.54	72.99	42.86	9.52	8.2
25/26.1(B)	8.84	115.99	0.54	72.99	42.86	9.52	8.2
25/26.12(C)	8.61	115.75	0.54	72.53	44.50	7.89	6.7
증감률(A/B)	0.0	0.0	0.0	0.0	0.0	0.0	
증감률(B/C)	2.7	0.2	0.0	0.6	-3.7	20.7	

※ 재고비율은 기말재고량을 수요량(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으로 나눈 값임

자료: USDA WASDE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미국의 대두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변화를 살펴보면 2월 10일 발표된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5/26년 파종 면적은 8,120만 에이커로 1월 전망과 같았으나 2025년 12월 전망 대비 10만 에이커 늘었다. 2024/25년 대비해서는 610만 에이커 줄었다. 생산 면적은 8,040만 에이커로 1월 전망과 같았으나 2025년 12월 전망 대비 10만 에이커 늘었다. 2023/24년 대비해서는 580만 에이

커 줄었다. 단위당 수확량의 경우 2월 전망에서는 에이커당 53.0부셸로 1월 및 2025년 12월 전망과 같았으며 2024/25년 대비 2.3부셸 증가했다.

〈표 10〉 미국의 대두 파종 면적, 생산 면적 및 단위당 수확량

구분	2024/25	2025/26		
		12월 전망	1월 전망	2월 전망
파종 면적(백만 에이커)	87.3	81.1	81.2	81.2
생산 면적(백만 에이커)	86.2	80.3	80.4	80.4
단위당 수확량(부셸/에이커)	50.7	53.0	53.0	53.0

자료: USDA WASDE

나. 남미

브라질 곡물공급공사인 CONAB은 2025/26년 브라질의 대두 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있으며 2월 12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생산량은 1억 7,79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8%, 2023/24년 대비 17.7% 증가했다. 수출량은 1억 1,219만 톤으로 2024/25년 대비 3.7%, 2023/24년 대비 13.5% 증가했다.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을 1억 8,000만 톤, 수출량을 1억 1,400만 톤으로 제시했다.

〈표 11〉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

구분	2023/24	2024/25	2025/26
			(단위: 백만 톤)
생산량	151.28	171.48	177.99
수출량	98.81	108.18	112.19

자료: CONAB, SAFRA 2025/26 5th Levantamento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을 4,850만 톤, 수출량을 825만 톤으로 제시했다.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 및 수출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파라과이의 대두 생산량을 1,150만 톤, 수출량을 770만 톤으로 제시했다.

다. 기타

중국의 대두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중국의 대두 생산량을 2,090만 톤, 수입량을 1억 1,200만 톤으로 제시했다.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 및 수입량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는 2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2025/26년 유럽연합의 대두 생산량을 279만 톤, 수입량을 1,400만 톤으로 제시했다.

3. 외부 시장과 곡물 선물가격 변동 요인

2026년 1월 1주 차(1/1~1/8)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1월 2일 최근 증시 약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인해 다우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유로 및 엔화 약세로 인해 달러 가치는 올랐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하락했다. 1월 5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뉴욕 증시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협으로 인해 유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과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반등했다. 1월 6일 CES 2026 개막과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로 인해 뉴욕 증시는 상승했으며 다우지수는 역대 처음으로 49,000선을 돌파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달러 가치도 오른 가운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세계 석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유가는 급락했다. 달러 강세, 유가 하락 등 외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다시 내려갔다. 1월 7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다우지수는 차익 실현으로 인해 하락했으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CES 2026에 주목하며 소폭 상승하는 등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 가치의 상승세는 이어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산업을 통제하면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시장에 대거 방출할 것이라고 밝혀 유가는 급락했다. 달러 강세, 유가 하락 등 외부 시장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됐다. 1월 8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차익실현으로 인해 하락했으나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상승하는 등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자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2거래일 연속 급락

했던 유가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대폭 상승했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급 측면의 약세 요인으로 인해 대두 가격은 하락했으며 옥수수 가격도 소폭 내려갔으나 밀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표 12〉 1월 1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1/2	1/5	1/6	1/7	1/8
DOW	48,382.39	48,977.18	49,462.08	48,996.08	49,266.11
Dollar Index	98.42	98.27	98.58	98.68	98.93
WTI(26.3월물)	57.12	58.08	56.94	55.90	57.64
옥수수(26.3월물)	437.50	444.50	444.00	446.75	446.00
밀(SRW,26.3월물)	506.50	512.50	510.50	518.00	518.00
대두(26.3월물)	1,045.75	1,062.00	1,056.25	1,067.00	1,061.2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1월 2주 차(1/9~1/15)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1월 9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급등하는 등 기술주 강세로 인해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으나 실업률은 낮아지는 등 고용지표가 혼조세를 나타내자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이란에서의 반정부 시위 격화로 인해 유가는 상승했다. 뉴욕 증시와 유가의 상승 등 외부 시장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요 곡물 시장은 조정을 받아 보합세를 나타냈다. 1월 12일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 건물 개보수에 대한 의회 위증 문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았다는 소식은 악재로 작용했으나 저가 매수세로 인해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 미 연준의 독립성 훼손 위협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내려갔으며 이란에서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미국의 개입 우려로 유가는 소폭 상승했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무부의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 발표 결과에 주목하며 주요 곡물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1월 13일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됐으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주들의 약세로 인해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엔화 약세로 인해 달러 가치는 상승했으며, 이란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짙어지자 유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 강세와 수급 측면의 약세 요인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하락했다. 1월 14일 미국 내 일부 은행들의 저조한 분기 실적과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개입 압박 소식에 뉴욕 증시는 하락하고 유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약간 내려갔다. 달러 가치 하락, 유가 상승 등 외부 시장의 영향과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소폭 반등

했다. 1월 15일 AI 및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 뉴욕 증시는 상승했으며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의 경제지표에 달러 가치도 올랐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자 유가는 급락했다. 유가 급락에 주목해 옥수수 가격은 약세를 나타냈으며 달러 강세로 인해 밀 가격도 내려갔다.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대두 가격은 상승했다.

〈표 13〉 1월 2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1/9	1/12	1/13	1/14	1/15
DOW	49,504.07	49,590.20	49,191.99	49,149.63	49,442.44
Dollar Index	99.13	98.86	99.13	99.06	99.32
WTI(26.3월물)	58.94	59.32	60.93	61.88	59.08
옥수수(26.3월물)	445.75	421.50	419.75	422.00	420.25
밀(SRW,26.3월물)	517.25	511.25	510.50	512.50	510.50
대두(26.3월물)	1,062.50	1,049.00	1,038.75	1,042.50	1,053.00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1월 3주 차(1/16~1/23)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1월 16일 특별한 경제지표는 나오지 않았으며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아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유가는 반발 매수세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주요 곡물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1월 20일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관세 전쟁이 벌어지자 뉴욕 증시는 급락하고 달러 가치도 내려갔다. 중국의 양호한 경제성장률과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에 유가는 상승했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위축되고 안전자산으로 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요 곡물 가격은 하락했다. 1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로 유럽연합 8개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회하자 뉴욕 증시는 급반등했으며 달러 가치도 오르는 장이 형성됐다. 전력 공급 문제로 카자흐스탄의 유전 두 곳이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에 유가는 소폭 상승했다. 대내외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시장은 거듭 조정을 받아 약세장을 유지했으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밀 가격의 하락세는 이어졌다. 유가 상승과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대두 가격은 상승했다. 1월 22일 미국과 유럽연합의 충돌이 완화되자 투자 심리가 살아나 뉴욕 증시는 오르고 달러 가치는 내려갔다.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3자 회담 개최 소식에 유가는 하락했다. 거시경제 지표는 엇갈린 가운데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소폭 반등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 대두 가격은 약보합세를 나타냈으나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 밀 시장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다. 1월 23일 차익실현으로 인해 다우지수는 하락했으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상승하는 등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엔화 강세로 인해 달러 가치는 하락했으며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 임박 소식에 유가는 상승했다. 대내외 강세 요인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으며 옥수수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표 14〉 1월 3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1/16	1/20	1/21	1/22	1/23
DOW	49,359.33	48,488.59	49,077.23	49,384.01	49,098.71
Dollar Index	99.39	98.64	98.76	98.36	97.60
WTI(26.3월물)	59.34	60.36	60.62	59.36	61.07
옥수수(26.3월물)	424.75	423.75	421.75	424.00	430.50
밀(SRW,26.3월물)	518.00	510.25	507.75	515.50	529.50
대두(26.3월물)	1,057.75	1,053.00	1,064.50	1,064.00	1,067.7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1월 4주 차(1/24~1/31)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1월 26일 미국 미네소타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민 총격 사살에 대한 분노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자 민주당이 연방 예산안 의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보였으나 뉴욕 증시는 동요하지 않았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다. 일본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으로 인해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자 달러 가치는 하락했으며 시장 관망세로 유가도 약세를 나타냈다. 유가 하락과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옥수수, 대두 가격은 하락했으며, 수급 측면의 약세 요인으로 인해 밀 가격도 내려갔다. 1월 27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나스닥지수는 상승했으나 내년 메디케어 정부 지급액 동결 이슈로 다우지수는 하락하는 등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그린란드 병합 문제,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과잉 단속 등 미국에서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 현상이 심해져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내려갔다. 미국 겨울 폭풍과 극한 한파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유가는 급등했다. 대내외 강세 요인으로 인해 밀, 대두 가격은 상승했으나 옥수수 시장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 변동성을 줄였으며 소폭 하락하는 장이 형성됐다. 1월 28일 3회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던 미 연준이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 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시켜 인하 속도를 조절하자 다우 및 나스닥지수는 약간 상승

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엔화 가치 상승을 위해 미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달리는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중동 항모전단 파견과 이란에 대한 공습 가능성이 짙어지자 유가의 상승세는 이어졌다. 유가 강세로 인해 옥수수, 대두 가격은 상승했으며 미국 산지 한파로 인해 밀 가격도 강세를 나타냈다. 1월 29일 마이크로소프트의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올해 1분기 영업 이익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자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나스닥지수는 하락했으나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잉 단속과 총격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이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섰다운 우려가 달러 가치를 약세로 이끌었다. 이란 근해에 미국의 군사 자산이 집결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공습 가능성이 계속해서 유가를 끌어올렸다. 달러 가치 하락, 유가 상승 등 외부 시장의 영향을 받아 옥수수, 밀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대두 가격은 조정을 받아 하락했다.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매파적 성향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는 소식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의 12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로 인해 뉴욕 증시는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미군의 이란 공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유가는 하락했다. 외부 시장의 영향을 받아 주요 곡물 가격은 하락했다.

〈표 15〉 1월 4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1/26	1/27	1/28	1/29	1/30
DOW	49,412.40	49,003.41	49,015.60	49,071.56	48,892.47
Dollar Index	97.04	96.22	96.45	96.28	96.99
WTI(26.3월물)	60.63	62.39	63.21	65.42	65.21
옥수수(26.3월물)	428.25	426.50	430.00	430.75	428.25
밀(SRW,26.3월물)	522.50	523.25	536.00	541.50	538.00
대두(26.3월물)	1,061.75	1,067.25	1,075.00	1,072.25	1,064.2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2월 1주 차(2/1~2/7)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2월 2일 특별한 뉴스는 없는 가운데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케빈 워시 전 미 연준 이사의 연준 의장 지명 소식 여파로 달리는 강세를 이어갔다. 이란이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히자 유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 강세, 유가 하락 등 외부 시장의 영향과 수급 측면의 약세 요인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하락했다. 2월 3일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 지수들이 차익실현으로 대거 하락함에 따라 나스닥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뉴욕 증시는 일제히 내려가는 장이 형성됐다. 위안화 강세 및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내려갔다. 중동에 파견된 미 항모전단에 이란이 드론을 접근시키자 이를 격추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자 유가는 상승했다.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유가가 상승하는 등 외부 시장의 영향과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올랐다. 2월 4일 애플과 MS를 제외한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나스닥지수는 하락했으나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상승하는 등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이란을 둘러싼 중동에서의 전운이 고조되어 유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유가 강세로 인해 옥수수, 대두 가격은 상승했으나 밀 가격은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월 5일 비트코인 가격 폭락과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로 인해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리사 쿡 미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가능성에 주목해 유가는 하락했다. 유가 하락, 달러 강세 등 외부 시장과 수급 측면의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두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옥수수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다. 기상 악화 우려로 밀 가격도 강세를 나타냈다. 2월 6일 특별한 뉴스는 없는 가운데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뉴욕 증시는 급등했으며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0,000선을 돌파했다. 뉴욕 증시 급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둔화로 달러 가치는 내려갔다.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 협상에 들어갔으나 특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 시장 관망세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변동성을 줄였으며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해 옥수수, 밀 가격은 하락했으나 외부 시장의 영향을 받아 대두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표 16〉 2월 1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2/2	2/3	2/4	2/5	2/6
DOW	49,407.66	49,240.99	49,501.30	48,908.72	50,115.67
Dollar Index	97.63	97.44	97.62	97.82	97.63
WTI(26.3월물)	62.14	63.21	64.33	63.29	63.55
옥수수(26.3월물)	425.75	428.50	429.50	435.00	430.25
밀(SRW,26.3월물)	527.75	528.75	526.75	535.25	529.75
대두(26.3월물)	1,060.25	1,065.75	1,092.25	1,112.25	1,115.25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2월 2주 차(2/8~2/15)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2월 9일 소프트 웨어 관련주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중국 당국이 자국 금융 기관들에게 미국 국제 보유량을 줄일 것을 지시해 달러 가치는 내려갔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에서 이란의 우리농 농축 관련 타협 가능성에 유가는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 위협으로 인해 상승 마감했다. 외부 시장의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포지션 조정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2월 10일 미국의 12월 소매판매 둔화 소식에 나스닥지수는 하락했으나 다우지수는 상승하는 등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달러 가치의 하락세는 다소 제한을 받았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감 속에도 유가는 조정을 받아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다. 외부 시장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옥수수 가격은 보합으로 장을 끝마쳤다.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대두 가격은 상승했으나 달러 가치 상승과 글로벌 공급 확대 전망으로 인해 밀 가격은 약간 하락했다. 2월 11일 미국의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뛰어넘어 달러 가치는 상승했으나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아 하락 마감했다. 미국이 2차 항모전단을 이란으로 출격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유가는 상승했다.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밀, 대두 가격은 상승했으나 옥수수 가격은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고 약세를 나타냈다. 2월 12일 AI가 산업 전반을 잠식할 것이란 공포로 인해 뉴욕 증시는 급락했으며 달러 가치는 소폭 상승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 시한에 여유를 두는 등의 조치로 인해 유가는 급락했다.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2월 13일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달러 가치는 약간 내려가고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AI 공포 우려로 소폭 하락했다. 유가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 시장 관망세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소폭 상승했으며 최근 가격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인해 밀, 대두 가격은 하락했다.

〈표 17〉 2월 2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2/9	2/10	2/11	2/12	2/13
DOW	50,135.87	50,188.14	50,121.40	49,451.98	49,500.93
Dollar Index	96.82	96.80	96.83	96.93	96.92
WTI(26.3월물)	64.36	63.96	64.63	62.84	62.89
옥수수(26.3월물)	428.75	428.75	427.50	431.25	431.75
밀(SRW,26.3월물)	528.75	528.25	537.25	552.50	548.75
대두(26.3월물)	1,110.75	1,122.50	1,124.00	1,137.25	1,133.00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2월 3주 차(2/16~2/22) 외부 시장과 곡물 가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2월 17일 AI로 인한 산업 붕괴론에 급격한 하락 흐름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상승했다. 유로화 약세와 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에서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가 나왔다는 소식에 유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유가 하락, 달러 강세 등 외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옥수수, 밀 가격은 하락했으나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대두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2월 1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1월 의사록이 공개됐으며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소식에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뉴욕 증시는 장중 상승분을 대거 반납했으나 장 막판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 상승 마감했다.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핵심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유가는 폭등했다. 유가 급등,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옥수수, 밀 가격은 상승했으나 시장 관망세로 인해 대두 가격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2월 19일 미국이 조만간 이란을 공격할 것이란 우려가 시장을 강타해 뉴욕 증시는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위험과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유가는 상승했다. 유가 강세와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밀, 대두 가격은 상승했으나 시장 관망세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약세를 나타냈다.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한 것으로 결론을 짓자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달러 가치는 내려갔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은 제한적일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유가는 약보합세로 장을 끝마쳤다. 차익실현으로 인해 대두 가격은 하락했으나 수급 측면의 강세 요인으로 인해 밀 가격이 급등했으며 옥수수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표 18〉 2월 3주 차 다우지수, 달러 인덱스, 원유 WTI, CME 곡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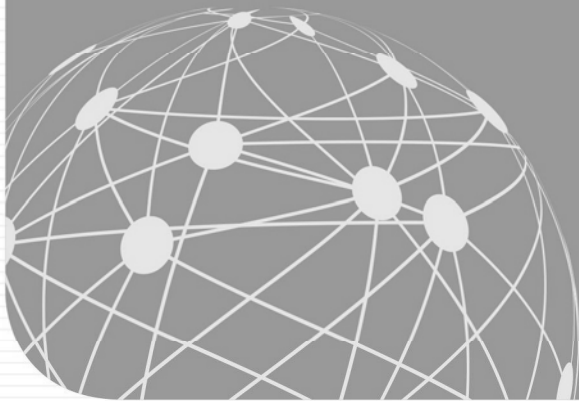
(단위 : 포인트, 달러/배럴, 센트/부셸)

품목	2/17	2/18	2/19	2/20
DOW	49,533.19	49,662.66	49,395.16	49,625.97
Dollar Index	97.15	97.70	97.93	97.80
WTI(26.3월물)	62.33	65.19	66.43	66.39
옥수수(26.3월물)	426.25	427.00	425.75	427.50
밀(SRW,26.3월물)	537.75	547.00	559.50	573.50
대두(26.3월물)	1,134.00	1,133.50	1,141.00	1,137.50

자료: MarketWatch, Barchart, CME

Part 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Issue Box〉 71



Part 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Issue Box

<Issue Box>

호주의 농업·곡물 생산 동향과 바이오 시큐리티 정책¹⁾

허덕*

1. 호주의 농업 현황²⁾

1.1. 호주의 농업 생산

1.1.1. 농업 생산 총 가치 상승

흔히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총생산액 중 농업 부분의 생산액 비중 즉, 국내총생산(GDP, Gross National Product³⁾)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하지만 호주의 농업 GDP 비중은 2023/24년도 총 GDP의 2.4%에 불과하다. 고용측면에서도 농촌 고용의 5.9%, 국가 고용의 2.2%에 불과한 1만 5,600명으로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호주 농업의 비중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국토면적 중 농업용 토지

* 건국대학교 상허생명과학대학 식품유통공학과 교수(huhduk@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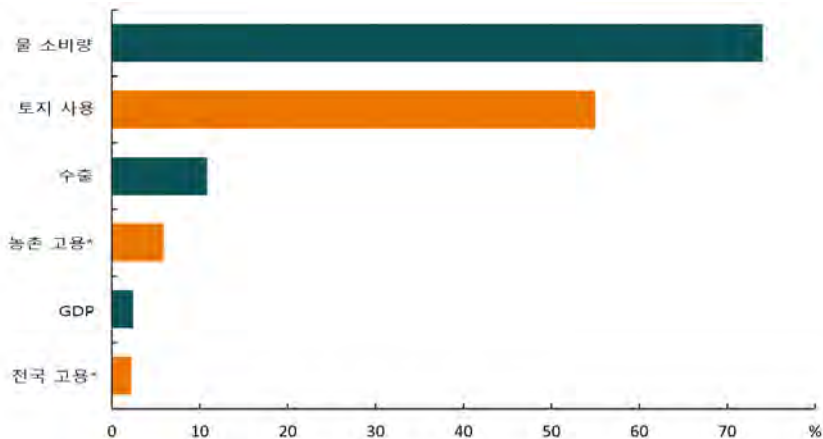
- 1) 이 글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清浄国』を守る国家戦略: 豪州のバイオセキュリティ政策とその進化(청정국을 지키는 국가전략: 호주의 바이오 시큐리티 정책과 그 진화)」, 『畜産の情報』海外情報 豪州, 2025년 10月号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3933.html)와 ABARES, 「Australia crop report」, 2025년 12월, DAFF(호주 농업부), 「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 December quarter 2025, Research by the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Volume 15, Issue 4, December 2025. (https://daff.ent.sirsidynix.net.au/client/en_AU/search/asset/1037663/0/_AgCommodities202512_v1.0.0.pdf), DAFF, 「ABARES Insights Snapshot of Australian Agriculture 2025」, ISSUE 1: February 2025 (https://daff.ent.sirsidynix.net.au/client/en_AU/search/asset/1036762/0) 등 다양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필자의 의도에 따라 구성하고 수정·보완을 통해 작성되었다.
- 2) 이 부분은 DAFF, 「ABARES Insights Snapshot of Australian Agriculture 2025」, ISSUE 1: February 2025의 내용을 필자의 논리 전개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 3)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이 값은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과 동일하다. 관련하여,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은 '한 나라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GDP가 영토 중심의 개념인 반면, GNP는 생산 주체가 해당 국가의 국민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다.(출처: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563>)

사용 비율이나 물 소비량 등의 비율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1>은 호주 전체 생산에서 호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호주에서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4억 2,600만 ha로 호주 국토 전체의 55%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2023년 12월 목재 생산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또한, 2021/22년도 농업에서 사용된 물 사용량은 9,981기가 리터⁴⁾로 전체 물 사용량의 74%에 달한다.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은 2023/24년도 715억 호주 달러(68조 2,017억 원)로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이다.

호주에서 각 품목 산업의 농업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기후, 물 가용성, 토양 유형 및 시장과의 근접성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 가축 방목은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 널리 이루어지며, 작물 재배와 원예는 일반적으로 해안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2).

<그림 1> 호주 농업이 국가 경제 및 환경 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 1) ABARES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의 물 추출 대신 물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하였음. 물 추출은 생산자가 수원에서 직접 채취한 것임(예: 관개기가 강에서 지표수를 이동시키거나 대수층에서 지하수를 이동시키는 방식). 물 소비량은 물 추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원(예: 머레이 관개 및 기타 관개 인프라 운영자)의 물 사용량도 포함함.

2) 농업, 어업 및 임업을 포함하며, 그 외에는 농업만을 의미함.

출처: ABARES (2024b⁵⁾); ABS (2023b⁶⁾, 2024b⁷⁾, 2024c⁸⁾, 2024d⁹⁾, 2025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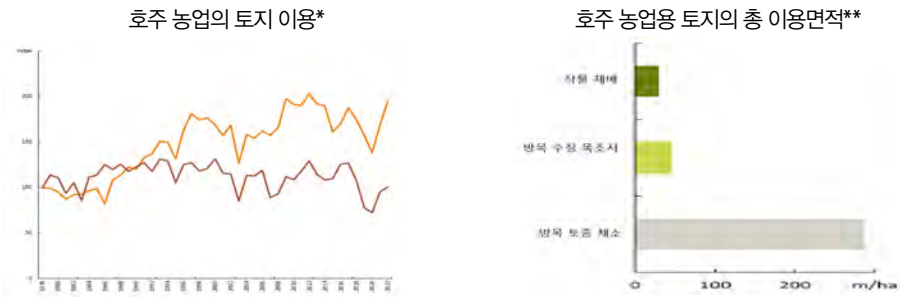
4) 1기가 리터는 1,000억 리터이므로 998조 1천억 리터에 해당한다.

5) ABARES 2024b, *Catchment Scale Land Use of Australia – Update December 2023 version 2*,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DOI:(<https://doi.org/10.25814/2w2p-ph98>.)

6) ABS 2023b, *Water Account,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https://www.abs.gov.au/statistics/environment/environmental-accounts/water-account-australia/latest-release>)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은 호주 토지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때문에 토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는 농업인과 일반 대중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호주 농부들에게는 표준이 되는 지속가능한 토지에 대한 관행이 많다(Coelli 2021¹¹). 예를 들면, 대부분의 광범위한 경작지는 기초적인(농장의 85%) 상태를 유지하고, 경작을 최소화하며(농장의 68%), 살충제 또는 비료 사용을 최적화하면서(농장의 65%) 그 의존도를 줄인다. 또한, 대부분의 축산농장은 기초적인 조직방목(cell), 자연방목(strip) 또는 순환방목(rotational grazing)과 같은 다양한 방목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농장의 61%), 장기적인 지피(地被, groundcover¹²)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농장의 61%).

〈그림 2〉 호주 농업 생산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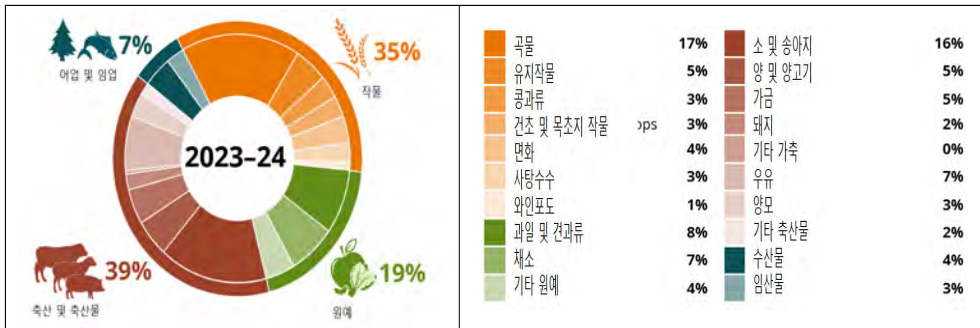
주: 1) * 호주 농지 이용, ** 호주 농경지 총 이용면적
 2) *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장됨. ** 원에는 농경지 사용 면적이 100만 ha 미만이므로 그다지 크지 않음.
 자료: 밀-양 지역: FAO, Australian Agricultural and Grazing Industries Survey, 2016¹³, ABARES; Australian Government, Catchment scale land use of Australia – update December¹⁴, ABARES; ABS Agricultural Commodities, Australia, 2020-21(cat 7121)¹⁵

- 7) ABS 2023b, *Water Account,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https://www.abs.gov.au/statistics/environment/environmental-accounts/water-account-australia/latest-release>)
- 8) ABS 2024c,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international-trade/balance-payments-and-international-investment-position-australia/latest-release>)
- 9) ABS 2024d, *Labour Force, Australia, Detailed,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https://www.abs.gov.au/statistics/labour/employment-and-unemployment/labour-force-australia-detailed/latest-release>)
- 10) ABS 2025,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international-trade/international-trade-goods/latest-release>)
- 11) Coelli, R 2021,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Drought Resilience – survey of farm practices*, ABARES research report 21.12, Canberra, DOI: (<https://doi.org/10.25814/99n0-7q92>.)
- 12) 지표를 낮게 덮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숲에 있는 입목 이외의 모든 식물로 조릿대류, 잔디류, 클로버 따위의 초본이나 이끼류가 있다. 맨땅의 녹화나 정원의 바닥 풀로 심는다.
- 13) FAO, Australian Agricultural and Grazing Industries Survey, 2016 (https://www.fao.org/fileadmin/templates/ess/ess_test_folder/World_Census_Agriculture/WCA_2020/WCA_2020_new_doc/AUS_REP_ENG_2015_2016.pdf)
- 14) Australian Government, *Catchment scale land use of Australia-Update December 2020* (<https://www.data.gov.au/data/dataset/clum-dec2020>)

1.1.2. 농업 생산 증가

호주는 다양한 농업, 어업 및 임업 부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작물과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그림 3).

〈그림 3〉 2023/24년도 품목별 농림어업 생산액



참고: 농업, 어업 및 임업 생산액에 대한 원자재의 기여도는 반올림으로 인해 100이 아닐 수도 있음. 기타 가축들은 생산액에 0.4% 기여함. 총액은 농장문전(즉, 가공전)에서 측정됨.
출처: ABARES (2024a¹⁶)

호주는 2020/21년도부터 2022/23년도까지 3년 연속으로 매우 유리한 기후 조건과 농산물 전반의 평균적인 원자재 가격 강세에 힘입어 기록적인 생산액을 달성하였다. 2023/24년도에는 건조한 기후 조건과 낮은 작물 가격으로 인하여 농업 생산액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2024/25년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잠정 추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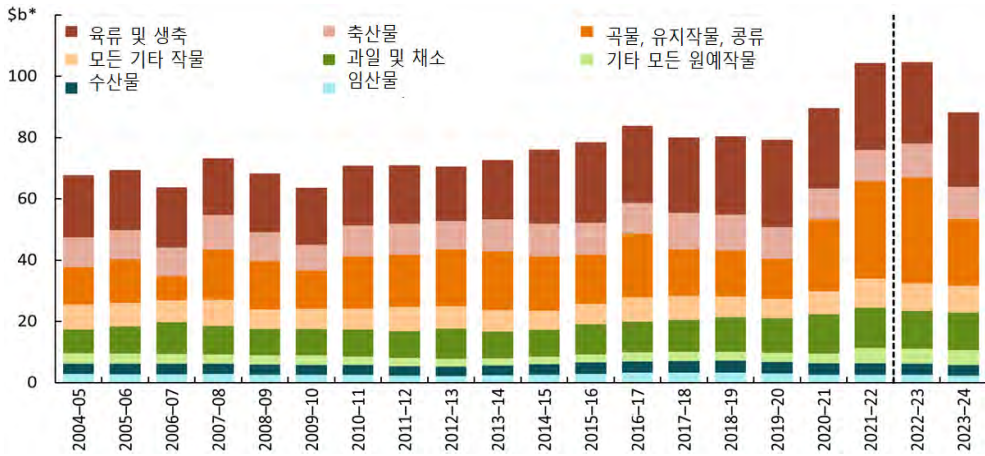
농업 총생산액은 2004/05년도 615억 호주 달러(56조 6,630억 원)에서 2023/24년도 824억 호주 달러(78조 5,989억 원)로, 실질 기준으로 지난 20년 동안 34% 증가하였다¹⁷. 어업과 임업을 포함하면, 농업, 어업 및 임업 총생산액은 2004/05년도 약 677억 호주 달러(64조 5,770억 원)에서 2023/24년도 883억 호주 달러(79조 4,574억 원)로 실질 기준으로 30% 증가하였다(그림 4 참조).

지난 20년간 산출물 가치의 성장 동력은 부문별로 다르다. 경종부분 생산자들은 새

15) ABS, Agricultural Commodities, Australia (<https://www.abs.gov.au/statistics/industry/agriculture/agricultural-commodities-australia/2020-21>)
16) ABARES 2024a, *Agricultural Commodities: December quarter 2024*,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DOI: (<https://doi.org/10.25814/82b5-tg66>)
17) 2023/24년도 호주 달러로 표시한 것이다.

로운 기술과 관리 관행을 채택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강력한 물량 증가를 이루었다. 축산부분은 신흥국의 단백질 수요 증가와 미국의 가뭄, 육류 수입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은 질병 발생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반영되어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점이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림 4〉 호주 농업, 어업 및 임업 생산액 변동, 2004-24



주: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추정치와 예측을 나타냄. 총액은 처리 전에 농장 문전에서 측정됨. *2023/24년도 호주 달러.

출처: ABARES(2024a); ABS(2023a¹⁸, 2024a¹⁹, 2025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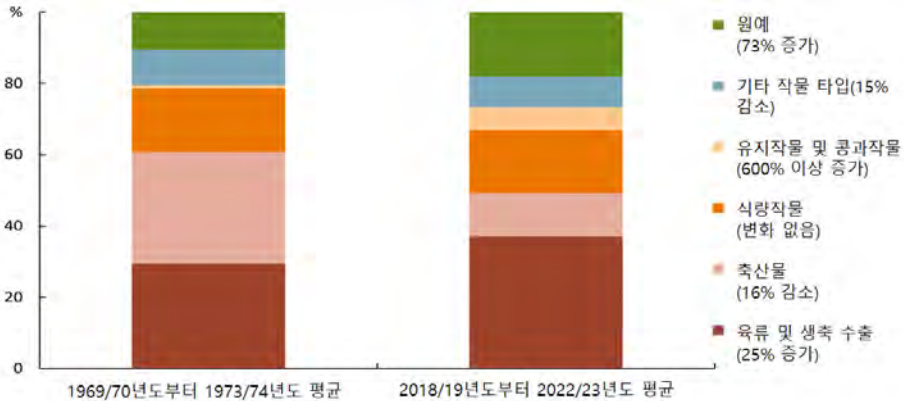
호주 농업의 변화는 생산량의 구성적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0년 동안 원예산물, 육류, 유지종자 및 콩류의 생산량은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질 정도로 증가하였다. 반면, 양모와 우유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5).

18) ABS 2023a, *Value of Agricultural Commodities Produced,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https://www.abs.gov.au/statistics/industry/agriculture/value-agricultural-commodities-produced-australia/latest-release>)

19) ABS 2024a, *Australian Agriculture: Livestock,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https://www.abs.gov.au/statistics/industry/agriculture/australian-agriculture-livestock/latest-release>)

20) ABS 2025,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international-trade/international-trade-goods/latest-release>)

〈그림 5〉 부문별 농업 생산량 이동



주: 1) 1969/70년도부터 2022/23년도까지 총 농업 생산량 대비 상품군 기여도.
 2) 체인 볼륨 측정 기준. 비가산성이 카테고리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5년 범위는 1971/72년도와 2020/21년도 기준 연도를 사용함.
 3) 다른 작물 유형에는 와인포도, 사탕수수, 면화 및 사료작물이 포함됨.
 출처: Greenville & Cameron (2022)²¹⁾

1.1.3. 농장 수 감소, 전문화 진전

2022년 6월 기준, 호주의 농업경영 추정 산출가치(Estimated Value of Agricultural Operations, EVAO²²⁾)가 4만 호주 달러(3,815만 4,800원) 이상인 농업 사업체가 8만 7,800개나 있었다(ABS 2021-22²³⁾). 2022/23년도에는 대규모 농장과 낙농장이 약 5만 6,500개의 농장 사업체였으며, 이 중 62%는 축산농장, 30%는 경종농장, 8%는 낙농장으로 분류되었다(Ashton, Welsford-Brink & Ryder, 2024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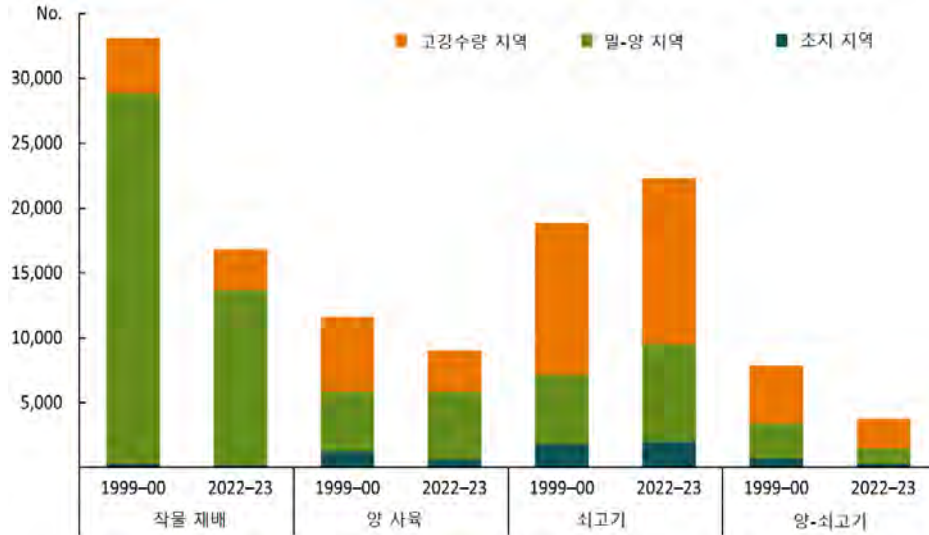
21) Greenville, J and Cameron, A 2022 ABARES Insights: Where to next for Australian agriculture? ABARES Insights, Canberra, DOI: (<https://doi.org/10.25814/vb1b-xr37>).

22) EVAO는 농업 사업체의 농업 활동 규모를 추정하는 지표로, 특정 연도의 농산물 판매액이 아니라 농업 활동의 규모나 크기를 나타내는 상대적 수치이다. EVAO의 주요 특징으로 1) 농업 활동의 크기 측정이다. 농가의 농업 활동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예: 대형, 중형, 소형)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2) 계산 방식이다. 최근 3년간의 농축산물 평균 거래가를 적용하여, 가축 판매액과 사육 두수, 작물 면적과 생산량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3) 수익(매출)과는 구분된다. EVAO는 개별 농가의 수익(매출)이 아니라, 농업 활동의 범위와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EVAO는 농업 통계 조사에서 농업 사업체의 범위 선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가격 변동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3년 평균 가격을 사용한다.

23) ABS 2021-22. *Agricultural Commodities,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https://www.abs.gov.au/statistics/industry/agriculture/agricultural-commodities-australia/2021-22>).

24) Ashton, D, Welsford-Brink, Q and Ryder, J 2024a, *Financial performance of cropping farms: 2021-22 to 2023-24*, ABARES, Canberra, July, DOI: (<https://doi.org/10.25814/baj6-dr22>. CC BY 4.0.)

〈그림 6〉 호주의 1999/2000년도 및 2022/23년도 구역별 대규모 농장 수 변동



자료: ABARES Australian Agricultural and Grazing Industries Survey.

1999/2000년도와 2022/23년도 사이에 대규모 농장과 낙농장 수는 약 33% 감소하였다. 농장 수의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밀-양(wheat-sheep) 지역으로, 농장이 대규모 기업으로 통합되는 과정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들 농장 중 많은 곳이 다양한 곡물, 유지종자 및 조곡(粗穀, coarse grains)을 생산하는 전문화된 작물 재배 기업으로 전환되었다.

1999/2000년도와 2022/23년도 사이 예외적으로 전문 육우농장은 증가하였다. 양모 생산과 낙농업에서 벗어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전문 육우농장이 증가한 것이다. 밀-양 지역에서는 전문 양 사육 농장 수가 약간 증가하였지만, 강수량이 많은 지역과 목축 지역에서는 감소하였다.

1.1.4. 생산성 둔화

생산성은 노동력, 토지, 자본, 자재 및 서비스와 같은 투입물이 밀, 가축, 양모와 같은 산출물을 생성하는 데 얼마나 잘 사용되었는지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경제지표이다. 생산성은 호주 농업 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자 경제적 안정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생산성은 산출물이나 사용된 투입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호주 농업부문은 지난 50년이라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01년도 이후 이러한 성장세는 구조 조정과 노동 절약적인 기계화 도입이 본격화되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달성된 생산성 향상에 비해서는 둔화되었다 (Chancellor and Boulton 2024²⁵).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대규모 농장의 생산성은 연간 2.1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중요한 정책 개혁, 농장 통합, 농촌연구개발공사(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s, RDC) 설립, 기계 및 신기술 도입에 의해 촉진되었다. 보조금 및 기타 지원 메커니즘이 제거되면서 생산성이 낮은 농장은 더 이상 경쟁할 수 없게 되었고, 많은 농장이 산업에서 퇴출되었다.

이러한 농장의 매각으로 토지 자원을 확보하여 더 생산적인 농장의 확장을 촉진하여 규모 증가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농장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기계가 널리 채택되었다. 이는 농장이 비례적으로 적은 투입물(예: 노동력)을 사용하여 대량의 생산량(예: 밀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밀 기술은 생산성 성장을 더욱 촉진하여 화학물질, 비료, 종자 및 기타 중간 투입물을 최소한의 폐기물로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01년도부터 2022/23년도까지 호주의 대규모 농장의 생산성 성장이 둔화되고,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0.72%였다. 이러한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농장의 생산성 연평균 성장률은 시장 부문의 성장률보다는 높았다 (그림 7).

25) Chancellor, W. & Boulton, C. 2024, Australia's farm productivity slowdown – why it matters, and what it means for policy makers, ABARES Insights, Canberra, July. CC BY 4.0 DOI: (<https://doi.org/10.25814/dcvj-7934>)

〈그림 7〉 대규모 농장 생산성 성장 추세



주: 1) 회색 음영 부분은 생산성 둔화 기간을 나타냄.
 2) 1977-78년부터 1999-00년까지의 모든 대규모 농장. 2000-01년부터 2022-23년까지의 모든 대규모 농장.
 3) 시장 부문.
 자료: Chancellor and Boulton(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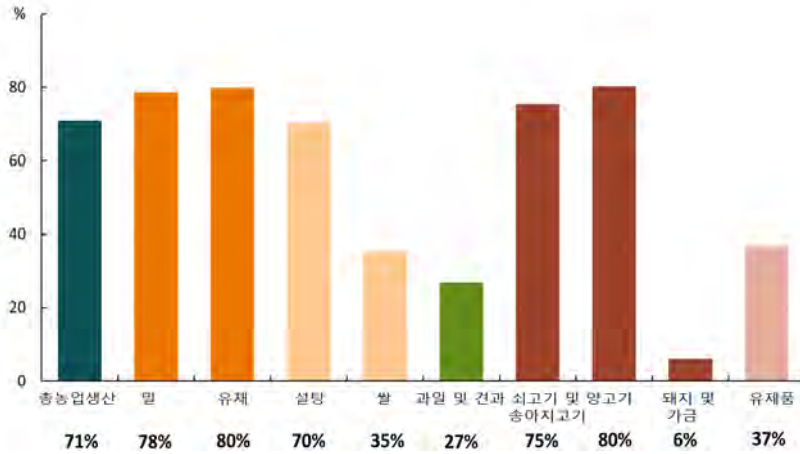
생산성은 구조적 변화가 방해받지 않고 시장 실패가 수정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에서 증가한다. 또한, 새로운 농업 방법과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농업 R&D에 대한 투자의 혜택도 누리고 있다. 2023/24년도 호주의 총 농업 R&D 자금은 29억 8천만 호주 달러(2조 8,425억 3,620만 원)로 2022/23년도(ABARES 2024e²⁶)의 29억 1천만 호주 달러(2조 7,757억 6,170만 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미세 조정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지속하게 되면, 생산성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 호주의 농산물 수출 – 농업 생산량의 약 70%를 수출

2023/24년도까지 과거 3년간 호주는 전체 농림어업 생산량의 약 70%를 수출하였다. 각 산업의 수출 방향은 상품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규모 부문인 밀과 쇠고기, 낙농, 원예, 돼지 및 가금류보다 수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그림 8).

26) ABARES 2024e,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in Australia – 2023-24 update*, viewed on 23/01/2025 from (<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productivity/agricultural-research-and-development-investment-in-australia>)

〈그림 8〉 수출 지향적인 호주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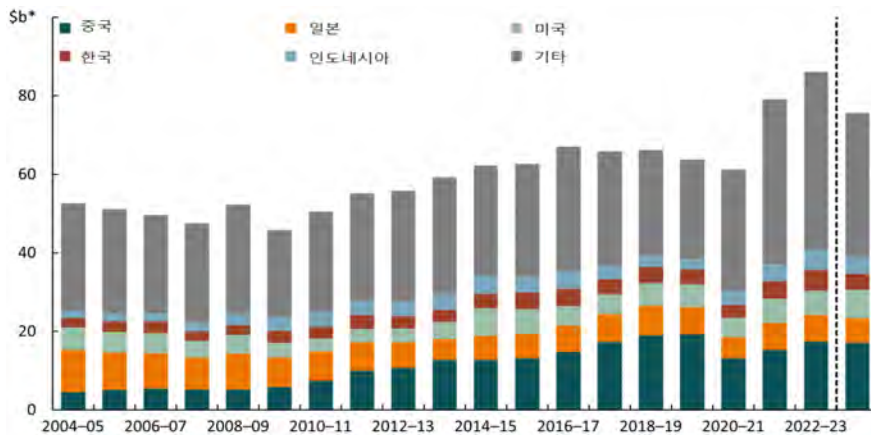


주: 부문별 수출 농업 생산 비중, 3년 평균, 2021-22~2023-24.

자료: ABARES, Cameron (2017)²⁷에 설명된 방법을 따름.

2004/05년도 이후 실질적으로 농업, 어업 및 임업 수출액은 458억 호주 달러(43조 6,872.5억 원)에서 861억 호주 달러(82조 1,282.1억 원) 사이에서 변동하였다(그림 9).

〈그림 9〉 호주 농업, 어업 및 임업 수출 대상국(중국이 단일 최대 국가)



주: 1) 점선 오른쪽의 데이터는 추정치를 나타냄.

2) 수출액은 국경에서 측정되므로 농장 문전 너머의 일부 상품(예: 포도주, 우유 치즈)의 가공이 포함됨. 때문에 생산액과 수출액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음.

* 2023/24년도 호주 달러.

출처: ABARES; ABS (2025)²⁸

27) Cameron, A 2017, 'Share of agricultural production exported', in Agricultural commodities: ABARES 2017, Agricultural commodities: December quarter 2017.

2023/24년도 호주의 농림어업 수출은 756억 달러(72조 1,125.7억 원)로 평가되었다. 곡물, 유지종자 및 맥류는 2004/05년도와 2023/24년도 사이에 실질 기준으로 연평균 9%씩 성장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 부문이었다. 다음으로 기타 원예(과일 및 채소 제외)(4%), 육류 및 생축(4%)이 차지하였다.

1.3. 호주 농업의 주요 이슈

1.3.1. 바이오 시큐리티와 호주 농업

호주의 바이오 시큐리티 시스템은 외래 해충 및 질병 발생 위험과 이미 발생한 해충 및 질병의 영향을 줄여준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해충과 질병은 사람, 동물, 식물, 환경에 더 많은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세계 주요 해충 및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는 농업 산업에 상당한 무역 우위를 제공하며, 귀중한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호주의 바이오 시큐리티 시스템의 2020년 기준으로 순현재가치는 3,140억 호주 달러(299조 5,152억 원)로 추정되었다(Dodd et al. 2020²⁹⁾). 농업은 시스템 운영의 가장 큰 수혜자였으며, 50년 동안 약 2,100억 호주 달러(200조 3,127억 원)의 피해를 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시스템 지출액 105억 호주 달러(10조 156억 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농업의 바이오 시큐리티 문제는 계속 진화되어 왔다. 원예작물 수분(受粉, pollination)에 필수적인 유럽 꿀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생충인 바로아 진드기(Varroa mite, 바로아응애)는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계속 확산되었고, 빅토리아주에서도 처음으로 발견되었다(ABARES 2024d³⁰⁾).

현재 박멸 중에 있는 토마토 브라운 루고스 과일 바이러스(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amovirus fructurugosum, ToBRFV) 발생으로 인하여 원예산업도 위협 받고 있다(ABARES 2024a³¹⁾).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 조류독감) 발생은 빅토리아

28) ABS 2025,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international-trade/international-trade-goods/latest-release>)

29) Dodd, A., Stoeckl, N., Baumgartner, J., & Kompas, T. (2020). Key result summary: Valuing Australia's biosecurity system. *Centre of Excellence for Biosecurity Risk Analysis (CEBRA) Report*.

(https://cebra.unimelb.edu.au/_data/assets/pdf_file/0020/3535013/CEBRA_Value_Docs_KeyResultSummary_v0.6_Endorsed.pdf)

30) ABARES 2024d, *Agricultural Commodities: September quarter 2024*,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DOI:(<https://doi.org/10.25814/ffgs-mx60>.)

아, 뉴사우스웨일스,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 호주 수도지역)에서 발생하여 계란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또 다른 매우 치명적인 변종의 출현과 함께, 대비 활동에 대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는 구제역이나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³²)과 같은 심각한 동물 질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업계 및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예방 및 대비 조치를 개발하고 강화하고 있다(ABARES 2024c³³).

1.3.2. 호주 농장에서 고용의 중요성과 연중 다양성

노동력은 호주 농업에 중요한 투입 요소이다. 호주 통계청(ABS)의 최신 노동력 조사(ABS 2024e³⁴)에 따르면, 호주 농업부문은 2024년 11월까지 4분기 동안 평균 27만 4,900명을 고용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이지만, 10년 전보다는 1.8% 감소한 수치이다. 양, 육우 및 곡물 농업이 산업별로 가장 큰 고용주이며, 과일 및 견과(tree nut³⁵) 재배, 양묘 및 화훼 생산이 그 뒤를 잇고 있다(그림 10).

31) ABARES 2024a, *Agricultural Commodities: December quarter 2024*,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DOI: (<https://doi.org/10.25814/82b5-tg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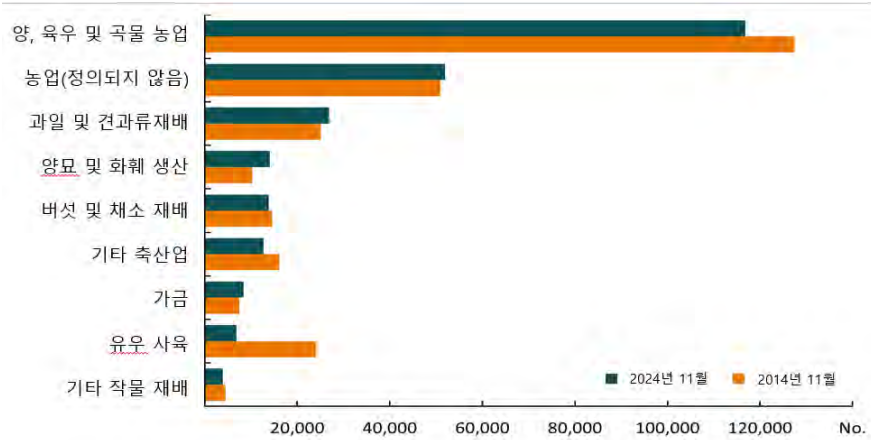
32) 소의 전신에 지름 2~5cm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나며, 추가로 유량 감소, 비쩍 마름, 가축 손상, 유산, 불임, 고열, 침흘림, 눈과 코의 분비물 증가 등의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감염 경로는 모기 등의 흡혈 곤충,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사료, 직접 접촉, 오염된 주사기 사용 등에 의해 소나 물소와 같은 소속에 속하는 동물들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지만, 전염력이 구제역처럼 매우 강해 국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었다가, 2025년 제2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완화되었다. 럼피(Lumpy)는 혹이라는 뜻으로, Lumpy Skin 병이라는 이름은 피부에 단단한 혹이 난다는 뜻이다.(출처: 농림축산식품부)

33) ABARES 2024c, *Agricultural Commodities: June quarter 2024*,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DOI:(<https://doi.org/10.25814/g0cz-s307>)

34) ABARES 2024e,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in Australia - 2023-24 update*, viewed on 23/01/2025 from (<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productivity/agricultural-research-and-development-investment-in-australia>)

35) 견과류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예로 망กง, 캐슈, 피스타치오, 브라질너트 등이 언급된다. 아몬드든 견과가 아니라 과육이 있는 핵과(드루프)로, 씨앗을 '견과'라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nut pine'은 견과 같은 씨앗을 맺는 소나무를 뜻하며, 미국 영어에서는 주로 파넌을 가리킨다. 'tree nut'은 견과류 알레르기 문구에서 'tree nut'으로 표기된다.

〈그림 10〉 농업 산업별 고용, 2014년 11월 및 2024년 11월



출처: ABS (2024e)³⁶⁾

단기 비거주자 고용을 포함하여 2차 일자리를 계산하는 ABS 노동 계정의 범위는 2024년 9월까지 4분기 동안 농업분야에서 평균 36만 8,000명의 고용자를 더 높게 추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ABS 2024f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통계는 계절 근로자, 노동 고용 근로자 및 농장 문전 밖으로 확장되는 농업 노동력을 쉽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력을 얼마나 완전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Capel 2024³⁸⁾).

연중 농장의 총 고용 변동은 거의 전적으로 상시 고용(casual) 및 계약직 노동(contract labour)의 사용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농장에 고용된 상시 고용 및 계약직 노동자 수는 늦여름에 최고조에 달하지만,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등 노동 집약적인 운영의 시기를 반영하는 늦겨울에 가장 낮다.

원예 농장은 연중 주요 시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상시 및 계약직 노동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그림 11). 반면, 대규모 농장과 낙농장은 이러한 종류의 노동을 일년 내내 일관되게 사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36) ABS 2024e, Labour Force, Australia, Detailed,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accessed 8 January 2025. (<https://www.abs.gov.au/statistics/labour/employment-and-unemployment/labour-force-australia-detailed/latest-release>)

37) ABS 2024f, Labour Account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accessed 8 January 2025. (<https://www.abs.gov.au/statistics/labour/labour-accounts/labour-account-australia/latest-release>)

38) Capel, L 2024, Defining the agricultural workforce, ABARES research report,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February, DOI: (<https://doi.org/10.25814/rf44-kp75>)

〈그림 11〉 원예 농장 노동력 사용, 2019년 7월~2024년 6월



출처: ABARES.

1.3.3. 탄소 배출량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증가

전 세계적으로 농업은 큰 환경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³⁹⁾)을 가지고 있다. 이 분야는 전 세계 토지 사용의 약 50%, 전 세계 산림전용의 73%, 전 세계 물 사용의 70%,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다(OECD 2023⁴⁰⁾).

정부, 투자자 및 소비자들은 글로벌 식품 시스템(KPMG 2022⁴¹⁾; WEF 2023⁴²⁾)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자격 요건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이에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39) 환경발자국은 기존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의 용어를 개정한 것이다. 탄소발자국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심 있는 인구, 시스템 또는 활동의 공간적 및 시간적 경계 내에서 모든 관련 소스, 싱크 및 저장을 고려하여 정의된 인구, 시스템 또는 활동의 이산화탄소(CO2) 및 메탄(CH4) 배출량의 총량에 대한 측정. 관련 100년 지구 온난화 지수(GWP100)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등가물로 계산한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탄소발자국을 정의할 때 CO2를 포함한다. 그러나 좀 더 일반적으로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온실기체를 포함한다. 그들은 100년과 같은 관련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등가물을 사용하여 다양한 온실가스를 비교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발자국 또는 기후 발자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가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2022년의 탄소발자국에 대한 IPCC의 정의는 이산화탄소만을 포함한다. 그것은 탄소발자국을 “어떤 활동에 의해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걸쳐 축적된 이산화탄소(CO₂)의 배타적인 총 배출량의 척도”로 정의한다. (출처: 위키백과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

40) OECD 2023,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3,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evaluation-systems-in-development-co-operation-2023_a255365e-en.html)

41) KPMG, 2022, The time is now: The Australian Agricultural Sustainability Framework (AASF) and its role in sustainable supply chains. (<https://policycommons.net/artifacts/4394827/the-time-is-now/5191446/>)

42) WEF 2023, Emissions Measurement in Supply Chains: Business Realities and Challenges,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3.weforum.org/docs/WEF_Emissions_Measurement_in_Supply_Chains_2023.pdf)

유럽연합(EU)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의 과도기적 단계를 배출 집약적인 수입품(현재 농산물 제외)에 적용하고 있다. 일부 정부는 또한 기후 위험 및 기타 지속가능성 기준⁴³⁾(CCA 2022⁴⁴⁾; WEF 2023⁴⁵⁾)과 관련된 보고 기준의 의무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업과 금융 기관을 시작으로 기후 보고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호주의 주요 농업 산업들은 이러한 추세를 예상하고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왔다. 여기에는 호주 쇠고기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의 연례 업데이트와 호주 농업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인 개발이 포함된다. 앞으로 시장 전반에 걸쳐 단편적인 보고 환경과 비일관적인 지속가능성 기준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며, 해결되지 못할 경우, 무역과 시장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WEF 2023⁴⁶⁾).

(1) 호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호주 농업은 강력한 지속가능성 자격을 갖추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 분야의 화학 및 비료 사용량은 최고 수준이다. 예를 들어, 호주의 질소 비료 사용량은 네덜란드보다 90%, 프랑스보다 81%, 미국보다 74% 낮다(OECD 2024a⁴⁷⁾).

호주는 또한 농업 생산량 단위당 농장 내 배출량도 현저히 낮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대표적인 품목 그룹은 미국보다 42%, EU보다 29%, 뉴질랜드보다 12% 적은 배출량을 보인다(그림 12).

43) 지속가능성 기준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국제·국내 표준이다. 국제 기준은 IFRS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2022년 일반 및 기후 분야 공시기준을 발표했으며,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기준도 산업별 공시에 활용된다. 이 기준의 핵심 4대 영역은 전략(기후 위험 대응), 거버넌스(경영진·이사회 책임), 위험관리(리스크 식별·평가), 지표 및 목표(온실가스, 내부 탄소가격 등 수치화 정보)로 구성된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https://search.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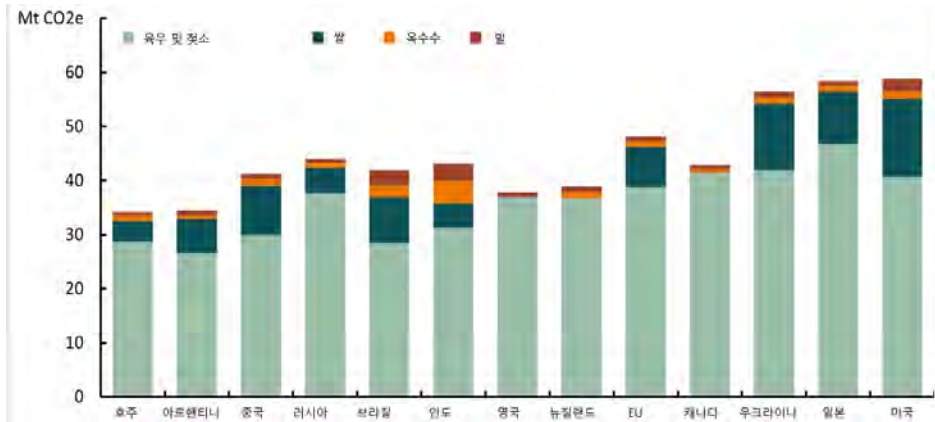
44) CCA 2022, First Annual Progress Report: the baseline, global context and methodology, Climate Change Authority, Canberra. (<https://www.climatechangeauthority.gov.au/sites/default/files/2022-12/First%20Annual%20Progress%20Report%20FINAL%20pdf.pdf>)

45) WEF 2023, Emissions Measurement in Supply Chains: Business Realities and Challenges,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3.weforum.org/docs/WEF_Emissions_Measurement_in_Supply_Chains_2023.pdf)

46) WEF 2023, Emissions Measurement in Supply Chains: Business Realities and Challenges,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3.weforum.org/docs/WEF_Emissions_Measurement_in_Supply_Chains_2023.pdf)

47) OECD 2024a,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Database 2024,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s://data-explorer.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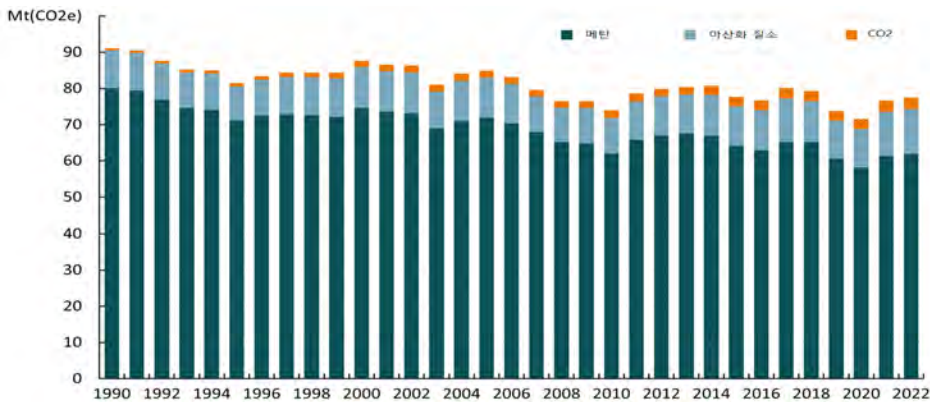
〈그림 12〉 주요 농산물 주요 품목그룹의 농업 배출량(3년 평균, 2018~2020년)



주: 1)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UNFCCC의 배출량 데이터임. 이는 2019년 IPCC 지침 개정에 따라 계산됨.
 2)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에서는 쌀 데이터 사용 불가. 영국에서는 옥수수 데이터 사용 불가.
 출처: DCCEEW 2024a, Sources of Australia's agricultural emissions.⁴⁸⁾

호주 농업부문의 배출량은 계절적 조건에 따라 매년 변동한다. 2005년부터 2022년 까지 농업은 국가온실가스배출량(DCCEEW 2024a⁴⁹⁾)의 12%에서 18%를 차지하였다. 호주 농업배출량의 80%가 메탄으로, 주로 소와 양 산업에서 발생한다(그림 13).

〈그림 13〉 호주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22



자료: DCCEEW 2024a⁵⁰⁾

48) DCCEEW(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2024a, Australia's National Greenhouse Accounts,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Canberra. (<https://www.greenhouseaccounts.climatechange.gov.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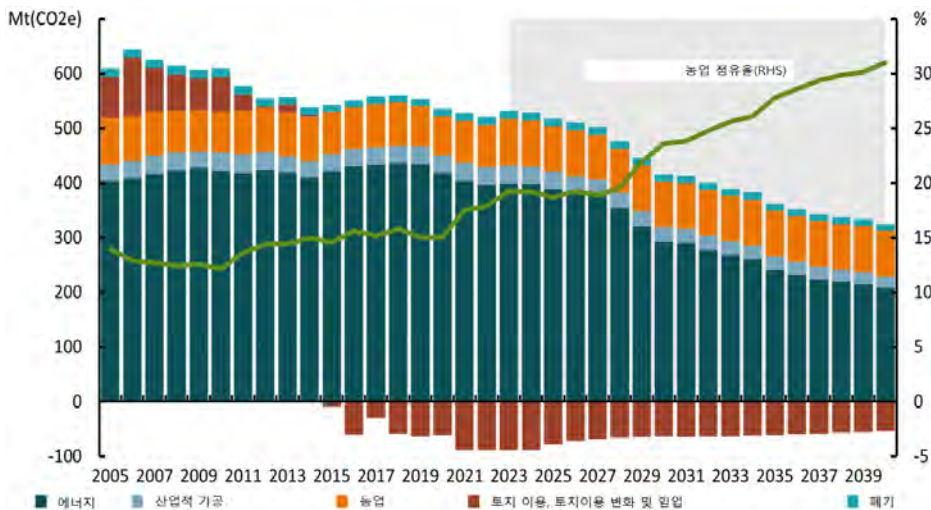
49) DCCEEW 2024a, Australia's National Greenhouse Accounts,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Canberra. (<https://www.greenhouseaccounts.climatechange.gov.au/>)

(2) 배출량 감축 경로

호주의 농업 배출량은 2023년 8,600만 톤에서 2040년 약 8,400만 톤으로 향후 15년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4). 그러나 호주 경제의 나머지 부분이 탈탄소화됨에 따라 농업의 배출량 비중은 2023년 추정치인 19%에서 2040년 3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DCCEEW 2024b⁵¹⁾).

호주와 전 세계적으로 농업 시스템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농업(IPCC 2022⁵²⁾; McKinsey & Company 2020⁵³⁾)에 저감 기술의 개발 및 구현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은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별 배출량 증가로 인하여 생산 시스템을 변경하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투자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그림 14〉 호주 연간 배출량 및 DCEEW 기준 예측, 2005-2040년



주: 회색 음영 지역은 2040년까지의 DCCEEW 기준 배출량 전망을 나타냄.

출처: DCCEEW(2024b⁵⁴⁾)

- 50) DCCEEW 2024a, Australia's National Greenhouse Accounts,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Canberra. (<https://www.greenhouseaccounts.climatechange.gov.au/>)
- 51) DCCEEW 2024b, Australia's emissions projections 2023,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Canberra. (<https://www.dceew.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australias-emissions-projections-2023.pdf>)
- 52) IPCC 2022,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https://www.ipcc.ch/assessment-report/ar6/>)
- 53) McKinsey & Company 2020,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Reducing emissions through improved farming practices.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agriculture/our-insights/reducing-agriculture-emissions-through-improved-farming-practices>)

배출 감소를 위한 저비용 조치가 존재하지만, 농장에 나무를 심는 등의 방법도 있다(AgriFutures 2022⁵⁵), 농업 배출량을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반추동물 가축의 메탄 생산을 줄이기 위한 제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Black et al. 2021⁵⁶).

현재 호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일부 기술이 시험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은 여전히 광범위한 채택에 걸림돌로 남아 있다. 향후 농업 경로는 전 세계 식량안보, 탈탄소화에 대한 최소 비용 접근 방식, 글로벌 농식품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3) 농장 지원 정책 및 배출

글로벌 농업 시장을 왜곡하고 해당 부문의 생산성 성장을 저해하는 기존 농업 지원 정책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성 결과를 개선하는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6,300억 미국 달러(911조 1,690억 원)가 무역과 생산에서 보조금 및 관세와 같은 농업 지원을 왜곡하고 있다(OECD 2024b⁵⁷). 이러한 지원을 제거하면 생산을 보다 효율적인 제품과 국가로 전환하여 식량 생산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Fell et al. 2022⁵⁸; Cao et al. 2023⁵⁹). 아울러, 전 세계 식량안보, 가계 복지 및 경제 성장도 개선될 것이다.

호주는 이미 농부들에 대한 지원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혜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프레임워크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4) DCCEEW 2024b, Australia's emissions projections 2023,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Canberra. (<https://www.dcceew.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australias-emissions-projections-2023.pdf>)

55) AgriFutures 2022, A farmer's handbook to on-farm carbon management, Publication no. 22-054. (<https://agrifutures.com.au/wp-content/uploads/2022/08/On-Farm-Carbon-Management-Handbook.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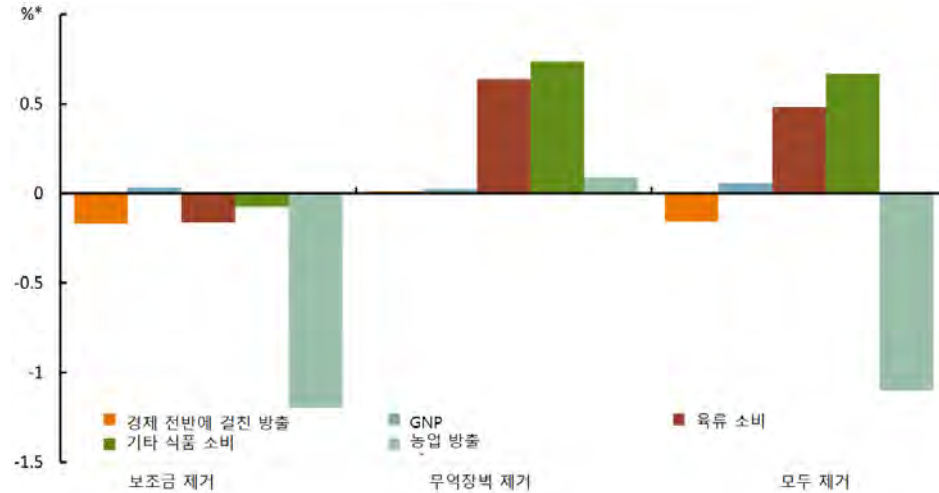
56) Black, JL, Davison, TM & Box, I 2021, Methane Emissions from Ruminants in Australia: Mitigation Potential and Applicability of Mitigation Strategies, *Animals*, vol. 4, no. 1, DOI: (<https://doi.org/10.3390/ani11040951>.)

57) OECD 2024b,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4,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evelopment-co-operation-report-2024_357b63f7-en.html)

58) Fell, J, Liangyue, C, Burns, K & Greenville, J 2022, Emissions, agricultural support and food security, ABARES Insights, Issue 6, Canberra(<https://doi.org/10.25814/r6ep-9f06>.)

59) Cao, LY, Burns, K & Greenville, J 2023, Reforming agricultural markets to support emissions reductions,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DOI: (<https://doi.org/10.25814/zjg3-0b14>.)

〈그림 15〉 보조금 및 무역 장벽 제거의 영향



주: 기준치 대비 백분율 변화.
 자료: Cao 외 2023⁶⁰⁾.

1.3.4. 장기적으로 기후 변동성은 대규모 농장 수익성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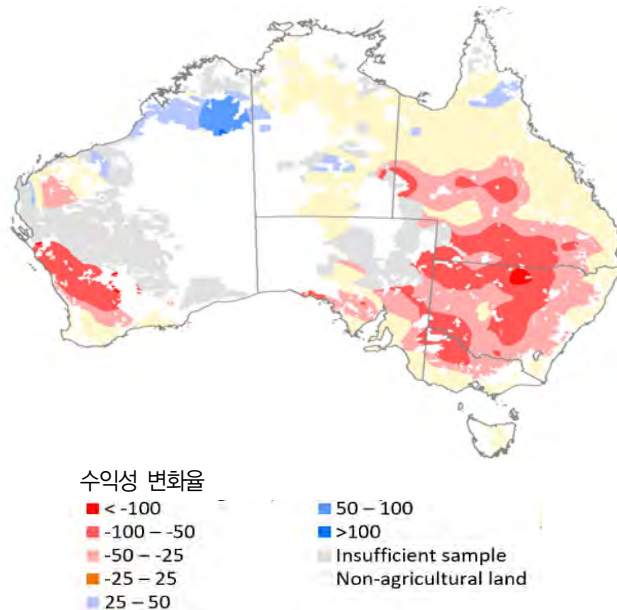
장기적으로 농가 소득은 기온 상승과 겨울 강우량 감소 추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ABARES 모델링(Hughees et al. 2022b⁶¹⁾)에서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절적 조건 변화(1950년부터 2000년까지)가 연평균 대규모 면적의 농가 수익을 23%, 즉 농가당 약 2만 9,200 호주 달러(2,785만 3,004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Hughees&Gooday, 2021⁶²⁾). 이러한 영향은 호주 남서부와 남동부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호주 북부와 해안 고강우 지역은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그림 16).

기후 변동성이 농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다. 위치, 농장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서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평균적으로, 경종농장은 축산농장보다 기후 변동성이 더 큰 반면, 가격 변동성과 관련된 위험은 축산농장이 경종농장보다 더 크다(그림 17).

60) Cao, LY, Burns, K & Greenville, J 2023, Reforming agricultural markets to support emissions reductions,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DOI: (<https://doi.org/10.25814/zjg3-0b14>.)
 61) Hughes, N, Soh, WY, Lawson, K, & Lu, M 2022b,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micro-simulation models with machine learning: The case of Australian farms, Economic Modelling, Volume 115, DOI: (<https://doi.org/10.25814/j.econmod.2022.105957>.)
 62) Hughes, N & Gooday, P 2021,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on Australian farms, ABARES Insights, Canberra, DOI:(<http://doi.org/10.25814/589v-7662>.)

가뭄 시기에는 경종농장이 작물 수확량 감소로 인하여 생산과 수익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반면, 축산농장은 가축 판매를 증가시켜 단기적으로 가뭄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사료곡물 재고가 부족한 경우, 가축 판매를 늘려 사육하는 가축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뭄의 영향을 피해하기도 한다(Hughes et al, 2019⁶³) 참조).

〈그림 16〉 20년간 계절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연평균 대규모 농장 수익성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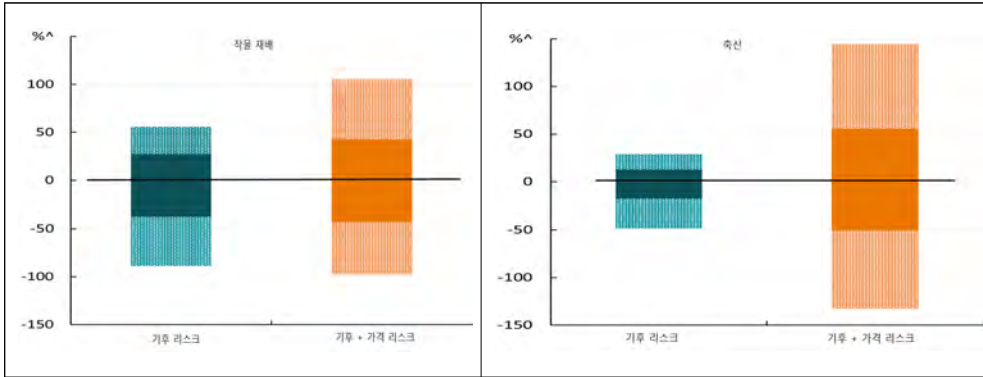
주: 2001-2020년 연평균 농장 수익성의 변화를 1950-2000년과 비교한 것임. 연간 농장 수익성은 2015-2019년 사이에 관찰된 고정된 농장 특성에 역사적인 기후 조건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되었음. 이 분석은 기후 조건의 변화가 농장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며, 상품 가격과 농장 투입물을 포함한 다른 외생적 투입물은 일정하게 유지됨. 자세한 내용은 Hughes et al(2022a) 참조.

자료: Hughes, N, Lu, M, Soh, W Y, & Lawson K(2022a)⁶⁴

63) Hughes, N, Galeano, D & Hattfield-Dodds, S (2019), The effects of drought and climate variability on Australian farms, ABARES, Canberra, DOI: (<http://doi.org/10.25814/5de84714f6e08>.)

64) Hughes, N, Lu, M, Soh, WY, & Lawson K 2022a, Modelling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profitability of Australian farms, Climatic Change, vol. 172, DOI: (<https://doi.org/10.1007/s10584-022-03356-5>.)

〈그림 17〉 기후 및 가격 위험으로 인한 연간 광범위한 농장 수익성 변화



주: 농장 수익성은 2021/22년도 농장 코호트로 지난 33년(2022/23년도~1990/91년도) 동안의 과거 기후 조건과 원자재 가격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되었으며, 농장 특성은 일정하게 유지됨. 지난 33년간의 수익 결과는 백분위수(솔리드 바는 25~75번째 백분위수, 음영 바는 5~95번째 백분위수)로 정렬됨.

* 수익의 변화는 중간 연도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임.

* 역사적인 기후 조건을 고려한 수익성 변화, 원자재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음(기후가 수익성에 미치는 고립된 영향). 자세한 내용은 Hughes et al. 2021⁶⁵⁾을 참조 바람.

자료: ABARES farmpred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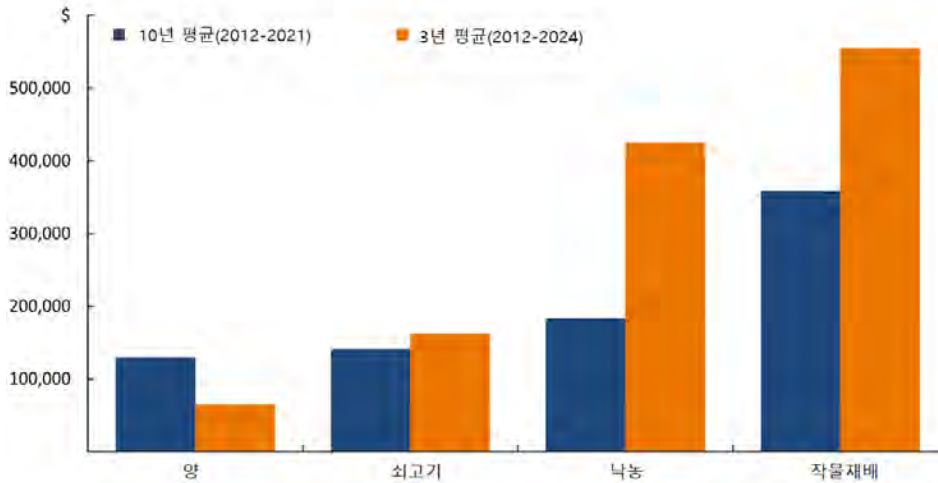
1.3.5. 최근 농업 소득의 급속한 성장

2023/24년도까지 최근 3년간 대규모 농장과 낙농장의 평균 현금 수입은 지난 10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하지만 산업마다 차이가 있다. 이는 2021/22년도에 유리한 기상 여건과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기록적인 수입이 발생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후에는 수입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ABARES 2024a⁶⁶⁾).

65) Hughes, N & Gooday, P 2021,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on Australian farms, ABARES Insights, Canberra, DOI:(<http://doi.org/10.25814/589v-7662>.)

66) ABARES 2024a, *Agricultural Commodities: December quarter 2024*,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DOI: (<https://doi.org/10.25814/82b5-tg66>.)

〈그림 18〉 호주의 산업별 농장당 평균 현금 수입



주: 2024/25년도 달러로 표현된 데이터.

출처: ABARES, Australian Agricultural and Grazing Industries Survey⁶⁷⁾ and DAFF, Australian Dairy Industry Survey⁶⁸⁾

경종농장의 경우, 2023/24년도 3년 평균 농장 현금 수입은 실질적으로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약 55% 높았다. 해마다 변동이 있었기는 하지만 작물 생산 농장의 총 현금 수입은 장기적으로 총 현금 비용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농장 생산성의 향상을 반영하였다(Ashton, Welsford-Brink & Ryder, 2024⁶⁹⁾).

낙농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강세를 보였다. 2023/24년도 이전 3년 평균 농장 현금 수입은 지난 10년 평균보다 약 130% 높았다. 최근 낙농장의 수입 강세는 2022/23년도 우유 가격이 기록적으로 높았고, 에너지, 비료, 화학물질 및 사료와 같은 주요 투입물에 대한 지출이 감소한 결과이다(Topp, Ryder & Ashton, 2024⁷⁰⁾).

최근 몇 년 동안 축산 농가의 소득은 엇갈리고 있다. 2023/24년도에 추정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24년도까지 과거 3년 사이에 전문 육우농장의 평균 소득은 이전 10년 평균보다 약 15% 높았다. 이는 농장 생산성이 다소 개선되어

67) ABARES, Australian Agricultural and Grazing Industries Survey (<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surveys/farm-survey-data>)

68) DAFF, Australian milk residue analysis survey.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export-controlled-goods/dairy/links/australian-milk-residue-survey>)

69) Ashton, D, Welsford-Brink, Q and Ryder, J 2024a, *Financial performance of cropping farms: 2021-22 to 2023-24*, ABARES, Canberra, July, DOI:(<https://doi.org/10.25814/baj6-dr22>). CC BY 4.0.)

70) Topp, V, Ryder, J and Ashton, D 2024, *Financial performance of dairy farms: 2021-22 to 2023-24*, ABARES, Canberra, October, DOI:(<https://doi.org/10.25814/a8tw-g681>) CC BY 4.0.)

총 현금 비용 증가를 능가하는 총 현금 수입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Ashton, Welsford-Brink & Ryder, 2024a⁷¹⁾).

최근 몇 년 동안 양 전문농장의 소득이 감소하였다. 2023/24년도까지 과거 3년 동안 평균 농장 현금 소득은 지난 10년 평균보다 약 50%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농가 비용 상승과 울, 램(lamb, 어린양 고기) 및 머툼(mutton, 성양 고기) 가격의 변화, 일부 연도의 건조한 계절적 조건(Ashton, D, Welsford-Brink, Q and Ryder, J, 2024a⁷²⁾)으로 소득이 정점을 찍은 이후 생산성이 소폭 성장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2. 2025/26년도 호주 곡물 생산 전망⁷³⁾

2.1.1. 2025/26년도 겨울작물 생산 전망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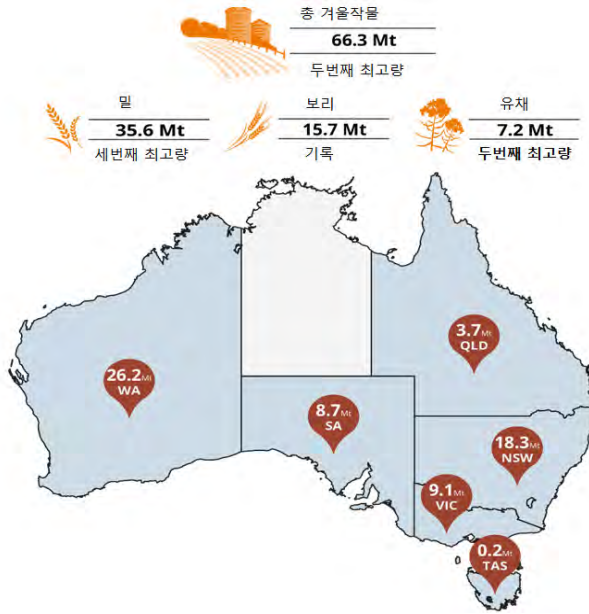
호주의 겨울작물 생산량은 2025/26년도에 10% 증가하여 6,63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9). 이는 2024/25년도까지 과거 10년 평균인 4,920만 톤보다 35% 높은 수치이다. 이 같은 수치가 실현된다면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은 결과가 될 것이다. 겨울 시즌 동안 주마다 재배 조건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겨울작물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71) Ashton, D, Welsford-Brink, Q and Ryder, J 2024a, *Financial performance of cropping farms: 2021-22 to 2023-24*, ABARES, Canberra, July, DOI:(<https://doi.org/10.25814/baj6-dr22>). CC BY 4.0.)

72) Ashton, D, Welsford-Brink, Q and Ryder, J 2024a, *Financial performance of cropping farms: 2021-22 to 2023-24*, ABARES, Canberra, July, DOI:(<https://doi.org/10.25814/baj6-dr22>). CC BY 4.0.)

73) 이 부분은 ABARES(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의 Australian crop report(호주 작물 보고서) No.216 (<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research-topics/agricultural-outlook/australian-crop-report/december-2025>)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19〉 호주의 2025/26년도 겨울작물 생산량 추정치



출처: ABARES

서호주에서는 겨울작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생산량은 사상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겨울작물 시즌이 혼합적으로 시작된 후, 대부분의 작물지역에서 평균 이상의 강우량과 적시의 온화한 봄이 기록적인 평균 수확량에 기여하였다.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의 계절적 조건은 양호하였으며, 수확 결과는 호조를 보였다. 퀸즐랜드의 총 겨울작물 생산량은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을 것이다. 중요한 곡물 육성기간 동안 뉴사우스웨일스 남부 전역의 봄 강수량이 평균 이하로 감소하여 수확량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겨울 작황이 좋지 않았던 남호주와 빅토리아에서는 겨울과 봄의 적시 강우량과 온화한 봄 기온으로 생산량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호주의 총 겨울작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6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빅토리아주의 생산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9월 호주 작물 보고서 이후 전국 겨울작물 생산량은 중요한 성장 단계에서 적시에 내린 봄 강우량과 대부분의 겨울 작황 지역의 온화한 봄 기온을 반영하여 더 높게 수정되었다. 예외적으로 남부 뉴사우스웨일스와 북동부 남호주 지역에서는 평균

이하의 봄 강우량이 수확량 잠재력에 영향을 미쳤다.

밀 생산량은 2025/26년도에 4% 증가한 3,560만 톤으로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호주의 밀 생산량은 6% 증가하여 기록상 두 번째로 큰 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호주와 빅토리아의 생산량도 전년도 가뭄 영향 수준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상쇄하는 곳은 뉴사우스웨일스로 생산량은 14% 감소하였으며, 남부 뉴사우스웨일스의 열악한 환경이 전체 생산량에 부담을 주고 있다.

보리 생산량은 2025/26년도에 18% 증가하여 기록적인 1,57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 33% 높은 수치이다. 이 전망은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 면적과 전국 평균 보리 수확량이 약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호주와 빅토리아의 조건이 개선되고 전국 유채 작물의 상당 부분이 재배되는 서호주의 우수한 조건으로, 2025/26년도에 총 재배면적이 6%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유채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7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유채 생산량은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 5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렌틸콩 생산량은 평균 단수가 38% 증가하고 재배면적이 10% 증가하여 2025/26년도에 기록적인 190만 톤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상 최고치이다. 남호주와 빅토리아의 렌틸콩 면적은 계속 확장되며, 재배자들은 유리한 총마진과 건조한 조건에 대한 내성으로, 순환적으로 렌틸콩을 선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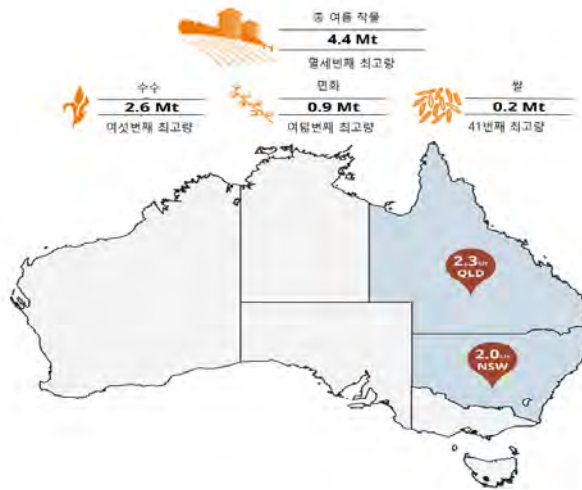
병아리콩 생산량은 2025/26년도에 210만 톤으로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전히 기록상 두 번째로 큰 작물이다. 이 감소는 평균 수확량이 10% 감소했음을 반영하며, 이는 2024/25년까지 10년 평균보다 45%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의 계절적 조건이 대체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단수는 작년의 기록적인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2025/26년도 겨울작물 재배면적은 2,510만 ha로 작년 기록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호주에서 재배면적이 3% 증가한 것은 뉴사우스웨일스에서 3% 감소한 것으로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에서 재배된 면적은 전년 기록보다 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호주와 빅토리아에서 재배된 총 겨울작물 면적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2. 2025/26년도 여름작물: 재배량 감소 전망

2025/26년도 여름작물 생산량은 440만 톤으로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0). 이는 2025년 9월 호주 작물 보고서에서 2%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하지만 2024/025년도 이전 10년 평균인 380만 톤보다는 18%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26년도 여름작물의 재배면적은 6% 감소한 130만 ha로 전망되며, 이는 주로 쌀과 면화에 심어진 면적의 감소를 반영한다.

〈그림 20〉 호주의 2025/26년도 여름작물 생산량 추정치



자료: ABARES

2025년 11월 20일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강우 전망(12월~2월까지)에 따르면, 대부분의 동부 작물재배 지역에서 중간 이상의 강우 가능성이 감소하고, 평균 강우량이 높거나 낮을 가능성이 동일하다. 그러나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의 여름작물 재배 지역에 대한 비교적 중립적인 강우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11월 평균 강우량을 훨씬 상회하는 평균 강우량이 토양 수분 수준을 높였다.

수수 생산량은 2025/26년도에 4% 감소한 260만 톤으로 전망되지만,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인 180만 톤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감소는 2024/025년도에 달성한 기록적인 평균 단수에서 예상되는 감소를 반영한다. 하지만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평균 이상의 단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지 면화 재배는 재배 시 평균 토양 수분 함량이 낮고 수수와 같은 다른 작물로

의 복귀에 더 유리하다. 때문에 건조지 면화재배는 제한적이었다. 그렇지만, 북부 머레이-달링 분지(Murray-Darling Basin)의 높은 물 가용성과 동부 호주 대부분 지역의 비교적 중립적인 강우 전망은 평균 단수 이상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생산량 전망은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 9% 높게 나타났다.

2025/26년도에는 쌀 생산량이 66% 감소한 17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재배되는 면적이 6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재배면적 감소는 지속적인 건조 조건으로 인해 일반적인 보안용수 할당(security water allocations⁷⁴⁾)이 감소하고 관개용수 가격이 상승한 데 기인한다.

2.1.3. 주별 작물 생산 전망

■ 퀸즐랜드

퀸즐랜드의 겨울작물 생산량은 2025/26년도에 370만 톤으로 전년도 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인 230만 톤보다는 64% 높은 것이다. 2025년 9월 호주 작물 보고서와 비교하였을 때는 10% 상향 조정된 수치이기도 하다. 상향 조정된 이유는 대부분의 겨울작물 단수가 증가하고 병아리콩을 심은 면적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2025/26년도 겨울작물 재배 조건은 퀸즐랜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체로 유리하였다. 적절한 강우량과 식재 시 높은 토양 수분 수준은 작물 수확기에 최적의 출발을 보였다. 재배 시준 초반의 유리한 강우량 덕분에 평균 봄 강수량보다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요 겨울작물 단수가 증가하였다. 밀 생산량은 2025/26년도에 전년도 대비 1% 증가하여 23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수가 재배면적 감소를 상쇄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이다.

74) 보안용수 할당(security water allocations)은 기후변화, 가뭄 등 비상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정해진 최소한의 용수량을 의미한다. 보안용수 할당의 주요 목적은 1) 비상시 물 공급 보장: 극한 기상, 가뭄, 홍수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필수 생활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 등 핵심 분야에 최소한의 물 공급을 보장한다. 2)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변동성에 적응하고, 홍수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해 물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3) 정책적 기준 마련: 호주 등에서는 저수지별로 보안용수 할당량을 설정하여 농업, 산업, 생활 등 각 분야에 필요한 최소 용수량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이다. 보안용수 할당의 운영 및 관리의 특징으로는 1) 예측·모니터링 기반: 기상 데이터, 수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할당량을 조정하며, 자동화 지능화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다. 2) 법적·제도적 근거: 각국의 수자원 관리법과 정책, 국제 기준에 따라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보안용수 할당은 비상시에도 안정적 물 공급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관리의 핵심 요소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https://search.naver.com/>)

〈표 1〉 겨울작물 전망, 퀴즐랜드, 2025/26년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전년도 대비 재배면적 변화 (%)	전년도 대비 생산량 변화 (%)
밀	880	2.57	2,260	-2	1
보리	170	2.91	495	-8	-7
병아리콩	470	1.94	910	12	-4

주: 단수는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함. 면적에는 수확, 육성 및 실패 재배작물 포함. 변화율은 2024/25년도 대비임.
자료: ABARES.

보리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 감소한 49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병아리콩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를 상쇄하는 것 이상의 낮은 단수로 인해 전년도 대비 4% 감소하여 91만 톤으로 전망된다. 병아리콩 단수는 감소하더라도 평균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은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 100%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퀴즐랜드의 겨울작물 수확은 2025년 11월 폭우에 앞서 거의 완료되었다. 비교적 건조한 마무리 조건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중단 없는 현장 접근이 가능하였다.

퀴즐랜드의 2025/26년도 여름작물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9% 감소한 23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 31% 높은 수준이다. 2025년 9월 호주 작물 보고서와 비교할 때 약간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상향 조정은 낮은 면화 재배 면적을 상쇄하는 것 이상으로 수수 재배면적을 늘린 것을 반영한다.

2025년 11월 20일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강우 전망(12월~2월까지)에 따르면, 대부분의 퀴즐랜드 작물 재배지역에서 중간 이상의 강우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적 중립적인 강우 전망에도 불구하고 평균은 훨씬 높다. 대부분 지역에서 11월 평균 강수량은 토양 수분 수준을 높여 여름철 평균 이상의 작물 단수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2025/26년도 수수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8% 감소한 170만 톤으로 전망된다. 수수 재배면적은 양호한 단수와 재배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45만 h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 단수는 2025/26년도에 기록적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량은 여전히 과거 10년 평균보다 22%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26년도에는 재배면적 감소로 인하여 면화 섬유(cotton lint)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16% 감소하여 34만 2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이하의 봄 강수량으로 인해 건조지 면화 재배가 제한됨에 따라, 면화 재배면적은 전년도 대비 14% 감소하여 14만 ha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5/26년도에는 단수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지만, 평균 이상은 유지하여, 면화 섬유 생산량이 2024/25년도까지 이전 10년 평균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여름작물 전망, 퀸즐랜드, 2025/26년도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전년도 대비 재배면적 변화율 (%)	전년도 대비 생산량 변화율 (%)
곡물 수수	450	3.72	1,675	11	-8
면화 섬유	140	2.45	342	-14	-16
면실	140	2.81	393	-14	-16

주: 단수는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면화는 수확면적을 기준으로 함. 면적에는 수확, 육성 및 재배실패 작물이 포함됨. 변동률은 2024/25년도에 비해 상대적임.

자료: ABARES

■ 뉴사우스웨일스

뉴사우스웨일스의 2025/26년도 겨울작물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10% 감소한 1,83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상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2025년 9월 호주 작물 보고서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3%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4/25년도까지의 10년 평균보다는 43%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뉴사우스웨일스 전역의 계절적 조건은 매우 다양하다. 북부작물지역에서 평균 이상의 단수 결과를 초래하는 유리한 조건(우수한 조기 수확 결과)은 평균 성장기 강우량 이하와 남부 뉴사우스웨일스 전역의 낮은 단수 결과로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2025/26년도 뉴사우스웨일스의 밀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14% 감소한 1,1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주 평균 단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는 26%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리 생산량은 330만 톤으로 전년도 대비 3% 감소하고, 유채는 170만 톤으로 전년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두 작물 모두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26년도 병아리콩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8% 감소한 1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수가 9% 감소하여도 재배면적 2% 증가를 상쇄할 수도 있다. 대부분 양호한 계절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부 작물지역에서 단수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하지만, 여전히 평균보다 높으며, 생산량은 사상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26년도 뉴사우스웨일스의 겨울작물 재배면적은 전년도 대비 3% 감소한 690만 ha로 전망된다. 이는 여전히 기록상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는 21% 높은 수치이다. 재배 당시 대부분의 유리한 계절 조건에도 불구하고, 특히 남부 작물재배 지역에서는 2024/25년도 시즌 시작만큼 유리하지 않은 조건이었다.

기상청의 12월 강우량 전망(2025년 11월 20일 발표)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의 경작지별 강우량은 중앙값을 초과할 가능성이 낮다. 12월 평균 강수량보다 적으면 수확 활동이 거의 중단되지 않고, 수확 중 곡물품질저하 위험 감소 가능성이 높다.

〈표 3〉 겨울 작물 전망, 뉴사우스웨일스, 2025/26년도

작물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전년도 대비 재배면적 변화율 (%)	전년도 대비 생산량 변화율 (%)
밀	3,600	3.07	11,050	-8	-14
보리	1,000	3.30	3,300	0	-3
유채	950	1.79	1,700	-4	-11
병아리콩	590	2.00	1,180	2	-8

주: 단수는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함. 면적에는 수확, 육성 및 실패한 재배작물이 포함됨. 변화율은 2024/25년도 대비임. 자료: ABARES.

2025/26년도 뉴사우스웨일스의 여름작물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22% 감소한 2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로 면화와 쌀 재배면적의 감소를 반영한다. 2025/26년도 여름작물 재배면적은 전년도 대비 17% 감소한 55만 5천 ha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26년도 수수 생산량은 89만 톤으로, 전년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 62% 높은 수치이다. 수수 재배면적은 20만 ha로 전년도에 비해 1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는 36% 높은 수치이다. 이는 좋은 토양 수분 가용성과 면화에 비해 더 나은 수익률을 반영한다.

2025/26년도 면화 섬유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28% 감소하여 56만 5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5/26년도에는 물 가용성 감소, 평균 토양 수분 적정량 이하, 수수에 비해 단수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면화 재배면적이 전년도 대비 27% 감소하여 24만 5천 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수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5/26년도에는 쌀 재배면적이 2019/20년도 이후 가장 적은 면적으로, 전년도 대비 64%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25/26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66% 감소한 17

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일반 보안용수 할당 감소와 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벼 재배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여름작물 전망, 뉴사우스웨일즈, 2025/26년도

작물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전년도 대비 재배면적 변화율 (%)	전년도 대비 생산량 변화율 (%)
곡물 수수	200	4.45	890	11	5
면화 섬유	245	2.30	565	-27	-28
면실	245	2.64	647	-27	-28
쌀	17	10.29	175	-64	-66

주: 단수는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면화는 수확면적을 기준으로 함. 면적에는 수확, 육성 또는 실패한 재배 작물이 포함됨. 변동률은 2024/25년도 대비임.

자료: ABARES

■ 빅토리아

2025/26년도 빅토리아주의 겨울작물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91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25년 9월 호주 작물 보고서보다 3%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10년 평균보다는 11% 높은 수치이다. 생산량 증가는 10월 적시의 강우로 빅토리아주 대부분 재배지역에서 단수가 증가하고, 이후 파종 작물 개선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2025/26년도 겨울작물의 재배 조건은 계절 내내 대체로 엇갈렸다. 초기 초겨울 습기는 대부분의 주에서 8월과 9월에 건조한 조건으로 상쇄되었다. 이른 봄 건조에도 불구하고, 북부 작물지역에서 건조를 위해 일부 밀과 보리 작물을 수확하였다. 하지만 10월에는 뎀머라(Wimmera)와 서부 지구(Western Districts)에서 단수를 늘리고, 후작 곡물 작물의 성숙을 지원하였다. 이는 보리의 평균 이상 단수와 생산량, 유채와 밀의 평균 단수와 생산량을 뒷받침하였다.

2025/26년도 빅토리아 밀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16% 증가한 4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평균 단수는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 3%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보리의 경우 더 큰 생산량 증가가 예상된다. 보리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260만 톤이 되고, 단수는 이전 10년 평균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26년도 렌틸콩 생산량은 86만 톤(전년도 대비 32% 증가)으로 전망된다. 단수는 10년 평균보다 17%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약 53만 ha의 재배면적에 기인한다. 한편, 유채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4% 감소한 12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배면적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표 5〉 겨울 작물 전망, 빅토리아, 2025/26년도

작물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전년도 대비 재배면적 변화율 (%)	전년도 대비 생산량 변화율 (%)
밀	1,470	2.76	4,050	-2	16
보리	850	3.00	2,550	4	28
유채	540	2.13	1,150	-5	-4
렌틸 콩	530	1.62	860	2	32

주: 단수는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함. 면적에는 수확, 육성 및 실패한 재배작물이 포함됨. 변화율은 2024/25년도 대비임.
자료: ABARES

2025년 11월 기준 빅토리아주의 모든 작물 재배지역에서 겨울작물 수확이 진행 중이다. 11월의 습하고 서늘한 날씨로 인해 빅토리아 북부와 북동부 지역의 수확 진행이 지연되었지만, 아직 수확되지 않은 작물의 곡물 품질 저하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기상청의 12월 강우 전망(2025년 11월 20일 발표)에 따르면, 빅토리아주의 작목 지역에서 중간 이상의 강우 가능성이 낮아져 수확 활동이 거의 중단되지 않고, 수확 중 곡물 품질 저하 위험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 남호주(South Australia)

2025/26년도 남호주의 겨울작물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63% 증가한 87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 9월 호주 작물 보고서 수치보다 10% 상향 조정된 것이다.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는 12% 높은 수준이다. 남호주의 대부분의 작물 재배지역에서 10월 내내 평균 이상의 강우량이 있었기 때문에, 2025/26년도에는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26년도 겨울작물의 재배 조건은 엇갈렸다. 시즌 초반 평균 이하의 강우량은 남호주의 대부분의 작물재배 지역에서 작물 단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0월의 적시 강우량은 특히 요크와 에어 반도(York and Eyre Peninsula)와 북부 작물재배 지역의 9월 건조 조건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시즌 시작이 늦어진 것은 작물 개발이 평균보다 몇 주 뒤처진다는 의미였다. 늦은 시기의 강우량은 주요 육성단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보리 단수가 밀보다 더 많은 이점을 얻었다. 예외는 올해 내내 강우량이 극도로 낮았던 북부 말리(Northern Mallee)로, 주 평균 단수에 다소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8월과 9월의 건조 조건으로 인하여 중북부 지역의 일부 재배자들은 건조를 위한 작물을 수확하게 되었다.

2025/26년도 남호주 밀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71% 증가한 470만 톤으로 전망된다. 주

평균 단수는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 10% 높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보리와 유채 단수는 각각 10년 평균보다 6%와 12%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량도 전년도 대비 69% 증가하여 93만 7천 톤으로 새로운 주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단수는 이전 10년 평균보다 2% 증가하고, 예상 재배면적은 51만 5천 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겨울작물 전망, 남호주, 2025/26년도

작물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전년도 대비 재배면적 변화율 (%)	전년도 대비 생산량 변화율 (%)
밀	2000	2.37	4,740	-2	71
보리	835	2.47	2,058	3	58
렌틸 콩	515	1.82	937	10	69
유채	230	1.98	455	-15	20

주: 단수는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함. 면적에는 수확, 육성 및 실패한 재배작물이 포함됨. 변화율은 2024/25년도 대비임.
자료: ABARES

남호주 전역에서 겨울작물 수확이 늦어지고 있다. 기상청의 12월 강우량 전망(2025년 11월 20일 발표)에 따르면, 남호주의 작목 지역 강수량은 평균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12월 평균 강수량보다 적으면 수확 활동이 거의 중단되지 않고, 수확 중 곡물 품질 저하 위험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 서호주(Western Australia)

2025/26년도 서호주의 겨울작물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14% 증가한 2,620만 톤으로 2022/23년도에 세운 이전 기록보다는 약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 9월 호주 작물 보고서 수치에 비해 10% 상향 조정된 것이다.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인 1,800만 톤보다는 45% 높은 수치이다.

겨울작물 시즌 초기에는 불리한 건조하고 더운 날씨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서호주의 조건은 시즌 내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북부 및 남부 작물지역에서 7월부터 9월 까지 적시에 강우가 이루어졌다. 주요 재배지역의 온화한 기온도 단수를 뒷받침하였다. 하지만 중부 및 남부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렸다. 서호주 남부 재배지역의 봄 평균 강수량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은 임계 곡물 성숙기 동안 평균 단수와 생산량을 초과할 만큼 충분한 강우량을 기록하였다.

2025/26년도 서호주의 밀 생산량은 단수 증가로 전년도 대비 6% 증가한 1,34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치는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 39% 높은 것이다. 단

수 증가는 주로 조건이 예외적인 중부 및 북부 작물지역의 조건 개선에 기인한다.

보리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20% 증가하여 기록적인 7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평균 단수는 2024/25년도 이전 10년 평균보다 42%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채 재배면적이 전년도 대비 19% 증가하고 단수도 증가하여, 2025/26년도에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35% 증가한 39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26년도 서호주의 겨울작물 단수는 북부 작물재배 지역의 강우로 인해 더디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수확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초의 건기 마무리와 평균 강수량 이하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 단수는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11월 20일 기상청이 발표한 12월 강우량 전망에 따르면, 겨울작물 수확이 최소한의 중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수량이 평균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겨울작물 전망, 서호주, 2025/26년도

작물	재배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전년도 대비 재배면적 변화율 (%)	전년도 대비 생산량 변화율 (%)
밀	4,450	3.01	13,400	-5	6
보리	1,900	3.79	7,200	6	20
유채	1,900	2.05	3,900	19	34
루핀 콩	400	1.95	780	14	33

주: 단수는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함. 면적에는 수확, 육성 및 실패한 재배작물이 포함됨. 변화율은 2024/25년도 대비임. 자료: ABA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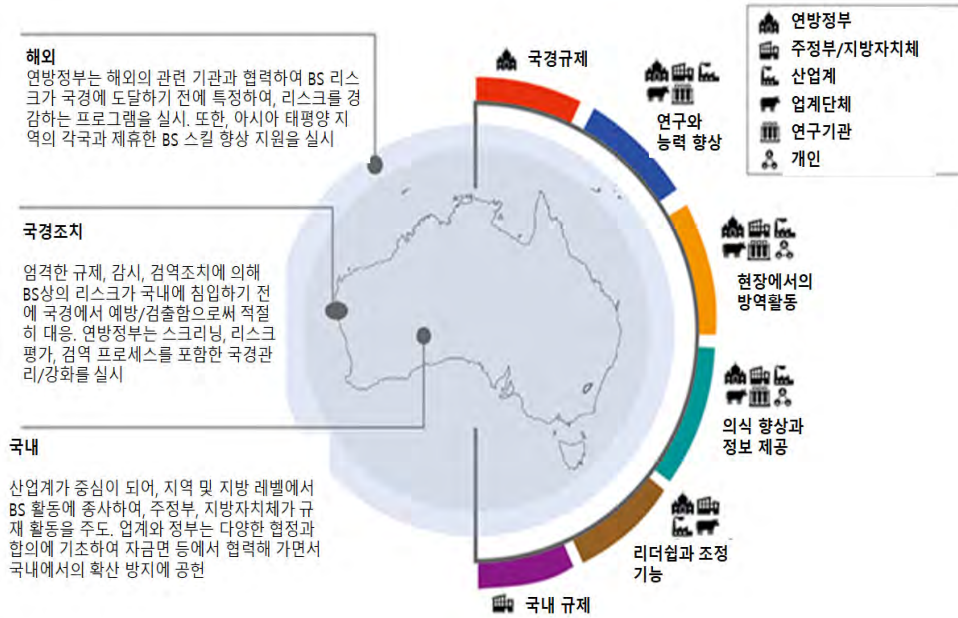
3. 바이오 시큐리티 정책 현황⁷⁵⁾

3.1. 국가 전략

BS란 생물학적인 위협(병해충 등)의 침입, 발생, 정착, 만연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으로, 사람이나 동·식물의 건강을 지키는 분야 횡단적인 대처를 말한다. 호주의 BS 시스템은 해외(로부터의 유입 방지), 국경(검역 조치), 국내(방역)에서의 방역조치로 구성된 다층 구조이다. 이 전략에는 연방정부, 주정부, 산업계, 업계단체, 연구기관, 원주민 커뮤니티, 개인 등의 관계자 간의 협력관계 하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정리되어 있다(그림 21).

75) 이 부분은 농축산업진흥기구, 「『清浄国』を守る国家戦略: 豪州のバイオセキュリティ政策とその進化(청정국가를 지키는 국가전략: 호주의 바이오 시큐리티 정책과 그 진화)」, 『畜産の情報』海外情報 豪州, 2025년 10月号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3933.html)를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을 통해 작성되었다.

〈그림 21〉 바이오 시큐리티 시스템의 구조 및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자료: 호주 농림수산성(DAFF)의 공표자료를 기초로 ALIC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清浄国」を守る国家戦略: 豪州のバイオセキュリティ政策とその進化, 「畜産の情報」海外情報 豪州, 2025년 10月号에서 재인용.

2022년에 공표된 ‘국가 바이오 시큐리티 전략(NBS)76’은 이들 BS 시스템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BS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법적 틀, 전략, 협정, 업계 계획과의 정합성을 취하면서 수립된 최초의 국가 지침이다. 이 지침에는 2032년까지 10년간 호주가 목표로 해야 할 BS 강화의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6개의 우선 분야마다 중장기적인 목표와 함께 설정되어 있다. 또한, 우선 분야 중에서도 「BS 문화 공유」 및 「보다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은 모든 우선 분야의 기초로서 특히 집중하여 추진하는 분야이다(그림 22).

7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업진흥기구, 「家畜疾病等の諸課題に向け「国家バイオセキュリティ戦略」等を策定(豪州)(가축질병 등 여러 과제를 위한 국가 바이오 시큐리티 전략」등을 수립(호주)」, 「畜産の情報」海外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3385.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22〉 국가 바이오 시큐리티 전략의 개요

6가지 우선 분야	향후 활동 예정(발체)	장기 목표
 바이오 시큐리티 문화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인 BS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학적 연구 지역의 BS 활동 선구자 특정, 사례 공유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을 통한 젊은 층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모든 호주 국민이 BSD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공명
 보다 강력한 파트너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BS 활동에 있어 선주민의 문화유산 보호 프로그램 수입 서플라이 체인 관계자용 이해 향상 프로그램 개발 인근 국가와 국가적 파트너쉽 강화 	모든 스테이크 홀더 사이에서 강력한 파트너쉽 체결
 고도의 스킬을 가진 인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BS 교육 검토 업계 합동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BS스킬이 고용 조건인 가치에 연계된 문화 양성 	고도의 스킬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
 발생 전 감시/검출/조사 기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를 특정하기 위한 분자생물학적 검사의 평가 전국적으로 협조된 서베일런스 데이터 공유 시스템 개발 검체의 검사항목 선정 등, 웹헬스 어프로치의 제류 강화 	BS 리스크를 정확히 예방, 검출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획득
 지속가능한 바이오 시큐리티에 대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에 의한 BS 강화로의 공헌도 정량화 국제무역에 의한 침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스킴 검토 코스트 저감을 위한 긴급 질병대응시 협정 재검토 	관인이 공유하여 부담하는 지속가능하고도 사용의 투명성, 공헌도가 명확한 투자 실현
 과학에 기초한 관련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BS 데이터 전략 수립 AI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기능 강화 차세대기술(백신, 유전자 제어, 생물농약) 개발 지원 	과학적 시각에 기초한 BS시책의 의사결정에 기여하는시스템 구축

자료: National Biosecurity Committee, 「National Biosecurity Strategy」를 기초로 ALIC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清浄国」を守る国家戦略: 豪州のバイオセキュリティ政策とその進化」,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豪州, 2025년 10月号에서 재인용.

NBS가 수립된 배경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분포 범위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人流)·물류 증가, 인근 국가에서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병원체 침입·확산 위험 고조를 들 수 있다.

특히, 2022년에 이웃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구제역⁷⁷⁾은 호주의 위기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같은 해 집권한 노동당은 가축 질병의 침입 방지를 중점적으로 한 BS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NBS 수립과 후술하는 노동력 확보, 새로운 예산 조치를 진행하여 왔다.

또한, 2016년에 시행된 연방법인 바이오 시큐리티법(Biosecurity Act 2015, 이하 ‘BS 법’)은 리스크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2년의 개정에서는 BS 상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이 개인의 입국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아울러, NBS 수립 후인 2023년에는 재판소가 부과할 수 있는 각 위반 항목의 최대 벌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표 8).

77)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농축산업진흥기구, 「口蹄疫対策として300万回分のワクチン接種などを実施(インドネシア) (구제역 대책으로서 300만 회분의 백신 접종 등을 실시(인도네시아))」,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9월 13일 게재,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3361.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8〉 바이오 시큐리티법에 있어 최대 벌금액의 개정 내용

벌금액		적용 대상
개정 전	개정 후	
9,900 호주 달러	39,600 호주 달러	BS 관련 직원(담당자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9,900 호주 달러	39,600 호주 달러	유사시 지정된 '인간건강대응구역'의 요건을 위반한 자
9,900 호주 달러	39,600 호주 달러	국내로 인간 유체를 가져오거나, 관리에 관한 요건을 위반한 자
9,900 호주 달러	39,600 호주 달러	호주에 이동 또는 도착 직전에 사망한 유체의 관리요건을 위반한 자
9,900 호주 달러	49,500 호주 달러	입국 요건을 위반한 개인, 또는 출국 요건을 위반한 개인
39,600 호주 달러	49,500 호주 달러	장관이 지정한 BS 조치를 위반한 자
19,800 호주 달러	198,000 호주 달러	동 법에 기초한 행정측의 질문 등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한 자
39,600 호주 달러	198,000 호주 달러	업무 관계자(수입업자 등)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한 자
9,900 호주 달러	330,000 호주 달러	출발하는 여객기 및 선박의 취급 요건을 위반한 운항책임자

주: 1) 연방법에서는 벌금액은 유닛수×단가로 나타내며, 표의 금액은 현행 단가인 330호주 달러로 계산함.

2) 인간건강 대응구역이란 감염증 확대를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도입된 긴급조치구역을 말함.

자료: Biosecurity Act 2015를 기초로 ALIC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清浄国」を守る国家戦略: 豪州のバイオセキュリティ政策とその進化, 「畜産の情報」海外情報 豪州, 2025년 10月号에서 재인용.

3.2. 추진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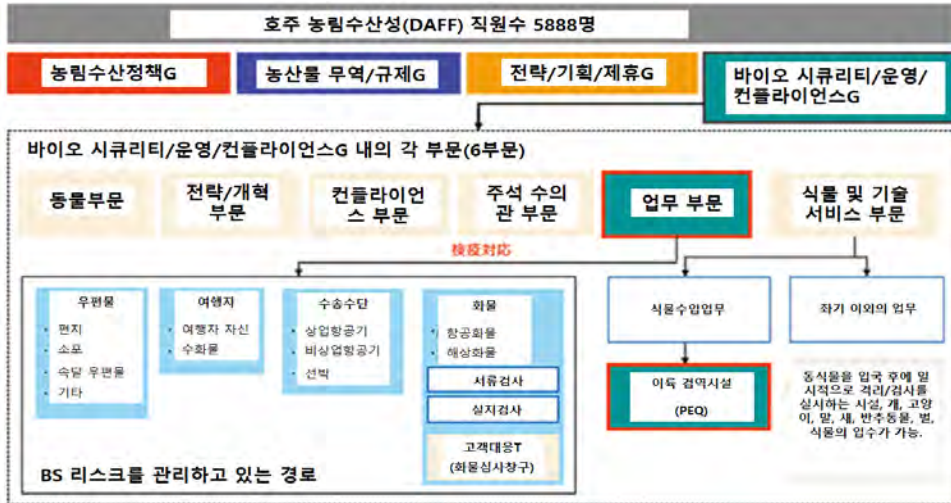
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BS 시스템 관리와 추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DAFF는 주정부·지방자치체, 업계단체 등과 제휴하여 인근 국가와의 협력 체제와 방역 관리 조치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6월 30일 시점에서 DAFF의 직원수는 5,888명이며, 그중 최대 규모인 바이오 시큐리티·운용·컴플라이언스 그룹 중 '업무부문' 및 '격리 검역시설'에 소속된 직원이 직접적인 검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그림 23).

같은 부문·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대부분이 BS법 제545조에 근거한 바이오 시큐리티 담당관⁷⁸⁾에 임명되어, 상근 환산으로 약 1,700명이 국내의 공항이나 항만 시설 등에 배치되어 있다(그림 24).

DAFF는 BS 강화 대응의 일환으로서 같은 부문·시설을 중심으로 인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계 대학과 제휴한 BS 트레이닝 코스 확충과 BS 관련 직원의 캐리어 패스 제도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부록 1 참조). 보도 정보에 근거한 최신 DAFF의 직원 수는 6,373명(2025년 5월 시점)으로, 약 1년간 8.2% 증가하여 노동력 확보 대응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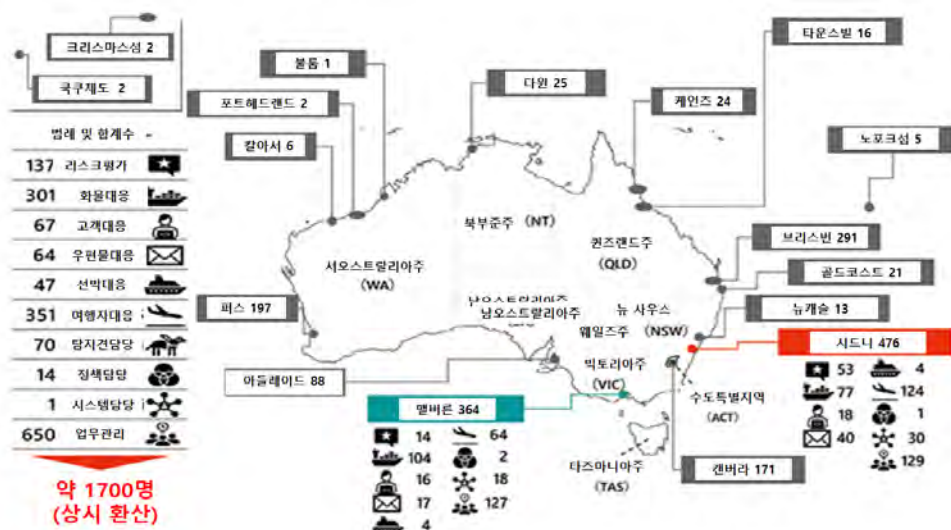
78) 담당 장관이 임명하는 바이오 시큐리티 활동(검사 명령 등)에 일정한 권한을 가지는 직원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DAFF의 직원이지만, 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그 이외의 사람도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23〉 호주 농림수산성(DAFF)의 조직 구조



주: 1) DAFF의 구성원은 2024년 6월 30일 시점, 비상근 포함.
 2) 호주는 시험연구용을 제외하고 생체 가족 수입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 가금류의 유정란은 수입 가능
 자료: DAFF, 「Annual Report」,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Delivery of the Biosecurity Workforce」 등을 기초로 ALIC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清浄国」を守る国家戦略: 豪州のバイオセキュリティ政策とその進化,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豪州, 2025년 10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24〉 DAFF의 바이오 시큐리티 업무 부문 배치 체제



주: 1) 2024년 7월 시점의 수치. 실제 직원수가 아닌 상시 환산(근무시간을 기초로 환산) 수치
 2) 몇몇 시점은 대략적으로 나타냄. 또한, 반올림 관계로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3) 검역담당자 취급자는 합계수만을 표시함. 또한, 시스템 담당의 합계수와 각 거점의 수치의 차는 불명확함.
 자료: ANANO, 「Delivery of the Biosecurity Workforce」를 기초로 ALIC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清浄国」を守る国家戦略: 豪州のバイオセキュリティ政策とその進化,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豪州, 2025년 10月号에서 재인용.

3.3. 자금 조달

2023/24년도 연방정부 예산⁷⁹⁾으로 도입된 ‘지속가능한 BS 자금 조달 패키지’는 BS 강화를 목적으로 4년 동안 10억 3,000만 호주 달러(1,041억 210만 엔, 9,824억 8,610만 원)을 확보하였다. 2027/28년도 이후에도 항구적으로 연간 2억 6,700만 호주 달러(269억 8,569만 엔, 2,546억 8,329만 원)의 예산 확보를 약속하고 있어, 그 예산 규모 측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패키지의 중요한 점은 BS 재원 다각화 방침에 있다. DAFF는 ‘리스크를 창출하는 것과 혜택을 받는 것이 응분의 부담을 하는 공평한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 수입업자의 수수료나 요금 인상, 2)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새로운 BPL(바이오 시큐리티 과징금) 도입에 의한 재원 확보안을 제시하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 패키지가 발표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었다. 때문에, 발표 후에는 국제 이커머스 수요 확대 등에 대한 대응으로 1,000 호주 달러(10만 1,070엔, 95만 3,870원) 이하의 소액 화물에도 통관 수수료가 부과되게 되었다(표 9).

〈표 9〉 주요 바이오 시큐리티 관련 수수료·요금 인상

개시일	적용 대상
2018년 10월 1일	자동통관처리 시스템(AEP)의 엔트리로 도입 금액: 동 시스템에 의한 신고 1건당 18호주 달러
2018년 4월 1일	선박의 도착료 인상(발라스트(ballast) 수(水) 리스크 관리 강화) 금액: 도착료(25M 이상의 선박) 720호주 달러 → 920호주 달러
2020년 1월 1일	신고료 및 도착료 인상(BS 전체의 강화) 금액: 수입신고료(항공) 33호주 달러 → 38호주 달러 수입신고료(선박) 42호주 달러 → 49호주 달러 도착료(25m 이상의 선박) 920호주 달러 → 1,054호주 달러 도착료(25m 이하의 선박) 100호주 달러 → 120호주 달러
2023년 1월 16일	해상화물 수입신고료 인상(병충해 리스크 관리 강화) 금액: 신고 1건당 49호주 달러 → 58호주 달러
2024년 10월 1일	저가격상품에 대한 통관수수료 적용(E-커머스 수요 대응) 금액: 신고 1건당 36호주 달러

주: 1) 저가격상품이란 1,000호주 달러 이하의 소액화물을 말함. 주로 개인 수입품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함.

2) AEP란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자주적으로 리스크 평가와 신소를 한 것을 허가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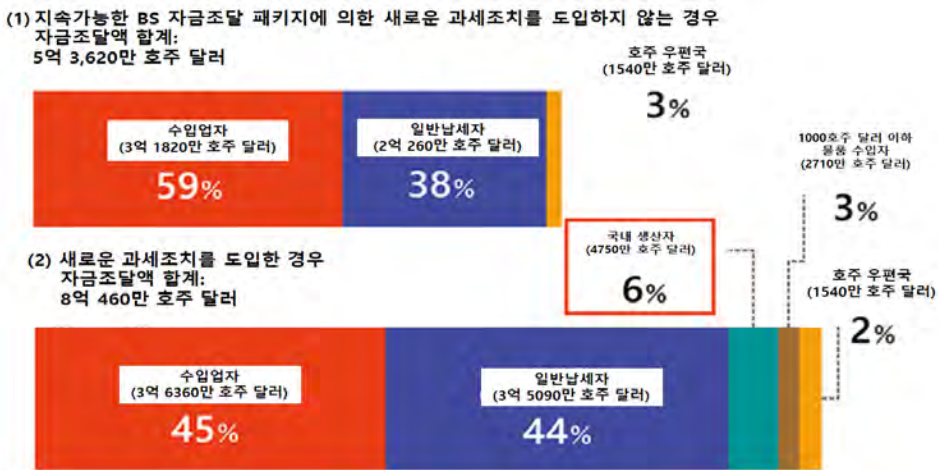
자료: DAFF, 「Biosecurity Cost Recovery Implementation Statement」를 기초로 ALIC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清浄国」を守る国家戦略: 豪州のバイオセキュリティ政策とその進化, 「畜産の情報」海外情報 豪州, 2025년 10月号에서 재인용.

79)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축산업진흥기구, 「バイオセキュリティを中心とした2023/24年度予算案などを発表(豪州)(바이오 시큐리티를 중심으로 한 2023/24년도 예산안 등을 발표(호주))」,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3년 6월 27일 게재(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3559.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새로운 BPL의 도입에 대해서는 2024년 5월에 각 품목의 총생산액 비율에 근거하여 징수액을 산정한다고 하는 안⁸⁰⁾이 제시되어 연간 5,180만 호주 달러(52억 3,543만 엔, 494억 1,047만 원)의 세수가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와 야당의 반발로 2025년 2월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당초, 동 패키지로 제시되어 있던 자금 조달(안)에서는 이 BPL에 의해 필요한 BS자금의 6%분을 커버할 예정이 되어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금 조달의 대체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그림 25).

〈그림 25〉 바이오 시큐리티 자금의 새로운 조달안(2024/25년도)



주: 그림 중의 수치는 2023년 5월에 2023/24년도 예산안이 발표된 시점에 추정된 것을 나타내는 것임.
 자료: DAFF의 공식발표자료 등을 기초로 ALIC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清浄国」を守る国家戦略: 豪州のバイオセキュリティ政策とその進化, 「畜産の情報」海外情報 豪州, 2025년 10月号에서 재인용.

야당은 이전부터 지속가능한 BS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화물용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새로운 과세조치를 도입하여 수입업자에 대한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하지만 현 정부는 업계에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조하며,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양돈·양계단체의 각 담당자에 따르면, 1) 하나같이 정부와 업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있었던 점, 2) 업계의 BS에 대한 공헌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 3) 국경 조치뿐만 아니라 농장에서의 지원을 바라는 소리가 무시되고 있다

80)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농축산업진흥기구, 「豪州政府, バイオセキュリティ課徴金導入の具体案を発表(豪州) (호주 정부, 바이오 시큐리티 과징금 도입의 구체안을 발표(호주)),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4년 5월 15일 게재,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3804.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는 점 등이 반대 요인이라고 말하였다.

DAFF가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BS 자금 조달의 본연의 자세를 근거로 하면, 야당 안과 같이 수입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성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방정부의 대응에 따라 호주 BS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4. 요약 및 시사점

이 글에서는 호주의 농업 현황과 더불어 식량작물 부문의 현황과 2025/26년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호주가 어떻게 외부로부터의 병원균 및 바이러스 침입에 대응하고 있는지 즉 바이오 시큐리티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호주 농업 생산의 특징은 1) 농업 생산 총 가치 상승, 2) 농업 생산의 증가, 3) 농장 수 감소와 전문화의 진전, 4) 생산성 둔화, 5) 농업 생산량의 약 70%를 수출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호주 농업의 주요 이슈로써 1) 바이오 시큐리티 2) 고용의 중요성과 연중 다양성, 3) 탄소 배출량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증가, 4) 장기적으로 기후 변동성은 대규모 농장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5) 최근 농업 소득의 급속한 성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2025/26년도 호주 곡물 생산에 대해 전망하였다. 호주의 겨울작물 생산량은 2025/26년도에 10% 증가하여 6,63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10년 평균인 4,920만 톤보다 35% 높은 수치이다.

2025/26년도 여름작물 생산량은 440만 톤으로 전년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10년 평균인 380만 톤보다 18%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26년도 여름작물의 재배면적은 6% 감소한 130만 ha로 예상되며, 이는 주로 쌀과 면화에 심어진 면적의 감소를 반영한다.

3장에서는 바이오 시큐리티 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호주의 BS 시스템은 해외, 국경, 국내에서의 방역조치로 구성된 다층 구조로, 연방정부, 주정부, 산업계, 업계단체, 연구기관, 원주민 커뮤니티, 개인 등의 관계자간의 협력관계 하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정리되어 있다.

2022년에 공표된 ‘국가 바이오 시큐리티 전략(NBS)’은 BS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법

적 틀, 전략, 협정, 업계 계획과의 정합성을 취하면서 수립된 최초의 국가 지침이다. 2032년까지 10년간 호주가 목표로 해야 할 BS 강화의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6개의 우선 분야마다 중장기적인 목표와 함께 설정되어 있다.

2016년에 시행된 연방법인 바이오 시큐리티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2022년의 개정에서는 BS 상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이 개인의 입국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아울러, NBS 수립 후인 2023년에는 재판소가 부과할 수 있는 각 위반 항목의 최대 벌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호주 DAFF는 BS 시스템 관리와 추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DAFF는 주정부·지방자치체, 업계단체 등과 제휴하여 인근 국가와의 협력 체제와 방역 관리 조치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6월 30일 시점 DAFF의 직원수 5,888명 중 최대 규모인 바이오 시큐리티·운용·컴플라이언스 그룹 중 ‘업무부문’ 및 ‘격리 검역시설’에 소속된 직원이 직접적인 검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같은 부문·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상근 환산으로 약 1,700명이 국내의 공항이나 항만 시설 등에 배치되어 있다. DAFF는 BS 강화 대응의 일환으로서 같은 부문·시설을 중심으로 인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계 대학과 제휴한 BS 트레이닝 코스 확충과 BS 관련 직원의 캐리어 패스 제도 정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2023/24년도 연방정부 예산으로 도입된 ‘지속가능한 BS 자금 조달 패키지’는 4년 동안 10억 3,000만 호주 달러, 2027/28년도 이후도 항구적으로 연간 2억 6,700만 호주 달러의 예산 확보를 약속하고 있다.

이 패키지의 중요한 점은 BS 재원 다각화 방침을 나타냈다는 데 있다. DAFF는 ‘리스크를 창출과 혜택을 받는 쪽이 응분의 부담을 하는 공평한 구조’를 목표로 하여, 1) 수입업자의 수수료나 요금 인상, 2)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새로운 BPL 도입에 의한 재원 확보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금 조달의 대체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을 통해 호주의 BS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진전됨과 동시에 연방정부와 업계의 연대에 의한 추진체제 하에서 각 섹션에서 적극적인 BS 강화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호주의 강력한 바이오 시큐리티 시스템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무역이나 관광 등 폭넓은 경제 분야에 공헌하는 국가의 강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바이오 시큐리티를 추진하는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 시큐리티 비용의 새로운 부담(안)을 둘러싸고 생산자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

는 등 호주의 국가전략은 수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이오 시큐리티를 강화하여 나가기 위하여 호주 정부와 각 업계가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국경조치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의 BS 강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전략은 ‘청정국’ 지위 유지가 사회에 주는 혜택에 대한 이해가 널리 보급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BS 강화를 향한 새로운 비용 부담 제안은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어, 높아지는 병원체의 침입·확산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과제를 남기는 결과가 되고 있다.

또, 2025년 7월 미국과의 관세 조치를 둘러싼 무역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호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했을 때는 호주가 지켜야 할 바이오 시큐리티 시스템이 협상 재료로 이용되었다며, 업계의 비난이 쏟아졌다. 다층적인 호주의 BS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호주 정부는 어려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높아지는 병원체의 침입·확산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본연의 자세는 공통되는 테마라고도 할 수 있다. 호주 BS 시스템의 특징과 실태에 관한 이 글이 일본이나 한국 관계자들이 BS 강화를 검토하는 데 일조하고, 축산업계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록 1〉 바이오 시큐리티 트레이닝 센터의 대응

〈부록 1 그림〉 바이오 시큐리티 트레이닝 센터의 제공 코스



자료: Biosecurity Training Centre 공표자료 등을 기초로 ALIC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清浄国」を守る国家戦略: 豪州のバイオセキュリティ政策とその進化,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豪州, 2025년 10月号에서 재인용.

DAFF는 NBS의 우선 분야 중 하나인 '고도의 스킬을 가진 인재 확보'의 대응으로 2022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계 대학인 찰스 스타트 대학과 제휴하여, '바이오 시큐리티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주로 DAFF의 BS 관련 직원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 코스를 제공하고 있어, 호주의 BS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호주 수도 캔버라에 있는 이 대학 새틀라이트 오피스를 방문하여, 이 센터 책임자인 맥케이 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1) 세분화된 트레이닝 코스

동 센터에서는 기본이 되는 신규 채용자 전용인 5일간의 트레이닝 코스를 시작으로, 관공서 직원의 Australia Public Services(APS)에 근거하는 계급에 따라 10개 과목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칼럼 1-그림). 맥케이 씨에 따르면, 코스는 대면 또는 온라인 형식으로 개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의 DAFF 직원이 수강하고 있다. 또, 특정 요구에 대응한 특별 코스 제공도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의 시찰단에 대해, 호주의 BS 시스템을 배우는 코스를 개강한 경험이 있다. 흥미가 있다면,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관계자도 환영한다고 한다.

2) 국제 능력개발 프로그램

이 센터의 또 하나의 큰 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BS 레벨의 향상이 있다.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의 국경 조치를 실시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BS의 규제 골조, 호주의 BS 시스템, 병원체 침입·확산 리스크 분석 등을 배우는 특별 연수 프로그램을 개강하였는데, 맥케이씨가 강사를 맡았다(부록 1-사진). 그는 "인근 국가와의 협력이 BS 강화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은 업계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DAFF로부터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상국 확대를 포함하여 이 프로그램 확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부록 1 사진〉 동 프로그램의 강의 모습



〈부록 2〉 국경에서 스톱! 검역 탐지하는 영웅들

호주 검역 탐지견 시스템

호주에서는 1992년에 처음으로 검역 탐지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검역탐지견은 여객의 수하물이나 국제 우편물 등에서 동식물 검역검사를 필요로 하는 육제품, 과일 등을 냄새로 가려 발견하는 훈련을 받은 개이다. 수입금지품을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발견함으로써 구제역을 비롯한 호주에서 미발생 질병이나 외래종이 육류 제품이나 과일 등을 통해 본국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검역탐지견은 호주국경경비(Australian Border Force)의 전용시설에서 번식 육성이 이뤄지며, 견종은 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가 사용되고 있다. 높은 집중력과 작업 의욕을 가진 개가 선정되어, 트레이너의 8주간 전문 훈련, 12주간의 현장실습 등을 거쳐 정식 검역탐지견으로 데뷔하였다. 68년여의 현장 활동을 통해 9,000여 건의 수입금지품을 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부록 2-그림).

연방 정부는 2022년 10월 1,170만 호주 달러(11억 8,252만 엔, 111억 6,028만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검역탐지견과 핸들러 육성·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경조치 검역탐지견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2023/24년도에는 우편시설, 공항, 항구에 배치된 검역탐지견이 4만 2,000건이 넘는 바이오 시큐리티상의 리스크가 되는 항목을 탐지하여 미연의 방위에 공헌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62마리의 검역 탐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록 2 그림〉 나는 검역탐지견이 될거야!



자료: Australian Border Force 웹사이트 등을 기초로 ALIC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清浄国」を守る国家戦略: 豪州のバイオセキュリティ政策とその進化, 「畜産の情報」海外情報 豪州, 2025년 10月号에서 재인용.

공항에서의 벌금

벌금은 '페널티 유닛'이라는 단위로 계산되어, 2024년 11월 7일 이후, 1유닛당 330 호주 달러(3만 3,353 엔, 21만 4,777원)로 정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부록 2-표).

〈부록 2 표〉 매 위반의 벌금액

위반 내용	페널티 유닛	벌금액	주요 대상 예
경미한 위반 (신고누락 등)	2유닛	660호주 달러	식품, DDIR, 종자 등 기입 누락
고 리스크 물품 미신고	6-12유닛	1,980-3,960호주 달러	미가공 육류, 과일, 식물, 계란, 종자 등
의도적 은폐(소지)	20유닛	6,600호주 달러	금지된 물품 은폐(고기, 채소, 봉밀 등)

자료: DAFF 웹사이트를 기초로 ALIC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清浄国」を守る国家戦略: 豪州のバイオセキュリティ政策とその進化, 「畜産の情報」海外情報 豪州, 2025년 10月号에서 재인용.

과거의 중대한 위반 사례로서, 2023년 5월, 서부의 퍼스 국제공항에서 약 1.8킬로그램의 돼지고기 소시지와 360그램의 '당나귀 유래 글루텐'을 미신고로 반입한 여행자에 대하여, 바이오 시큐리티법 위반으로 10유닛, 3,300 호주 달러(33만 3,531엔, 314만 7,771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비자도 취소되었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563>)

김상현, 'WTO, 호주 농산물 무역정책 검토',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07년 4월 13일 게시
(www.kati.net/file)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https://www.chungbuk.go.kr/ilvr/>)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sites/home/index.do>)

네이버 지식인, <https://search.naver.com/>)

위키백과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

농축산업진흥기구, 「清浄国」を守る国家戦略: 豪州のバイオセキュリティ政策とその進化(청정 국가를 지키는 국가전략: 호주의 바이오 시큐리티 정책과 그 진화), 「畜産の情報」海外情報 豪州, 2025년 10月号

농축산업진흥기구, '家畜疾病等の諸課題に向け「国家バイオセキュリティ戦略」等を策定(豪州) (가축질병 등 여러 과제를 위한 국가 바이오 시큐리티 전략 등을 수립(호주)), 「畜産の情報」海外情報,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3385.html)

농축산업진흥기구, '口蹄疫対策として300万回分のワクチン接種などを実施(インド네시아) (구제역 대책으로서 300만 회 분의 백신 접종 등을 실시(인도네시아))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2년 9월 13일 게재,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3361.html)

농축산업진흥기구, 'バイオセキュリティを中心とした2023/24年度予算案などを発表(豪州) (바이오 시큐리티를 중심으로 한 2023/24년도 예산안 등을 발표(호주)),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3년 6월 27일 게재(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3559.html)

농축산업진흥기구, '豪州政府, バイオセキュリティ課徴金導入の具体案を発表(豪州) (호주 정부, 바이오 시큐리티 과징금 도입의 구체안을 발표(호주)),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4년 5월 15일 게재,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3804.html)

ABARES, 「crop report 2025년 12월호

ABARES, Financial Performance of cropping farms

ABARES 2024a, *Agricultural Commodities: December quarter 2024*,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DOI:

ABARES 2024b, *Catchment Scale Land Use of Australia - Update December 2023 version 2*,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DOI:

ABARES 2024c, *Agricultural Commodities: June quarter 2024*, Australian Bureau of

-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DOI:
 ABARES 2024d, *Agricultural Commodities: September quarter 2024*,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DOI:
 ABARES 2024e,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in Australia –
 2023-24 update*, viewed on 23/01/2025 from
 ABARES 2024f, *International farm emission intensity statistics*,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ABARES forthcoming, *Labour use in Australian agriculture: Analysis of survey results,
 2023-24*,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ABARES, Australian Agricultural and Grazing Industries Survey
 ABS, Agricultural Commodities, Australia
 ABS 2021-22. *Agricultural Commodities,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ABS 2023a, *Value of Agricultural Commodities Produced,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ABS 2023b, *Water Account,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ABS 2024a, *Australian Agriculture: Livestock,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ABS 2024b,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ABS 2024c,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ustralia,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ABS 2024d, *Labour Force, Australia, Detailed,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ABS 2024e, Labour Force, Australia, Detailed,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accessed 8 January 2025.
 ABS 2024f, Labour Account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accessed 8 January 2025.
 ABS 2025,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berra.
 ABS, Agricultural Commodities, Australia
 AgriFutures 2022, A farmer's handbook to on-farm carbon management, Publication
 no. 22-054.

- ANANO, 「Delivery of the Biosecurity Workforce」
- Ashton, D, Welsford-Brink, Q and Ryder, J 2024a, *Financial performance of cropping farms: 2021-22 to 2023-24*, ABARES, Canberra, July, DOI:
- Australian Government, Catchment scale land use of Australia-Update December 2020
-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Delivery of the Biosecurity Workforce」
- Black, JL, Davison, TM & Box, I 2021, Methane Emissions from Ruminants in Australia: Mitigation Potential and Applicability of Mitigation Strategies, *Animals*, vol. 4, no. 1, DOI:
- Cameron, A 2017, 'Share of agricultural production exported', in *Agricultural commodities: ABARES 2017, Agricultural commodities: December quarter 2017*.
- Cao, LY, Burns, K & Greenville, J 2023, Reforming agricultural markets to support emissions reductions,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DOI:
- Capel, L 2024, Defining the agricultural workforce, ABARES research report,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Canberra, February, DOI: Change Authority, Canberra.
- Chancellor, W. & Boulton, C. 2024, Australia's farm productivity slowdown - why it matters, and what it means for policy makers, ABARES Insights, Canberra, July. CC BY 4.0 DOI:
- Coelli, R 2021,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Drought Resilience - survey of farm practices, ABARES research report 21.12, Canberra, DOI:
- DAFF, 「Agricultural Commodities Report」, December quarter 2025, Research by the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Volume 15, Issue 4, December 2025
- DAFF, 「Annual Report」
- DAFF, 「ABARES Insights Snapshot of Australian Agriculture 2025」 ISSUE 1 | February 2025
- DAFF, Australian milk residue analysis survey.
- DAFF, 「Biosecurity funding expenditure report 2023/24」
- DAFF 홈페이지 중 부담금 관련 부분, <https://www.agriculture.gov.au/agriculture-land/farm-food-drought/levies/about-levies>)
- DAFF, 「Biosecurity Cost Recovery Implementation Statement」
- DAFF, National Feral Pig Action Plan 2024 Year in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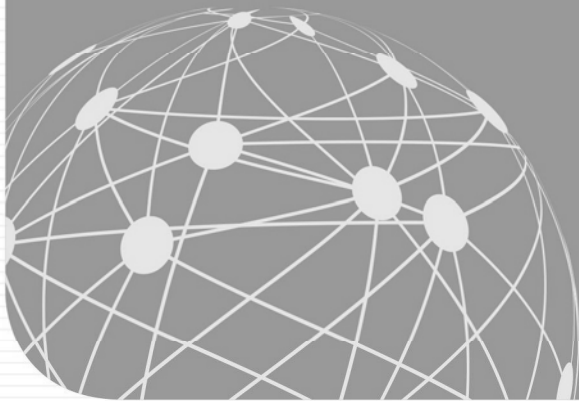
- DAFF홈페이지,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before/prepare/treatment-outside-australia/AusTreat>)
- DCCEEW 2024a, Australia's National Greenhouse Accounts,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Canberra
- DCCEEW 2024b, Australia's emissions projections 2023,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Canberra.
- Dodd, A., Stoeckl, N., Baumgartner, J., & Kompas, T. (2020). Key result summary: Valuing Australia's biosecurity system. *Centre of Excellence for Biosecurity Risk Analysis (CEBRA) Report*.
- FAO, Australian Agricultural and Grazing Industries Survey, 2016 (https://www.fao.org/fileadmin/templates/ess/ess_test_folder/World_Census_Agriculture/WCA_2020/WCA_2020_new_doc/AUS_REP_ENG_2015_2016.pdf)
- Fell, J, Liangyue, C, Burns, K & Greenville, J 2022, Emissions, agricultural support and food security, ABARES Insights, Issue 6, Canberra,
- Greenville, J and Cameron, A 2022 ABARES Insights: Where to next for Australian agriculture? ABARES Insights, Canberra, DOI:
- Hughes, N, Galeano, D & Hattfield-Dodds, S (2019), The effects of drought and climate variability on Australian farms, ABARES, Canberra, DOI:
- Hughes, N & Gooday, P 2021,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on Australian farms, ABARES Insights, Canberra, DOI:
- Hughes, N, Lu, M, Soh, W Y, & Lawson K 2022a, Modelling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profitability of Australian farms, *Climatic Change*, vol. 172, DOI:
- Hughes, N, Soh, W Y, Lawson, K, & Lu, M 2022b,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micro-simulation models with machine learning: The case of Australian farms, *Economic Modelling*, Volume 115, DOI:
- IPCC 2022,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KPMG, 2022, The time is now: The Australian Agricultural Sustainability Framework (AASF) and its role in sustainable supply chains.
- McKinsey & Company 2020,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Reducing emissions through improved farming practices.
- National Biosecurity Committee, 「National Biosecurity Strategy」
- OECD 2023,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3,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2024a,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Database 2024,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2024b,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4,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Topp, V, Ryder, J and Ashton, D 2024, Financial performance of dairy farms: 2021-22 to 2023-24, ABARES, Canberra, October, DOI:
- WEF 2023, Emissions Measurement in Supply Chains: Business Realities and Challenges, World Economic Forum.

호주 기상국(BOM)

Part 3.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해외곡물시장 뉴스 – 로이터 125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박도연*

1. 해외곡물시장 1월 주요 뉴스 – 로이터(Reuters)

1.1. 프랑스, 농민들의 메르코수르 반대 속에 식품 수입 검사 강화(France tightens checks on food imports amid farmers' Mercosur opposition) – 2026.1.5.

프랑스 정부는 일요일,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들과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식품 수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농민들은 유럽연합(EU)과 남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유럽 무역협정 추진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왔으며, 이와 함께 가축 질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팜유 재고, 생산량 증가로 7년 만에 최고치 근접(PREVIEW–Malaysia's palm oil stocks likely hit near 7-year high on strong output)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12월 팜유 재고가 거의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수출의 소폭 개선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로이터가 조사한 10명의 트레이더, 재배업자 및 애널리스트의 중위값을 집계한 결과, 말레이시아의 12월 팜유 재고는 11월 대비 4.7% 증가한 297만 톤으로 2019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dypark@krei.re.kr

1.2. 중국, 미국산 대두 추가 구매로 총 구매량 1,000만 톤 근접(China buys more US soybeans, total purchases approach 10 million tons) – 2026.1.7.

로이터가 화요일 인용한 트레이더 3명에 따르면, 중국 국영 비축기관 시노그레인이 이번 주 미국산 대두 화물 10건을 추가로 구매했다. 이는 10월 말 미·중 무역 휴전 이후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레이더들에 따르면, 이번에 구매된 물량은 총 약 60만 톤 규모로, 3~5월 선적분이다. 이 시기는 경쟁 공급국인 브라질의 대두 출하가 가장 집중되는 성수기이기도 하다.

EU, 메르코수르 협정 지지 확보 위해 농업장관 소집(EU summons farm ministers to secure Mercosur deal support)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화요일,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논란 많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이탈리아의 핵심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에 따라 EU는 이르면 다음 주 협정 서명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지난달, 메르코수르산 쇠고기 및 설탕 등 저가 농산물 유입에 대한 농가들의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협정을 지지할 수 없다며 12월 타결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던 바 있다.

1.3. 미국 경쟁으로 2026년 브라질 대두에 대한 중국 수요 감소 전망(US competition to dent Chinese demand for Brazil's soy in 2026, trade group says) – 2026.1.8.

곡물 트레이더 단체 ANEC의 대표 세르지오 멘데스는 중국의 올해 브라질산 대두 수요가 미국산 대두 수출로 인해 일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멘데스 대표는 화상 인터뷰에서 브라질 대두 무역업체들이 2026년 중국에 7,700만 톤의 유지종자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 대비 1,000만 톤 감소한 수치라고 전했다.

EU,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타결 위해 비료 관세 인하(EU to cut fertiliser duties to push through Mercosur trade deal)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수요일,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일부 비료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

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일시적 적용 유예를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양보안은 독일과 스페인 등의 지지를 받는 집행위원회가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 회원국의 찬성을 확보해 메르코수르 협정 서명을 승인받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1.4. 인도 쌀 수출, 수출 규제 해제 후 2025년 사상 최고치 근접(India's 2025 rice exports surge to near record as curbs lifted) – 2026.1.12.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로이터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인도 쌀 수출이 지난해 19.4% 급증하며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도가 모든 수출 규제를 해제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결과이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의 수출 증가로 태국과 베트남의 수출을 압박했고, 아시아 쌀 가격을 약 1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려 아프리카 등 지역의 저소득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USDA, 주요 작황 보고서에서 미국 대두 수출 전망 하향 가능성 (PREVIEW-USDA may trim US soy export outlook in key crop reports, analysts say)

곡물 분석가들은 미국 농무부(USDA)가 월요일 발표할 예정인 주요 작황 보고서에서 중국 수출 감소로 인한 현 작기 미국 대두 수출 수요에 대한 일부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건조한 가을 날씨의 영향으로 미국의 옥수수과 대두 수확량 추정치 역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남미의 대규모 수확이 임박해 전 세계 공급은 여전히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4~5월 선적분 미국산 대두 최소 10척 구매(China buys at least 10 cargoes of US soybeans for April-May shipment, traders say)

트레이더 3명에 따르면,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국영 비축기관 Sinograin이 금요일 미국산 대두 최소 10선적(최소 60만 톤)을 4~5월 선적분으로 구매했다. 이들에 따르면, 금요일에 계약된 물량 중 최소 8척은 미국 걸프만 수출 터미널에서 선적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태평양 북서부에서 선적될 예정이다.

곡물 터미널 그룹 Senalia, 2025/26 시즌 선적 물량 두 배 증가 전망(Grain terminal group Senalia expects doubling of shipments in 2025/26)

곡물 수출 터미널 운영사 Senalia는 금요일, 프랑스의 수확량 회복과 보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5/26 시즌 수출량이 전 시즌 대비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최대 곡물 공급국이며, 노르망디 센강 연안의 루앙(Rouen) 항은 프랑스의 핵심 곡물 수출 허브이다. 앞서 비 피해를 입은 2024년 수확으로 수출 잉여 물량이 줄어들면서, 해당 시즌 동안 항만 터미널이 일정 기간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1.5. USDA, 대규모 수확으로 12월 1일 기준 옥수수 재고 사상 최고치 기록 (US corn stocks set December 1 record after huge harvest, USDA says) – 2026.1.13.

미국 농무부(USDA)는 월요일, 12월 1일 기준 미국 농가와 곡물 기업이 보유한 옥수수 재고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배 농가들이 당초 예상보다도 더 큰 규모의 기록적인 옥수수 수확을 거둔 데 따른 결과이다. USDA가 발표한 예상을 웃도는 재고 및 생산량 수치는 낮은 곡물 가격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농업 경제가 압박을 받아온 가운데, 미국 농가들이 앞으로도 재정적 부담을 계속 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됐다.

말레이시아, 2026년 초 폐식용유 공식 기준가격 도입 예정(Malaysia to introduce official used cooking oil reference price in early 2026)

말레이시아는 폐식용유(used cooking oil) 시장의 가격 조작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2026년 1분기 중 공식 기준가격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노라이나 아흐마드 말레이시아 농업상품부 장관이 화요일 밝혔다. 노라이나 장관은 한 산업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기준가격이 폐식용유 거래의 가격 가이드 역할을 수행해 공정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농민들, 메르코수르 반대 시위 속 식품 수입 겨냥(French farmers target food imports as Mercosur protests continue)

프랑스 농민들은 월요일, 프랑스 최대 컨테이너 항만과 파리 북쪽 주요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세우고 수입 식품에 대한 상징적 검사를 실시하며,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의했다. 유럽연합(EU) 최대 농업 생산국인 프랑스의 농민들은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 블록과의 무역협정 추진을 포함한 여러 불만 사항을 이유로 수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6. 중국, 남미산 구매 급증으로 2025년 대두 수입량 사상 최대(China's 2025 soybean imports hit record, fuelled by S. American purchases) – 2026.1.14.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남미산 대두 구매를 대폭 늘리며 2025년 대두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의 2025년 대두 수입량은 1억 1,183만 톤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중국, 가격 하락에 호주·아르헨티나산 밀 수입 확대(China boosts wheat imports from Australia, Argentina on lower prices)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와 아르헨티나는 12월에 중국으로 약 62만 톤의 밀을 수출했으며, 분석가와 무역업자들은 중국 구매자들이 낮은 글로벌 가격을 활용하면서 이러한 선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12월 중국으로의 수출량은 호주산의 경우 2024년 4월 이후 최대 규모이며, 아르헨티나산은 1997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1.7. 브라질 열대우림 보호 협정 무산 속 글로벌 곡물 업체들의 친환경 약속에 회의론 제기(ANALYSIS-Global grain traders' green pledges face skepticism as deal to protect Brazil's rainforest unravels) – 2026.1.15.

환경 단체들은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20년간 유지되어 온 기업 간 합의가 무산된 가운데, 브라질에서 최근 산림이 훼손된 토지에서 재배된 작물을 구매하지 않

겠다는 글로벌 곡물 거래업체들의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곡물 거래업체들은 브라질 최대 농업 주인 마토그로소주의 지방 의원들이 열대우림을 개간해 대두를 재배한 농가로부터 대두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기업들에 대해 세계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자 아마존 대두 모라토리엄(Amazon Soy Moratorium)에서 이탈했다.

프랑스 농업청, EU 외 밀 수출 전망 하향 조정 및 EU 역내 출하 상향(France AgriMer cuts non-EU wheat export forecast and raises EU shipments)

프랑스 농업청 FranceAgriMer는 수요일, 2025/26 시즌 프랑스산 연질밀의 EU 외 수출 전망을 750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예상치인 760만 톤에서 소폭 낮춘 수치이지만, 2024/25 시즌 출하량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한다. 수급 전망에서 FranceAgriMer는 또한 2025/26 시즌 프랑스산 연질밀의 EU 역내 출하 전망을 기존 739만 톤에서 751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지난 시즌 680만 톤 대비 증가한 수치이다.

1.8. 팜유 가격, 공급 증가와 바이오연료 수요 부진으로 2026년 평균 하락 전망(Palm oil prices to average lower in 2026 on higher supply, weak biofuel demand) – 2026.1.19.

로이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요 생산국들의 공급 증가와 바이오연료 수요 부진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가해지면서 말레이시아산 원유 팜유 선물 가격이 2026년에 전년 보다 소폭 낮은 수준에서 평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4명의 트레이더, 애널리스트 및 업계 관계자들의 중간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기준 팜유 가격은 톤당 4,125링깃으로 2025년 대비 2.55% 하락할 전망이다.

그리스 쌀 농가들, 메르코수르 협정으로 가격 경쟁력 상실 우려(Greek rice growers fear Mercosur deal will price them out of business)

그리스 북부의 쌀 재배 농가들은 비 EU 수출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2026년을 힘든 한 해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럽연합(EU)과 남미 메르코수르(Mercosur) 주요 국가들 간의 논란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농가를 사실상 도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 유럽 내 세 번째 쌀 생산국인 그리스는 연간 약 24만 톤의 벼 생산량 대부분을 유럽과 터키로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 해상 곡물 수출, 12월에 전년 대비 4.4% 증가(Russia's seaborne grain exports rose 4.4% in December)

금요일 공개된 업계 선박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12월 해상 곡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해 470만 톤에 달했다. 지난 시즌 러시아 전체 곡물 수출의 약 90%가 해상 수출을 통해 이루어졌다.

1.9. 미국 농업 경제, 비용 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균열 확대(US farm economy shows widening cracks as costs rise, jobs vanish) – 2026.1.16.

미국 전역의 농업 지대에서는 우울한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가들은 낮은 농산물 가격과 높은 비용이 지속되는 한 해를 맞으며, 경영을 어떻게 이어갈지, 혹은 계속할 수 있을지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은행들은 농가들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일부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한편, 육류 가공 공장의 폐쇄와 농기계 제조업체들의 생산 축소로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달러 매장에 팔리지 않은 채 쌓여 있는 트랙터, 수익 감소를 보고하는 농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곡물 공급 과잉이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미국 농업 경제의 균열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브라질 Conab, 새 전망에서 대두 생산 사상 최대치 확인(Brazil's crop agency confirms record soybean crop in new estimate)

브라질 농산물청 Conab는 목요일, 2025/26 마케팅 연도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1억 7,612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이번 수정 전망치는 지난 12월 제시한 전망치보다 100만 톤 낮은 수치로, Conab는 올해 대두 단수가 헥타르당 3,619kg으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엑스파나, 2025/26 시즌 EU 연질밀 수출 전망 하향 조정(Expana cuts EU soft wheat export forecast for 2025/26)

컨설팅업체 엑스파나는 2025/26 시즌 유럽연합(EU)의 연질밀 수출 전망치를 지난 달 제시한 3,000만 톤에서 2,880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치는 수요 약화와 제3국으로의 수출 감소세를 반영한 것으로 프랑스만이 주요 수출국 중 유일하게 전망치가 변동 없는 상태이다.

1.10. 중국 수입업체, 캐나다산 카놀라 구매로 호주 수출 기대감 꺾여 (EXCLUSIVE—Chinese importer buys Canadian canola, denting Australian export hopes) – 2026.1.20.

트레이더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의 한 수입업체가 지난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베이징 방문 직후 캐나다산 카놀라 한 선적을 구매했다. 이는 캐나다 농가의 수출 전망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 공급국인 호주의 판매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두 트레이더가 월요일 로이터에 밝힌 바에 따르면, 약 6만 톤 규모의 캐나다산 카놀라 파나마스 선적은 중국이 지난 10월 수입을 중단한 이후 첫 거래로, 3월 이후 출하될 예정이다.

2025년 미국, 중국 대두 시장 점유율 남미에 밀려(US lost soybean market share in China to South American supplies in 2025)

중국 세관총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중국 대두 시장 점유율은 전년 21%에서 15%로 하락했다. 이는 9월 이후 선적이 중단되고 구매자들이 남미 공급처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브라질의 중국 대두 시장 점유율은 2024년 71%에서 2025년 73.6%로 상승했으며, 아르헨티나 역시 4%에서 7%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감소로 러시아산 밀 수출 가격 상승(Russian wheat export prices up on reduced supply, analysts cut January estimates)

분석가들에 따르면, 흑해 지역의 공급이 제한되고 수입국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러시아산 밀 수출 가격이 지난주 상승했다. 다만 항만의 악천후로 선적이 지연되면서 1월 수출 물량 전망은 하향 조정됐다. 러시아 농업 컨설팅업체 IKAR의 드미트리 릴코

대표에 따르면, 단백질 함량 12.5% 러시아산 밀의 2월 하반기 선적분 FOB 가격은 톤당 227.50달러로, 1월 13일 대비 2.50달러 상승했다.

1.11. 러시아의 항만 공격과 수요 부진 속 우크라이나 밀 수출 부진 지속 (Ukraine wheat exports remain low amid Russian attacks on ports, weak demand) – 2026.1.22.

우크라이나 곡물 트레이더 연합 UGA가 수요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해상 항만 공격과 해외 수요 부진으로 인해 1월 상반기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주요 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러시아, 해외 가공 사업 통해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Russia wants to boost agriculture exports through processing ventures abroad)

옥사나 루트(Oksana Lut) 러시아 농업부 장관은 수요일, 러시아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해외에 식품 가공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둔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지만 글로벌 곡물 가격 하락으로 밀 재배 수익성이 악화되고, 흑해 곡창지대의 가뭄이 겹치면서 지난해 곡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1.12. EU-메르코수르 협정, 3월부터 잠정 발효될 가능성(EXCLUSIVE-EU-Mercosur deal likely to take effect provisionally from March, says EU diplomat) – 2026.1.23.

EU 외교관은 목요일 로이터에 남미 국가들과의 EU 자유무역협정(EU-Mercosur)이 이르면 3월부터 잠정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EU 최고 법원에서의 법적 쟁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전망이다. EU 의원들은 수요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의 해당 무역협정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하면서 협정 발효가 최대 2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

브라질 사탕수수 농가, 작물 투자 축소(Brazil sugarcane farmers cutting back on crop investments, Orplana says)

브라질 사탕수수 재배자 단체 Orplana의 CEO 조제 노게이라는 설탕 가격 하락과 높은 생산 비용으로 인해 농가들이 사탕수수 재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게이라에 따르면, Orplana는 브라질의 주요 사탕수수 생산 지역에서 35개 재배자 협회, 약 1만 2,000명의 생산자를 대표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사탕수수 작물에 대한 지출을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3. 중국, 미국산 재유입에도 상반기 브라질산 대두 수입 확대 전망 (ANALYSIS—China to favour Brazilian soybean imports in H1 despite renewed U.S. inflows) – 2026.1.27.

중국은 미국산 대두 공급이 다시 유입되는 상황에서도 2026년 상반기에는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록적인 생산량과 경쟁력 있는 가격이 수출을 촉진하면서,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에서 남미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민간 대두 가공업체들은 수확이 본격화되면서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월부터 선적될 브라질산 대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무역 관계자들이 전했다.

흑해 항만 악천후 지속에 러시아산 밀 수출 가격 상승(Russian wheat export prices rise as bad weather persists at Black Sea ports)

흑해 항만의 악천후가 지속되면서 러시아산 밀 수출 가격이 2주 연속 상승했다고 애널리스트들이 전했다. 이 같은 기상 여건은 선적을 계속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컨설팅 업체 IKAR의 드미트리 릴코 대표에 따르면, 단백질 함량 12.5% 러시아산 밀의 3월 초 선적분 FOB 가격은 톤당 229.0달러로, 전주 대비 1.50달러 상승했다.

1.14. 중국, 마크 카니 총리 방중 이후 캐나다산 카놀라 추가 구매 (EXCLUSIVE—China buys more Canadian canola after Mark Carney visit) – 2026.1.28.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수입업체들이 이달 초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베이징 방문 이후 캐나다산 카놀라 최대 10척을 확보했다고 무역 소식통 2명이 전했다. 이는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한편, 경쟁 공급국인 호주의 수출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두 거래자에 따르면 캐나다산 카놀라는 2월부터 4월 사이에 선적될 예정이며, 각 선적량은 약 6만 5,000톤 규모이다.

러시아, 전통 수출국의 생산 확대 속 종자 시장 공략 나서(Russia targets seeds market as traditional export customers boost grains production)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로 곡물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자와 농업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옥사나 루트 농림부 장관이 화요일 밝혔다. 루트 장관은 러시아의 주요 밀 수입국인 이집트와 러시아산 종자와 기술을 활용해 현지 생산을 늘리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이미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1.15. 중국, 호주산 카놀라 화물 통관 승인으로 수개월간 지연 완화(China clears Australian canola cargo, easing months-long approval delays) – 2026.1.29.

두 무역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국 남부에 도착한 호주산 카놀라 화물 1건이 검역을 통과해 이번 주부터 분쇄 공장에서 가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승인으로 그간 이어졌던 통관 지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중국 국영 기업 COFCO는 8월 이후 호주산 카놀라 최소 9건(약 50만 톤)을 구매했다. 이는 2020년 안전성 우려로 중단됐던 수입을 재개한 이후의 거래이다.

우크라이나, 2026년산 유채 첫 잠정 가격 제시(Ukraine shows first indicative prices for 2026 rapeseed harvest, farmers union says)

우크라이나 농민연합 UAC은 수요일, 우크라이나의 2026년산 유채 신규 수확분에 대한 첫 잠정 가격이 흑해 항구 CPT(운임 포함) 기준 톤당 510~520달러 범위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는 1월 말 제시됐던 톤당 540~550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주요 유채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2024년에는 약 370만 톤을 수확했으나 2025년에는 불리한 기상 여건으로 수확량이 330만 톤으로 감소한 바 있다.

1.16. 중국-캐나다 합의 이후 호주산 카놀라, 중국 시장에서 위축됐으나 완전히 밀려나진 않아(Australian canola down but not out of China after Xi's deal with Canada) – 2026.1.30.

트레이더들과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중국과 캐나다 간 무역 합의로 호주가 중국의 주요 카놀라 공급국이 되려던 희망은 꺾였지만, 세계 최대 유지종자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호주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된 상태이다. 중국은 무역 갈등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캐나다산 카놀라 구매를 최근 2주 사이 재개했다.

2. 해외곡물시장 2월 주요 뉴스 – 로이터(Reuters)

2.1. 중국 ‘제1호 문서’, 곡물 안보·농업 기술 혁신 추진(China's ‘No. 1 document’ pushes grain security, agri-tech innovation) – 2026.2.4.

중국이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농촌 정책 청사진을 인용하여 곡물과 유지종자 생산을 안정화하고 농산물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농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국영 매체가 화요일 보도했다. 제1호 문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식량 공급국과의 무역 마찰, 국내 경제 둔화 및 기후 변화 문제 속에서 중국이 차기 5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가운데 발표되었다.

인도, 미·인도 무역협정에서 일부 농업 보호 유지...미국산 항공기·무기·에너지 구매(India to keep some farm protections in US trade deal, will buy US aircraft, arms, energy)

양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 농산물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농업 보호 조치는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간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무역협정의 윤곽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으로 인도의 미국산 공산품 관세가 약 13.5%에서 0%로 인하되고, 미국산 견과류·과일·채소·와인·증류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전했다.

2.2. 중국, 트럼프 달래기 위한 추가 미국산 대두 구매 시 더 높은 가격 부담 직면(China faces higher prices for further U.S. soybean buys to please Trump) – 2026.2.6.

중국의 대두 수입업체들은 미국산 대두 추가 800만 톤을 도입할 경우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해당 구매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현재 수출 성수기를 맞은 브라질산 대두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4월로 예정된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얻기 위한 카드로, 국영 곡물 기업들을 통해 구매를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초기 작황 데이터, 2026년 풍작 예고(Russia's early crop condition data signals good 2026 harvest)

드미트리 파트루세프 부총리는 5일 러시아 작물의 정상 상태 비율이 2월 5일 기준 97%로, 2025년 동기 87%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이번 수치가 2026년 작황이 양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2025년 수확기에 특히 주요 곡창지대인 남부 지역에서 극심한 기상 악화의 영향을 받아 생산에 차질을 겪은 바 있다.

2.3.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강타한 마르타 폭풍, 농작물에 치명적 피해 (Farmers report 'catastrophic damage to crops as Storm Marta hits Spain and Portugal) – 2026.2.9.

스페인 농민들은 토요일 폭우와 강풍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수백만 유로 상당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더 극심한 기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베리아 반도는 지난 몇 주간 폭우, 천둥, 눈,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토요일 폭풍 마르타가 상륙하기 전까지도 악천후가 계속됐다.

아르헨티나 농가, 비에 안도하지만 수확 위험은 여전히 우려("A blessing": Hopeful Argentine farmers greet rain with relief, but still worried about risks to harvest)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는 2025/26 시즌에 사상 최대 옥수수 수확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1월 일부 지역에서 섭씨 35도를 넘는 이상 고온과 강수 부족이 겹치면서 주요 농업지대 전반의 작황이 타격을 받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 거래소는 목요일 아르헨티나의 곡물 생산량 전망치를 기존 5,800만 톤에서 5,700만 톤으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급증으로 EU 보리 시장 활성화, 곡물 과잉 공급 완화(Export flurry boosts EU barley market to ease grain glut)

유럽연합(EU)의 보리 수출이 이번 시즌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해외 사료용 수요가 활발하고 흑해 지역과의 경쟁이 완화되면서, EU가 대규모 수확

물량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유럽산 사료용 보리에 대한 수요 급증은 글로벌 곡물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 농가 판매 둔화에도 2월까지 대두 수출 급증 전망(Brazilian soy exports to soar through February despite slow sales by farmers, analysts say)

분석가들과 선적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신규 대두 작물에 대한 농가 판매가 예년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2월까지의 대규모 수출이 제약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곡물 수출업체 단체인 Anec의 선적 일정에 기반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은 1~2월 동안 1,400만 톤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인도, 중국산 대두유 대비 할인된 팜유 가격으로 수요 회복 전망 (Indian demand for palm oil to rebound as prices at discount to Chinese soyoil, analysts say) – 2026.2.10.

분석가들은 월요일, 팜유 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인도의 팜유 수요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체유인 중국산 대두유와의 경쟁으로 성장세는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해 초 중국산 대두유 수출 급증으로 소비자들이 대두유로 대체하면서 인도 내 팜유 수요가 위축된 바 있다.

브라질 2025/26 대두 수확률 16% 도달(Brazil's 2025/26 soybean harvest reaches 16% of area, AgRural says)

농업 컨설팅업체 AgRural은 월요일, 브라질 농가의 2025/26 시즌 대두 수확이 지난 목요일 기준 전체 재배면적의 16%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며, 전년 동기 15%를 소폭 상회한다. AgRural은 마토그로소 주가 수확 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강한 비가 그친 틈을 타 수확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2.5. USDA, 옥수수 재배면적 대폭 수정 이후 신뢰도 타격(ANALYSIS—USDA's reputation suffers after massive revisions in US corn acres) – 2026.2.11.

미국 농무부(USDA)는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세계 작물 생산량 추정 기관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대규모 인력 감소와 함께 옥수수 수확 면적을 대폭 상향 수정하면서 농민, 곡물 트레이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의 농민, 트레이더, 식품 제조업체들은 가격과 재고를 예측하기 위해 생산, 공급, 수요에 관한 USDA의 월간 보고서를 면밀히 주시해 왔다.

물류 혼란 속 우크라이나 밀 수출 여전히 부진(Ukraine wheat exports remain low in the face of logistics strife, union says)

우크라이나 농민연합(UAC)은 화요일,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2월 들어 현재까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달 계약 물량 70만 톤 가운데 실제로 출하된 물량은 2만 7,000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6. 미국산 수입 허용에 인도 옥수수·대두 가격 하락(Indian corn, soybean prices fall as door opened to US imports) – 2026.2.12.

인도 정부가 미국과의 새 무역 협정에 따라 미국산 대두유와 고단백 사료의 관세 면제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저가 공급 확대에 대한 농가 우려가 커져 수요 일 인도 옥수수 및 대두 가격이 하락했다. 저렴한 미국산 농산물 유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농민단체와 야당은 목요일 전국적인 시위를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확대 중단, 생산 증가로 팜유 가격 상승 제한될 전망 (Indonesia biodiesel pause, rising output seen limiting palm oil gains)

인도네시아가 바이오디젤 확대 정책을 일시 중단하고 향후 몇 달간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팜유 가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높은 수요와 전체 생산 증가세 둔화가 가격 하락 폭을 제한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밝혔다. 전 세계 팜유 공급의 약 90%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팜유 생산량은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

시아의 기상 여건 개선에 힘입어 2026년에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두 번째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의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가들은 이번 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산업 콘퍼런스에서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2025년산 옥수수 수확 3월 완료 전망(Ukraine will complete 2025 corn harvest in March, says deputy minister)

우크라이나는 2025년산 옥수수 수확을 오는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품질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타라스 비소츠키 경제부 차관이 수요일 밝혔다. 비소츠키 차관은 온라인 매체 Censor.net과의 인터뷰에서 불리한 기상 여건으로 인해 지난해 옥수수 수확이 크게 지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전체 파종 면적의 약 7%가 수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2.7. 중국, 국내 옥수수 공급 부족에 미국산 수수·호주산 보리 대량 구매 (EXCLUSIVE—China buyers snap up U.S. sorghum, Australian barley as domestic corn supply tightens) – 2026.2.13.

중국 내 옥수수 수확이 강우 피해를 입으면서 사료용 곡물 수급이 타이트해지자, 중국 구매자들이 최근 몇 달간 호주산 보리와 미국산 수수 수입을 크게 늘렸다고 무역업계 관계자들이 밝혔다. 아시아 지역 트레이더 2명에 따르면, 중국 수입업체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약 45척(최소 250만 톤) 규모의 미국산 수수를 계약했으며, 이는 2025년 한 해 전체 선적량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브라질 대두 농가, 사상 최대 생산 전망(Brazil soy farmers reaping record crop, Conab confirms)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이 2025/26년도에 약 1억 7,800만 톤에 달하는 사상 최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브라질 농업공급공사(Conab)가 목요일 밝혔다. 이는 평균 단수 상승과 함께 수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신 보고서에서 Conab은 농가의 평균 생산성이 헥타르당 3,675kg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수치로 평균 대두 단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항만 곡물 운송량, 2월 증가에도 전년 대비 여전히 부진(Ukraine grain deliveries to ports so far in 2026 lag last year's despite Feb rise)

우크라이나 국영 철도회사 우크르잘리즈니치아(Ukrzaliznytsia)는 목요일 발표에서, 올해 들어 항만으로 운송된 곡물 물량이 2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과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항만 및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수출을 위한 물류 운송과 선적 과정 모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2.8. 미 농업 부진 속 농가들, 손익분기 기대하며 옥수수 재배 확대 유지 전망 (As US agriculture flails, farmers see big corn acres as best bet to break even) – 2026.2.19.

지난해 대규모 옥수수 수확 이후 가격 하락으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가들은 2026년 옥수수 파종 면적을 소폭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년 연속 낮은 수익률 또는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는 가운데 내려진 판단이다. 미국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작물인 옥수수는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올해 손익분기점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농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 남부에 내린 비로 대두 작황 개선 기대(As US agriculture flails, farmers see big corn acres as best bet to break even)

기상 서비스 Rural Clima와 LSEG 기상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강우가 이어지면서 고온·건조한 날씨로 수확량 감소 우려를 겪고 있던 브라질 최남단 히우그란지두술의 대두 재배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수요일 보고서에서 농업기상학자 마르코 안토니우 도스 산투스(Marco Antonio dos Santos)는 히우그란지두술 일부 지역에 30~40mm의 강우가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해운노조 파업으로 곡물 선적 중단(Argentine maritime workers' labor reform strike halts grain shipments)

아르헨티나 해운노동자연맹(FESIMAF) 소속 해운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반대하며 수요일부터 48시간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 항만의 곡물

선적이 마비되고 있다고 아르헨티나 곡물수출업체협회가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 곡물 공급국이자 세계 최대 대두유 및 대두박 수출국이다.

2.9. 미국 농가, 2026년 대두 재배면적 확대 · 옥수수 감소 전망(US farmers to sow more soybeans in 2026, less corn, USDA says) – 2026.2.20.

미국 농무부(USDA)는 17일, 미국 농가들이 2026년에 지난해보다 대두 재배면적을 늘리고 옥수수 재배면적은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두 작물 모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확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USDA는 올해 옥수수 재배면적이 9,400만 에이커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으며, 이는 2025년에 기록한 89년 만의 최고치인 9,880만 에이커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IGC, 2026/27년 세계 밀 수급 타이트 전망(Global wheat supplies may tighten in 2026/27, IGC says)

국제곡물위원회(IGC)는 목요일 발표에서 2026/27 시즌 세계 밀 공급이 긴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옥수수 생산량 역시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IGC는 월간 보고서에서 현재 전망은 아직 잠정적인 수준이지만, 2026/27년 세계 밀 수급 전망은 생산 감소와 추가적인 소비 증가가 예상되면서 다소 긴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10여 년 만에 중국으로 첫 수수 수출(Brazil sends first sorghum shipment to China in a decade)

브라질 정부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지난 1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수수를 수출했으며, 물량은 단일 선적 컨테이너에 실릴 정도의 소규모였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번 선적 물량은 25.83톤으로, 브라질이 아시아 국가인 중국에 12년 만에 수출한 첫 사례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10개 무역회사가 중국으로 수수 수출을 허가받은 직후 이루어진 것이다.

러시아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곡물·철광석 수출 차질(Ukraine's grain, iron ore exports hit by Russian strikes on ports this winter)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흑해 항만 공습으로 항만 처리 능력이 감소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농산물과 광물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은 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피브덴니 항만 터미널을 포함한 대형 해상 물류 거점이 위치한 곳으로, 2022년 러·우전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어 왔다.

2.10. 대법원 판결 이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추가 구매 가능성 낮아져 (Analysts say China less likely to buy US soy after Supreme Court decision) – 2026.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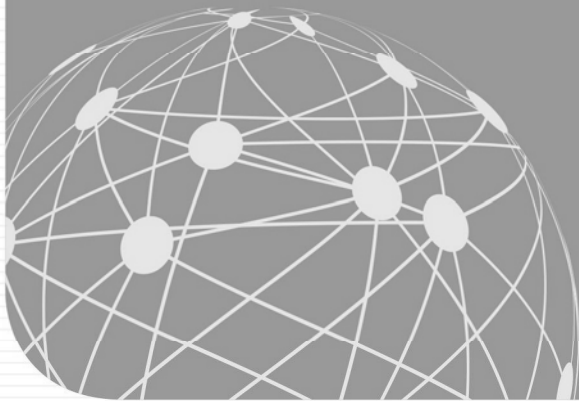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수주간 언급해 온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대두 추가 구매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분석가들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4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이 대두 800만 톤을 추가로 구매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8.49% 급등했던 대두 선물가격은 금요일 오전 소폭 하락했다.

미국 설탕 산업, 새로운 식이 지침 규제 영향 검토(US sugar industry weighs impact from new dietary guidelines regulation)

미 연방정부가 보다 엄격한 식이 지침 도입을 준비하면서 국내 설탕 수요가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 설탕 산업이 규제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업계 고위 관계자가 목요일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학교 급식 기준은 첨가당을 '0'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GLP-1 계열 체중 감량 치료제 사용 증가 역시 설탕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연방 기관들은 가공식품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는 향후 새로운 표시 의무나 제품 세금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Part 4. 세계 농업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147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이충식(국제NGO, “WTIT-타지키스탄” 프로그램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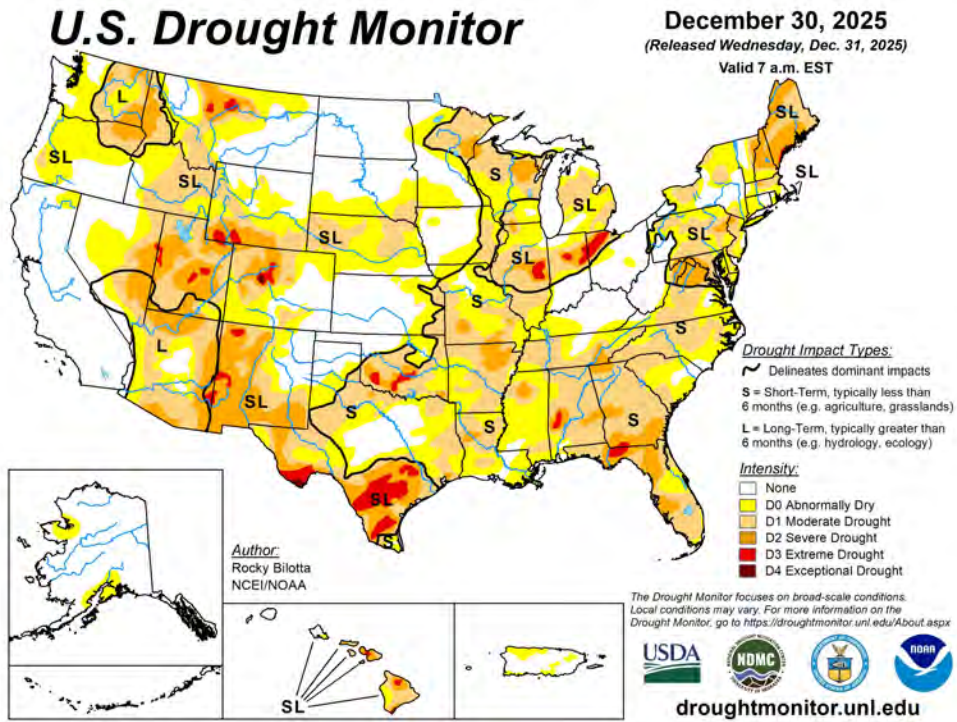
1. 미국

■ 2025년 12월 28일 ~ 2026년 1월 3일

서부 지역에서는 새해에도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주로 로키산맥 서쪽에서 그러한 양상이 나타났고 가장 많은 강수는 캘리포니아에서 기록되었다. 주말 무렵, 적설이 축적되는 시즌의 시작이 매우 더뒀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라네바다 산맥 적설의 평균 수분당량은 1월 초 기준으로 대체로 평년 수준이었다. 그러나 북부 로키산맥을 제외한 서부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적설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머물렀다. 특히 오리건주 대부분과 네바다주 북부, 유타주 서부, 그리고 포코너스 지역에서 남부 로키산맥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적설 수분당량이 1월 초 평균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동쪽으로 가면, 전국 중부 지역 전반에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고, 그 결과 대평원의 겨울밀은 대부분 보호용 적설층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 한편 미시시피강 유역에서 동쪽으로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강수가 내렸으며, 오대호 지역에서 뉴잉글랜드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일부 눈을 포함해 국지적으로 1~2인치에 달하는 가장 많은 총강수량이 기록되었다. 산발적으로 내린 남동부 지역의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단기 가뭄은 계속되어 일부 목초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지표수 공급을 제한했다. 가뭄의 영향은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별 차이를 보였으며, 주로 텍사스에서 미네소타로 이어지는 가상의 선을 따라 그 동쪽 지역에서 관측되었다. 주간 기온은 몬태나 중부에서 텍사스 서부와 중부에 이르는 지역 전반에서 평년보다 평균적으로 최소 5~10°F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고온 범위는 서쪽으로 로키산맥과 그레이트베이슨 일부, 내륙 산간 서부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반면 남부 플로리다 일부 지역과 오대호 상부 지역 일부에서 북동부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기온이 평균적으로 평년보다 5°F 이상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1월 1일, 플로리다에

* leecs2447@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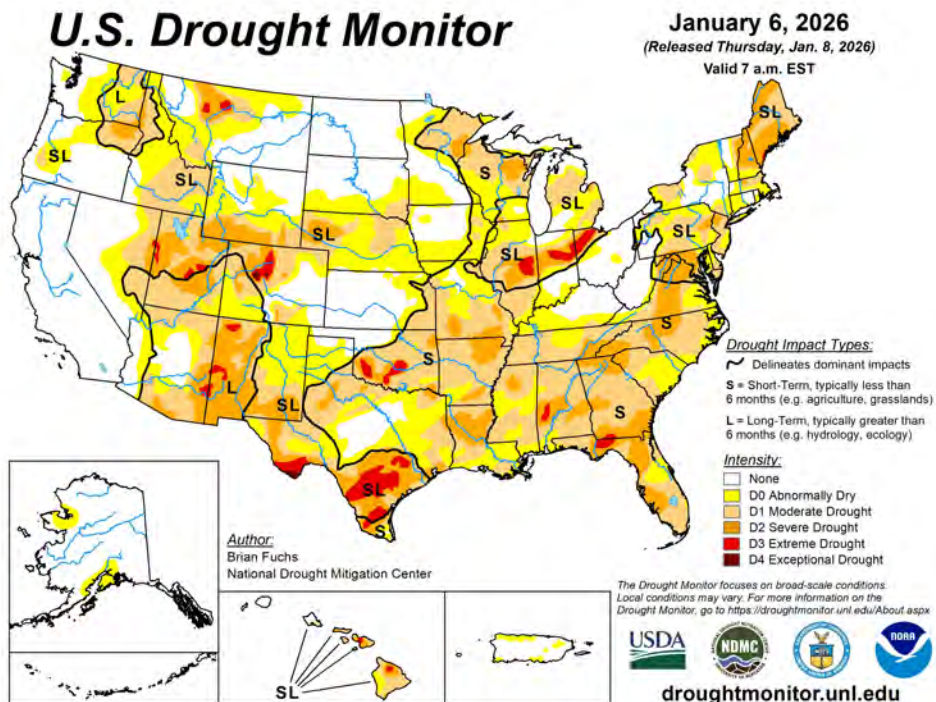
서는 남쪽으로 멀리 오키초비 호(湖) (Lake Okeechobee)에서 서리와 산발적인 결빙이 보고되었으나, 주(州)의 감귤 재배 지대는 이번 한파를 장기적으로 큰 우려 없이 대체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 2026년 1월 4일 ~ 1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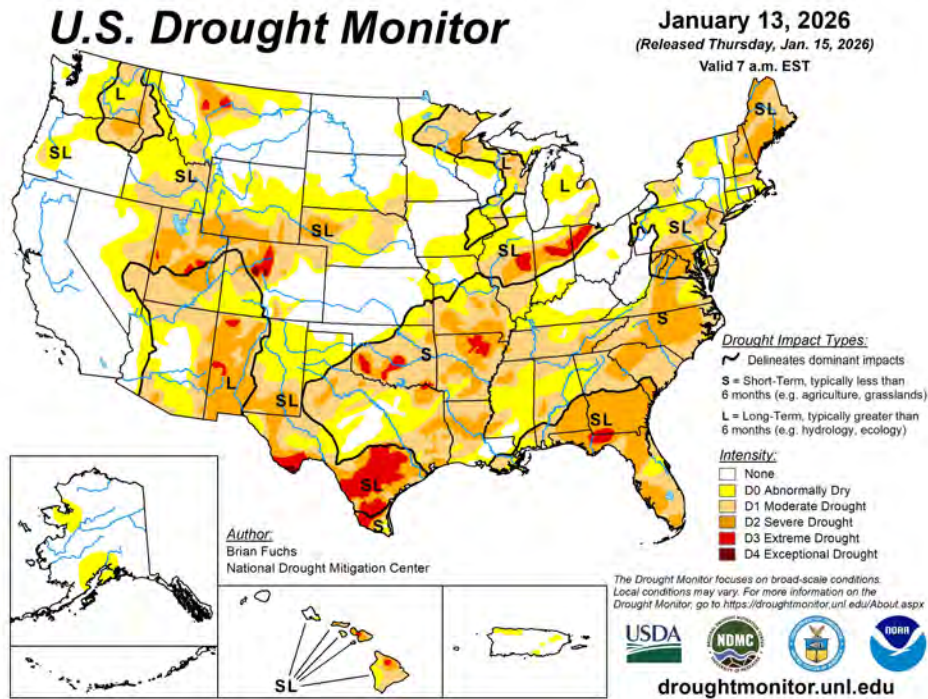
주중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서부에서 연속적인 두 개의 폭풍 시스템이 발생했다. 중부 평원에서 오대호 지역으로 앞서 이동한 폭풍 시스템이 한기를 거의 동반하지 않아, 중서부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는 비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뒤따르는 시스템은 중부 및 남부 고원 지역에 폭설대를 형성했고, 중서부 일부 지역에는 강풍을 동반한 눈 소나기로 전환되었다. 주 후반에 남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 내린 비는 가뭄 피해 지역에 국지적인 완화 효과를 제공했다. 두 폭풍 모두 북부 캘리포니아와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 총강수량을 증가시킨 것을 제외하면 서부 지역에 미친 영향이 대체로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서부 전반에서 산악 적설량이 평년 이하일 것이라

는 우려 속에서 보다 건조한 기상 패턴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로키산맥과 시에라 네바다는 수자원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건조기에 들어섰으며, 2026년 1월 6일 미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200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가뭄과 비정상적 건조 상태에서 벗어났다. 한편 로키산맥 동쪽의 많은 지역에는 온난한 기온이 확산되었고, 평원과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고온이 나타났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원 지역에서 중·남부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최소 10~15°F 높았다. 남부 플로리다와 뉴잉글랜드에서는 이들 지역 역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약 5°F 높았지만, 다소 더 선선한 날씨가 우세했다. 서부 지역은 주 초반에 온난한 기온이 잠시 지속된 뒤, 온화하고 폭풍성인 날씨에서 더 서늘하고 건조한 조건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서늘한 서부의 기상체제는 태평양 연안 주들, 그레이트 베이슨, 사막 남서부 일부 지역의 기온을 평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낮췄다.



■ 2026년 1월 11일 ~ 1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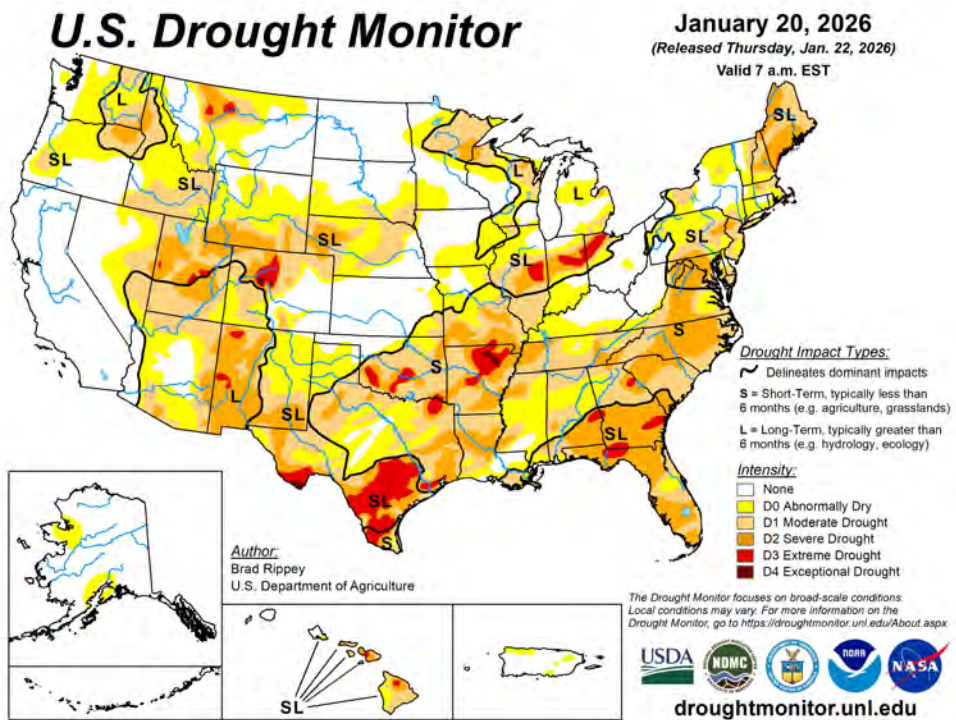
서쪽에는 고기압 능선이 형성되고 동쪽에는 기압골이 자리 잡는 방향으로 대기 순환이 변화하면서, 로키산맥 서쪽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다. 산발적인 강수는 동쪽 지역에서 나타났으나 강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비교적 많은 강수량은 대체로 오대호 지역과 미국 북동부 지역에 한정되었다. 극 제트기류와 아열대 제트기류의 성분들 사이에 위상 결합이 거의 없어 중부 및 남부 대평원에서 남동부 지역에 이르는 지역의 강수는 전반적으로 산발적이고 약한 수준에 그쳤다. 주요 폭풍 경로는 북서부 북미에서 남동쪽으로 파고드는 일련의 교란들이 형성된 뒤, 오대호 지역과 북동부 지역을 가로질러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양상이었다. 서부 전역을 온화하고 건조한 날씨가 감싸고, 이 지역의 겨울 우기 시즌이 절반에 가까워지면서, 산악 지역의 적설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적설량이 부족한 지역적 핵심 취약 지대로는 오리건주(및 인접 주 일부)와 광범위한 포 코너스 주 지역이 포함되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부에 따르면, 시에라 네바다 적설의 수분환산량(SWE)은 10인치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월 중순 기준 평균 대비 약 75% 수준이었다. 한편, 평년보다 낮은 기온은 대체로 남동부 지역에 국한되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국지적으로 평년보다 5°F를 초과하여 낮게 나타났다. 1월 16일에는 약한 결빙이 남쪽으로 멀리 플로리다주 중부와 플로리다 남부 내륙까지 관측되었다. 반대로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온이 미국 북부 및 서부 전역에서 관측되었고, 그 영향은 대평원과 중서부의 광범위한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주간 관측 평균값은 북부 대평원에서 평년보다 10~20°F 높았고, 뉴욕 주와 뉴잉글랜드 지역 북부 지역에서도 평년보다 최대 10°F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 중부 전역에 보다 한랭한 날씨가 자리 잡으면서, 기온은 남쪽으로 멀리 네브래스카주와 아이오와주 북부에 이르기까지 0°F 미만으로 하강했다.



■ 2026년 1월 18일 ~ 1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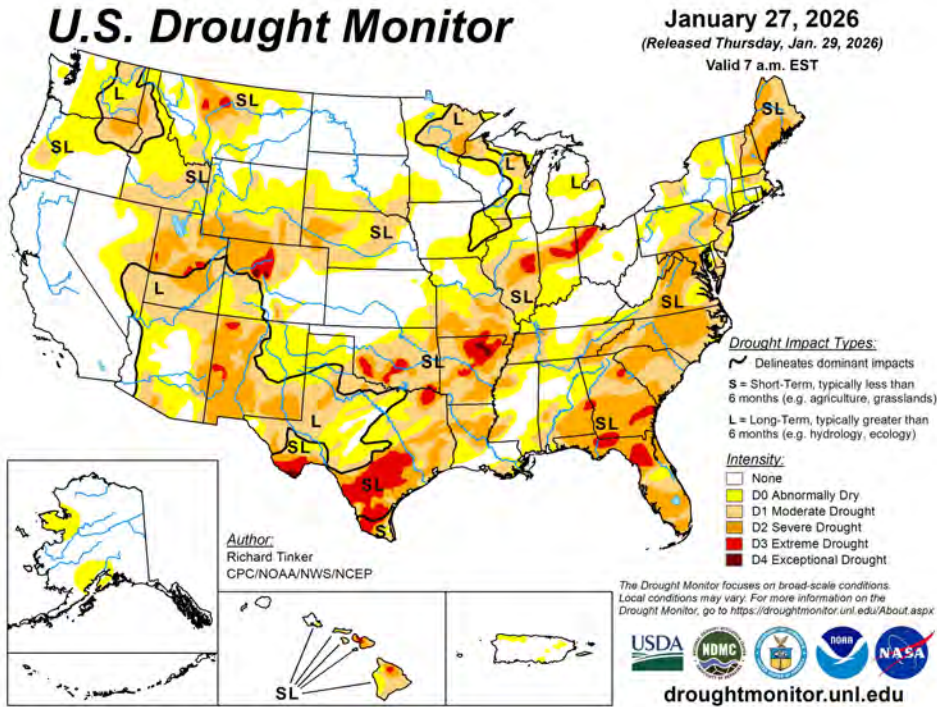
주 중 대부분 기간 동안 날씨는 평온했으나, 이후 수분과 혹독하게 찬 공기가 갑작스럽게 유입되었다. 수분과 찬 공기가 결합한 지역에서는 1월 23일부터 겨울성 강수, 즉 눈·진눈깨비·어는 비가 로키산맥과 대평원의 남부 지역에서 시작해 남부, 동부, 중서부 남부 대부분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어는 비로 인한 파괴적인 착빙 축적으로 남부 지역에서 100만 명이 넘는 고객이 정전을 겪었으며, 정전은 루이지애나 북부, 테네시 서부 및 중부, 미시시피주 북서부 절반 지역에 가장 집중되었다. 겨울 폭풍은 1월 25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시기에 폭설은 북동부로 이동했고, 남쪽 지역에서는 진눈깨비와 어는 비가 내렸다. 교통 차질과 정전 등 상당한 불편을 가져왔지만, 이번 겨울성 강수는 남부, 동부, 중서부 남부 전반에 걸쳐 가뭄 완화와 함께, 겨울 곡물과 피복 작물에 대한 보온 효과를 가져왔다. 다른 지역에서는 서부 대부분이 계속해서 한겨울 가뭄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오리건에서 남서부에 이르기까지 산악 지역의 적설 수분 환산량은 전반적으로 평년의 50% 이하로 떨어졌다. 미국 서부 대부분에서 온

화한 날씨가 우세했음에도 상층의 고기압 아래에 정체된 공기로 인해 북서부의 많은 저지대 지역과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에서는 때때로 짙은 안개를 동반한 평년 수준 또는 그 이하의 기온이 나타났다. 실제로 오리건 일부 지역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10°F 낮았다. 동쪽에서는 북부 대평원에서 중서부와 중남부에 이르기 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15°F 낮았다. 로키산맥 동편은 평년 수준에 가까운 기온을 보였는데 이는 북부 뉴잉글랜드 일부 지역과 텍사스 남부 및 해안에서 플로리다에 이르는 덩샤우스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주 후반에 내린 눈으로 인해 캔자스 이남 지역에서는 겨울밀의 보호용 적설이 대체로 충분했으나, 네브래스카 북서쪽 지역에서는 적설이 균일하지 않았으며, 일부 포장에서 화씨 0도 이하의 기온에 여러 날 노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 2026년 1월 25일 ~ 1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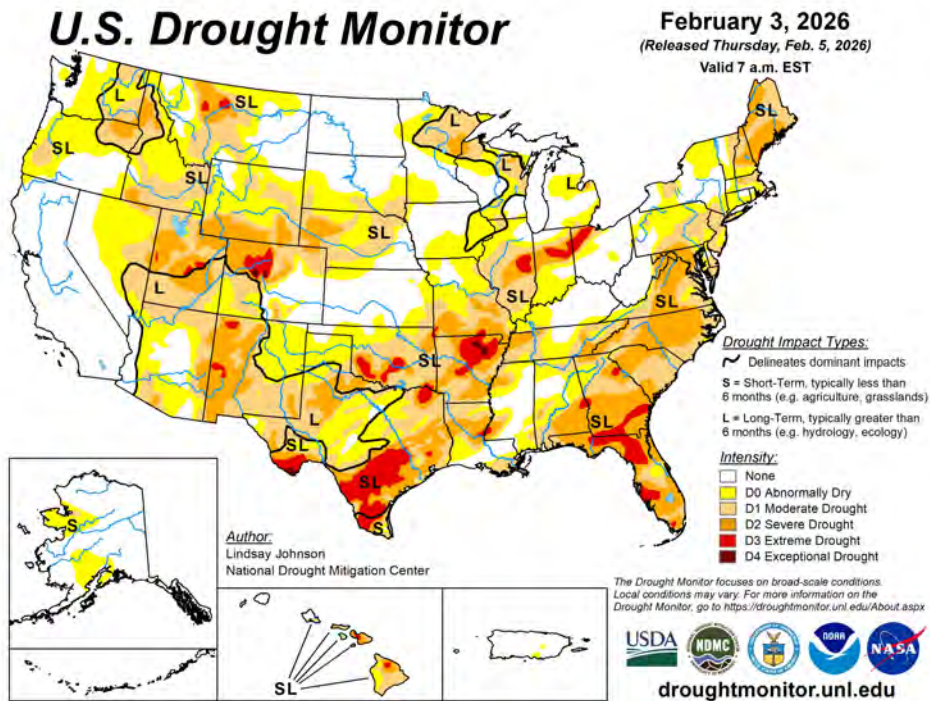
미국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한 주의 시작과 끝이 모두 강한 폭풍 상황으로 나타났다. 1월 25~26일에 넓은 지역에 걸쳐 전개된 겨울 폭풍의 말단부가 동부로 진입하며 동부 옥수수 벨트에서 중부 대서양 북부와 뉴잉글랜드 남부에 이르는 많은 지역에 30cm가 넘는 폭설을 가져왔다. 1월 31일에는 캐롤라이나 지역 전반이 폭설(국지적으로는 30cm 이상)로 뒤덮였다. 한편 중남부 지역에서는 초기 폭풍 시스템으로 인한 복구 작업이 여러 날 동안 이어졌으며, 특히 심각한 착빙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그러했다. 폭풍이 가장 강했을 당시, 북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주 북서부, 테네시주 서부와 중부를 중심으로 백만 명이 넘는 전력 수용가가 정전 상태에 놓였다. 미국 동부 전역이 한파에 싸인 것과 대조적으로, 서부 지역은 한겨울치고는 따뜻한 기온을 보였으나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3주 이상 지속되어 온 서부 지역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 많은 유역이 겨울을 평균 이하의 적설량으로 마무리할 위험에 노출되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뉴멕시코주 남동부에서 다코타주 동부를 잇는 선을 기준으로 그 동쪽과 인접 지역 대부분에서 평년보다 화씨 10~25도 낮았다. 이미 극심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축 관리 상황은 남부, 동부, 중서부 하부 지역에 남아 있는 눈과 얼음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2월 1일까지 플로리다 반도 거의 전역에서 동결 현상이 나타났으며, 감귤류, 딸기, 사탕수수, 겨울 채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와 북서부 일부 계곡 지역에서는 안개, 저층 운, 대기 정체 현상이 문제로 작용했으나, 미국 서부 대부분 지역은 평년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기온 분포를 보였다. 몬태나주의 하이플레인 지역은 특히 온화했으며, 사면 하강 바람(치누크)이 기온 상승에 기여했다.



■ 2026년 2월 1일 ~ 2월 7일

대서양 연안 폭풍으로 인한 눈과 바람의 영향이 2월 1일까지 캐롤라이나 전역과 그 인근에 미쳤으며, 한편으로는 더 광범위한 한랭 기류 패턴이 한 주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미국 동부 3분의 1 지역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다. 동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북부 뉴잉글랜드 지역만 제외하고, 대체로 평년보다 10~20°F 낮았다. 평년에 비해 가장 추운 기온이 나타난 지역 가운데 오하이오 벨리와 플로리다를 포함한 남부 대서양 지역이 있었다. 2월 1일부터 3일까지 플로리다 반도의 대부분 지역에 걸쳐 동결이 발생했는데, 이는 다양한 작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감귤, 딸기, 블루베리는 최소 이틀 밤 동안 화씨 20도 초반에서 중반까지 떨어지는 저온에 노출되었으며, 바람으로 인해 동해 방지 조치가 더욱 어려워졌다. 플로리다의 사탕수수 생산 지역은 화씨 25~30도까지 내려가는 저온이 최대 사흘 밤 지속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오키초비 호 인근의 겨울 채소 재배 지역에는 약한 동결과 돌풍이 영향을 미쳤으며, 화씨 32도 부근의 기온은 먼 남쪽의 홈스테드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반면, 평야 북서부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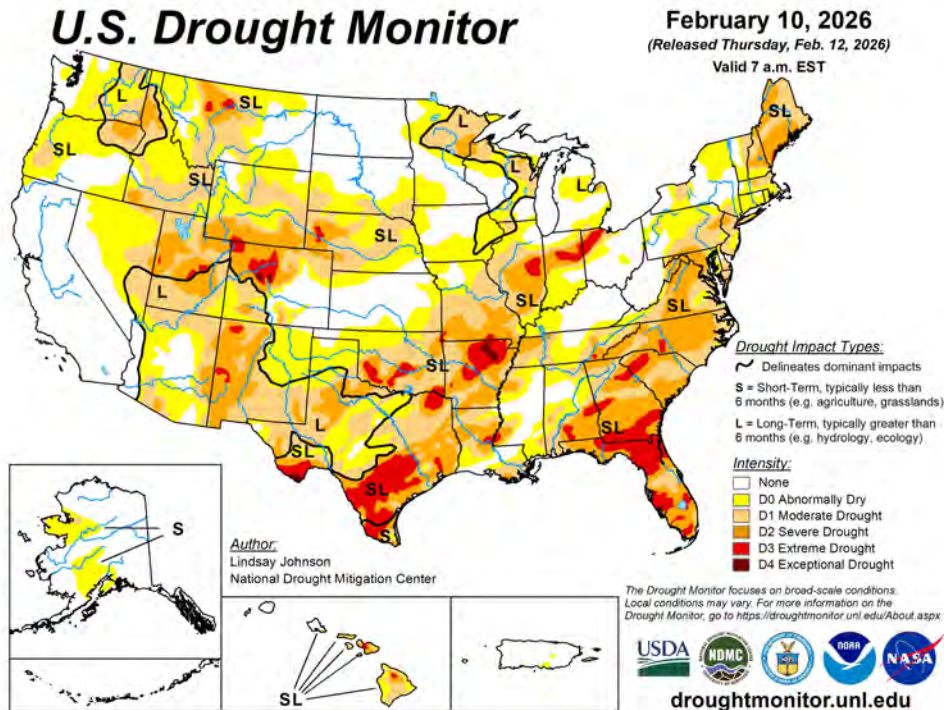
반 지역에는 온난한 기온이 확산되었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0~20°F 이상 높게 유지되었다. 로키산맥, 그레이트 베이스, 태평양 연안 주들의 여러 지역을 포함한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10°F까지 높게 유지되었다. 한편, 동쪽에서는 2월 3~4일에 걸쳐 걸프 연안에서 남동부까지 약한 비가 내렸으며, 오대호 주에서 애팔래치아 산맥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간헐적이고 산발적인 눈이 관측되었다. 태평양 북서부의 비와 눈 소나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상태로 2월을 시작하였다. 평야 지역의 겨울 밀은 보호용 적설층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서부 지역의 건조 현상으로 적설량은 이 시기 평균을 크게 밑돌았고, 이는 시즌 초반 폭풍 활동의 많은 이점을 무효화할 위험이 있었다.



■ 2026년 2월 8일 ~ 2월 14일

미국 서부의 기상 패턴은 주 초반에 북서부 지역에 강수가 넓게 확산되면서 점진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초기의 수분 유입은 동쪽으로 멀리 와이오밍 북서부와 몬태나 일부 지역까지 미쳤다. 이후 강수는 남쪽으로 멀리 캘리포니아까지 확산되었으며, 주

후반에는 비와 눈 소나기가 포 코너스 주(州)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말 무렵에는 강우가 중부 및 남부 평원 지역 전반에 걸쳐 발달했고, 이후 빠르게 동쪽으로 확산되어 2월 15일 일요일까지 중부 및 남부 대서양 연안 주들의 일부 지역에 도달했다. 강수량은 일부 지역에서 2인치를 초과했으며, 주로 남동부 평원에서 중남부에 이르는 지역에서 나타났고, 가뭄 피해 지역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 특히 미국 중북부와 북동부에서는 이번 주 동안 강수가 거의 없거나 전혀 관측되지 않았다. 또한 2월 중순의 수분 유입에도 불구하고 서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적설이 계속 부진한 상태를 보였으며, 1월 초에 시작된 장기 건조의 영향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강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중부 및 북부 대서양 연안 주에서 평년보다 최대 화씨 10도 낮게 나타난 반면, 평원에서 미시시피강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최소 화씨 10도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부 지역에 한랭한 날씨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 반도 전역에서는 추가적인 광범위한 동해(凍害)는 관측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생산자들은 2월 1~3일 한파 이후 감귤류, 블루베리, 딸기, 사탕수수, 겨울 채소, 관상용 식물, 묘목류 등 다양한 작물에 미친 피해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2. 유럽

■ 2025년 12월 28일 ~ 2026년 1월 3일

대륙 최남단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계속 남아 있었으나 유럽 대부분 지역에는 춥고 눈이 내리는 날씨가 자리 잡았다. 이전 주에 형성되었던 블로킹 고기압은 뚜렷한 남하한 제트기류로 대체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 중부와 북부, 동부 전반에 걸쳐 춥고 눈이 내리는 기상 조건이 나타났다. 해당 주 동안 프랑스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적으로 최대 5°C 낮은 수준이었고, 영국과 독일,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평년 대비 1~3°C 낮게 나타났다. 동유럽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균적으로 대체로 평년 수준에 가까웠으며, 불가리아에 한하여 평년보다 최대 4°C 높은 이례적인 고온이 국지적으로 나타났다. 동부와 북부의 재배 지역에서는 강수(주로 눈의 형태)가 액상 환산 기준으로 총 5~60mm에 달했으나, 프랑스는 대체로 건조했다. 주말 무렵에는 독일에서 폴란드와 발트 3국에 이르는 지역에서 휴면 상태의 겨울 작물 위를 2~20cm의 적설이 덮였고, 북부 세르비아에서 루마니아 서부와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휴면 중인 겨울 곡물과 유채를 20~40cm의 눈이 광범위하게 뒤덮었다. 한편 남부 및 남동부 스페인, 이탈리아 남부, 서부 발칸 지역에서는 중간에서 많은 비의 소나기(10~95mm, 일부 지역은 그 이상)가 계속되어, 봄철 성장을 위한 수분 공급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 2026년 1월 4일 ~ 1월 10일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는 한랭하고 눈이 오는 날씨가 지속된 반면, 서부 발칸 지역에서는 매우 많은 비로 홍수가 발생했다.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크게 굽어지면서 대서양에서 유입된 따뜻한 공기로 인해 프랑스와 잉글랜드 남부에서 강수의 대부분이 비로 내리기는 했지만, 중부·북부·북동부 유럽에는 한랭하고 눈이 오는 조건이 유지되었다. 해당 주 동안 기온은 유럽 대륙의 서부·중부·북부 지역 전반에서 평년보다 평균 3~6°C 낮았으며, 북부 스칸디나비아에서는 평년보다 10°C 넘게 낮았다. 주말에는 독일에서 북쪽과 동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광범위한 적설이 남아 있었으나, 프랑스와 잉글랜드 남동부에서는 비로 인해 눈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 반면, 그리스와 남부 발칸 지역에는 평년보다 3~9°C 높은 따뜻한 공기가 머물렀다. 북부 지중해에

걸쳐 형성된 정체 전선은 북쪽의 이례적인 한기와 남쪽의 비계절적 고온을 갈리놓았으며, 남부 아드리아해 인근에서는 전선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다. 주간 강수량은 보스니아 남부에서 알바니아까지 200mm를 훨씬 넘어섰고, 국지적으로는 400mm 이상에 달했다. 강수량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비(25~100mm, 국지적으로 그 이상)가 전선을 따라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서부로 확장되었으나, 홍수 보고는 서쪽에 있는 지역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았다. 강한 소나기는 북쪽으로 갈수록 강수는 빠르게 약화되기는 했지만, 스페인 남부(25~110mm)와 이탈리아 중부 및 남부(25~190mm)에 서도 관측되었다.

■ 2026년 1월 11일 ~ 1월 17일

서유럽에서는 더 따뜻하고 소나기가 잦은 날씨가 나타난 반면, 더 동쪽 지역에서는 춥고 눈이 오는 기상 조건이 나타났다. 대서양에서 유입된 일련의 저기압성 기상계가 광범위한 강수와 평년보다 2~4°C 높은 기온을 가져와 최근의 적설을 녹였으나, 봄철 생육을 위한 수분 저장 상태는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주간 총 강수량은 스페인에서 독일 북부에 이르기까지 5~25mm에 그쳤으나, 영국 일부 지역에서는 50mm를 넘었고, 이베리아 반도 서부의 바람받이 지역에서는 100mm를 초과했다. 강수는 대륙 동부 3분의 1 지역에서 훨씬 더 찬 공기(평년보다 2~5°C 낮음, 발트 국가들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10°C 낮음)를 만나 눈으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휴면 상태의 월동 작물은 -17°C 이하(리투아니아에서는 -23°C까지 하강)로 떨어지는 야간 저온으로부터 보호되었다. 전반적으로 휴면 상태의 밀, 보리, 유채는 양호한 조건 속에서 월동을 지속했다.

■ 2026년 1월 18일 ~ 1월 24일

서유럽에서는 따뜻하고 소나기가 잦은 날씨가 나타난 반면, 더 동쪽 지역에서는 춥지만 건조한 기상 여건이 대비를 이루었다. 동유럽 상공에 자리한 강한 블로킹 고기압으로 인해 독일부터 동쪽 전반에 걸쳐 맑은 하늘과 매우 낮은 기온(평년보다 2~5°C 낮음)이 유지되었으며, 폴란드 동부와 발트 3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10°C까지 낮아졌다. 대륙의 동부 습윤 지역에서는 중간에서 깊은 수준의 적설(5~40cm)이 휴면 상태의 월동 작물을 혹한(-21 ~ -18°C)으로부터 보호한 반면, 서쪽의 눈이 없는 지역에서는 야간 최저기온이 동해 피해 기준선 이상을 유지했다. 한편, 일련의 대서양

기상 교란으로 인해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에서는 비와 고지대의 눈(강수량 환산 10~50mm, 일부 지역은 그 이상)이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다. 이베리아반도에서는 지속적인 구름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평년 수준 또는 그 이하의 기온이 나타났기는 했으나, 이 비는 평년보다 최대 4°C 높은 기온을 동반했다. 전반적으로 휴면 상태의 밀, 보리, 유채는 양호한 조건에서 월동을 이어갔다.

■ 2026년 1월 25일 ~ 1월 31일

남부 및 서부 유럽은 따뜻하고 습한 날씨를 보인 반면, 북동부 재배 지역은 춥고 눈이 많은 기상 조건으로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중간에서 깊은 수준의 적설(15~40cm)이 휴면 상태의 겨울 작물을 혹독한 한파(-30~-18°C)로부터 보호하기는 했지만, 북동부 유럽 상공에 자리한 강한 블로킹 고기압은 폴란드와 발트 3국에서 매우 낮은 기온(평년 대비 3~9°C 낮음)을 유지했다. 야간 최저기온은 노출된 겨울 작물에 동해를 유발하는 임계치보다는 충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계절적으로 이례적인 한랭 기단(평년 대비 3~6°C 낮음)도 북부 독일과 남부 스칸디나비아에 머물렀다. 이 블로킹 고기압은 또한 유럽 전반에 걸쳐 폭풍 경로의 분리를 초래했으며, 북쪽 경로는 프랑스와 영국 대부분 지역에 10~80mm의 강수를 가져왔다. 한편, 더 활발했던 남쪽 폭풍 경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동쪽으로 이탈리아와 발칸 반도에 이르기까지 중간에서 과도한 수준의 강수(25~200mm, 국지적으로 그 이상)를 유발하여 휴면 상태이거나 반휴면 상태인 겨울 작물의 수분 공급을 개선했으나, 국지적인 침수와 기반시설 피해도 발생시켰다. 남쪽 폭풍 경로는 또한 이베리아 반도(평년 대비 1~4°C 높음)와 발칸 반도(평년 대비 3~6°C 높음)에 이례적인 고온을 동반했으며, 후자의 경우 보호 역할을 하던 적설의 상당 부분을 녹였다.

■ 2026년 2월 1일 ~ 2월 7일

서유럽과 남유럽에는 많거나 과도한 비가 내렸으나 대륙 북동부 지역에는 건조하고 혹독하게 추운 기상 조건을 보여주어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스칸디나비아 상공의 강한 블로킹 고기압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독일 동쪽 지역 전반에 평년보다 5~13°C 낮은 건조하고 혹독한 한파 조건을 지속시켰다. 그러나 북동유럽의 10~50cm에 이르는 중등도에서 깊은 적설층은 휴면 상태의 월동 작물을 밤사이 영하 20°C대의

저온으로부터 완충하였고, 리투아니아에서는 최저기온이 -30°C 아래로 하락하였다. 한편, 북쪽의 블로킹 고기압에 의해 남쪽으로 밀려난 활성 폭풍 경로가 서유럽에서 지중해 분지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지속되었다. 해안으로 상륙한 폭풍은 남서유럽에 많거나 과도한 강수(50~200mm, 국지적으로 그 이상)를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포르투갈과 스페인 북서부 및 남부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했고 기반시설에 피해를 입혔다; 이베리아 반도의 최고 강수량(400mm 초과)은 스페인 남부(안달루시아)에서 관측되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심각하고 광범위한 홍수가 발생하였다. 마찬가지로 많은 강우(40~100mm)가 이탈리아 서부에서도 홍수를 유발하였으며, 반도 남부에서는 강수량이 300mm를 넘는 지역도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서부 발칸 지역에서도 총 강수량이 100mm에 근접하거나 이를 웃돌았으며, 강우가 가장 심한 곳에서는 국지적 홍수가 발생하였다. 더 북쪽과 서쪽에서는 중등도에서 많은 소나기(10~60mm, 국지적으로 그 이상)가 영국과 프랑스 전역에 걸쳐 서서히 동쪽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봄철 생육을 위한 충분하거나 매우 풍부한 토양 수분을 유지하였다.

■ 2026년 2월 8일 ~ 2월 14일

서부 및 남부 유럽의 날씨는 따뜻하고 습했던 반면 대조적으로 대륙 북동부 지역은 매우 한랭한 기상 조건을 보였다. 북동부 유럽의 중간에서 깊은 수준의 적설(10~50cm)이 휴면 상태의 월동 작물을 영하 20°C 대의 야간 저온으로부터 단열해 주기는 했지만, 극심한 한파의 마지막 잔존 세력이 스칸디나비아, 폴란드 북부, 그리고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활발한 폭풍 경로는 서유럽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지중해 분지 전역에 걸쳐 지속되었다. 육지에 상륙한 폭풍은 남서부 유럽에 추가적인 강하거나 과도한 강우(20~150mm, 일부 지역은 그 이상)를 유발했으며, 이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북부 지역에서 홍수 우려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중간에서 많은 소나기(15~100mm)가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중부 및 남부 지역의 토양을 계속 포화 상태로 유지시켰다. 중간에서 많은 강우(일부 지역은 100mm 초과)도 그리스와 서부 발칸 지역에서 관측되었으며, 이는 봄철 생육을 위한 수분 저장량을 증가시켰다. 대서양 폭풍의 공세는 또한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평년보다 $3\sim 7^{\circ}\text{C}$ 높은 비정상적인 온난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남부 지역에서 겨울 작물의 조기 녹화를 촉진하고 중부 유럽에서는 겨울 작물의 내한성을 약화시켰다.

3. 호주

■ 2025년 12월 28일 ~ 2026년 1월 3일

호주 주요 농작물 재배 지역 대부분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서부와 남부, 남동부 호주에서는 맑은 하늘과 평년 수준에 가까운 기온이 겨울 작물 수확을 촉진했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와 퀸즐랜드주 남부의 동단부 농경지에서는 약한 비에서 중간 정도의 소나기(2~20mm)가 스치듯 지나가, 일시적으로 현장 작업을 늦추었으나, 개화 중인 면화와 생육기에서 개화기로 접어드는 수수에 대해서는 국지적으로 토양 수분을 개선했다. 2주 연속으로 주요 농경지 북쪽에 위치한 퀸즐랜드주 북부에서는 많거나 과도한 강우(100~330mm, 일부 지역은 그 이상)가 내리며, 광범위한 홍수와 기반 시설 피해를 초래했다.

■ 2026년 1월 4일 ~ 1월 10일

호주 남동부 전역의 폭염은 더 북쪽 지역의 소나기성 강수와 서늘한 기상 조건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호주 서부, 남부, 남동부 전반에서 겨울 작물 수확은 대체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호주 동부의 여름 작물 재배 지역 전반에서는 기상 여건이 크게 달랐다. 뉴사우스웨일스 남부의 극심한 고온(40~46°C)은 생식기에 접어드는 면화와 벼에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여름 작물의 관개 수요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과도한 고온은 주말에 강한 한랭 전선이 지나가며 갑작스럽게 종료되었다. 더 북쪽의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강수량의 지역 차가 컸으나 비교적 광범위한 소나기(5~80mm)와 평년 수준 또는 그 이하의 기온이 나타나, 개화기 면화와 영양생장기에서 생식기로 전환 중인 수수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홍수 피해를 입었던 퀸즐랜드 북부에는 다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으나, 관측 기간 말에는 열대성 교란이 서서히 상륙하면서 또다시 과도한 강우가 동반되었다.

■ 2026년 1월 11일 ~ 1월 17일

호주 동중부에는 건조하지만 다소 선선한 날씨가 자리 잡은 반면, 퀸즐랜드 북동부에는 폭우가 다시 내렸다. 호주 남동부를 강타했던 전주(前週)의 극심한 폭염 이후,

관측 기간 동안 기온은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 평년보다 최대 3°C 높았으나, 호주 남부와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5°C 낮았다. 면화 재배 지대의 주간 기온은 40°C 이하를 유지하며, 그 전주에 기록된 40°C 중반의 고온으로 인해 개화 중이던 면화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완화시켰다. 한편, 열대성 저기압 코지는 해당 기간 초반 퀸즐랜드 중부 연안에 상륙하여 강하고 돌풍성인 바람과 폭우를 동반했다; 1차 기상 관측소 자료에 따르면 퀸즐랜드 북동부에서는 100~230mm의 강수량이 기록되었고, 호주 기상청 협력 관측자 보고에서는 해안 인접 지역에서 200~600mm의 강수가 나타났다. 이 같은 집중호우는 기반 시설에 피해를 주었으나, 주요 면화 및 수수 재배 지역의 북동쪽에서 발생했다. 더 남쪽에서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을 따라 그리고 그 동쪽 지역에서 25~200mm에 이르는 많거나 과도한 강수가 관측되어 국지적인 침수를 일으켰으나, 이 역시 주요 여름작물 재배 지역 밖에서 발생했다.

■ 2026년 1월 18일 ~ 1월 24일

고기압 돔이 남호주에 극심한 폭염을 가져왔으며, 이 고기압은 주말에 동쪽으로 이동했다. 남호주에서는 주간 기온이 섭씨 40도 중반까지 올랐고, 관측 기간 말에는 뉴사우스웨일스와 퀸즐랜드 남부에서 40°C를 넘어서 최대 43°C에 달했다. 그런 매우 더운 날씨가 초지에 스트레스를 다시 가하기 시작했고, 생식기에 접어든 면화의 수량 전망을 낮추었으며, 여름 작물의 생육 진행을 앞당겼다. 국가의 주요 재배 지역에서 벗어난 더 북쪽에서는 열대성 기상 교란으로 인해 퀸즐랜드 북부에 매우 많은 소나기(50~260mm)가 내렸고, 동시에 열대성 저기압 루아나는 서호주 북부에 상륙하여 돌풍과 폭우(200~280mm)를 동반했다.

■ 2026년 1월 25일 ~ 1월 31일

관측 기간 동안 고기압 돔이 형성되며 호주 남부와 동부에 극심한 폭염을 가져왔다. 남호주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5~10°C 높게 나타났으며, 평년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기온은 호주 북부와 서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었다. 1월 24일부터 시작해 8일 연속으로 면화 재배 지대 전반에서 최고기온이 42°C를 초과했으며, 일최고기온은 뉴사우스웨일스 남부의 면화 재배 지역에서 47.5°C, 뉴

사우스웨일스 북부에서는 46.4°C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극심한 고온은 작물이 개화기에서 꼬투리 열림(open boll) 단계에 이르는 생육 시기와 겹치면서 시기상 이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생육을 가속시켰으며, 관개 수요를 증가시켜 수량 전망을 낮췄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7일 평균 기온이 30°C를 초과한 점은 호주 동부 대부분 지역에서 면화의 스트레스 또는 피해 가능성을 더욱 시사했다. 이 폭염은 면화 외에도 다른 여름 작물, 초지, 가축에도 스트레스를 가했다. 한편, 국가의 주요 농업 지역에서 훨씬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일련의 열대성 기상 교란으로 인해 퀸즐랜드주 북부와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북부에 매우 많은 강수(50~200mm)가 발생했다.

■ 2026년 2월 1일 ~ 2월 7일

최근 호주 남부와 동부를 강타한 맹렬한 폭염은 기간 초반 강한 한랭전선의 통과로 종료되었다. 주 초반 한랭전선 통과 이후 뉴사우스웨일스 남부의 여름작물 재배 지역에서는 평년 대비 낮은 기온이 나타났으며, 뉴사우스웨일스와 퀸즐랜드 경계 인근 농경지에서는 이상 고온이 완화되어 평년보다 1~2°C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주 초반 서부 면화 재배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여전히 40°C를 웃돌았으나 이후 30°C 대로 낮아지면서, 여름작물의 고온 스트레스는 단 하루에 그쳤다. 전선 통과 시 강수는 없었으나, 주 후반 또 다른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뉴사우스웨일스 중부와 남부에 2~15mm의 약한 소나기를 유발하였다. 관측 기간 종료 이후에는 레이더 관측상 더 강한 소나기가 확인되었다. 주요 재배 지역을 크게 벗어난 북부 지역에서는 강한 열대수증기 기류의 영향으로 퀸즐랜드 북부와 노던 테리토리에서 추가로 중등도에서 많은 강우(50~200mm)가 이어졌으며, 한편 열대성 저기압 미첼은 서호주 북부 해안 인근 해상에 도사리고 있었다.

■ 2026년 2월 8일 ~ 2월 14일

광범위한 소나기가 단기적인 건조와 가뭄을 완화시켰으나, 호주 남동부 일부 지역은 여전히 건조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호주 동부에 위치한 느리게 이동하는 한랭전선은 퀸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에 광범위한 중간에서 많은 소나기(10~90mm)를 유발하였으며, 이는 개화기(남부)에서부터 개서기(open boll)(북부)에 이르는 면화의 토양 수분을 개선한 동시에 절실히 필요했던 저수지 수위를 올려 주었

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 남부의 최남단 면화 재배 지역은 여전히 불리할 정도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한편, 열대저기압 미첼의 잔재는 서호주 북부 및 동부의 월동 작물 재배 지역에 걸쳐 중간에서 많은 강우(20~80mm)를 띠 모양으로 발생시켰으며, 단기적인 건조와 가뭄을 완화시켰다. 강우를 받은 지역은 이번 주 동안 평년보다 1~3°C 낮은 기온을 보인 반면,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기록하였다.

4. 아르헨티나

■ 2025년 12월 28일 ~ 2026년 1월 3일

아르헨티나 북부에서는 풍부한 강우가 계속되어 생육 중인 면화를 뒷받침했으며, 강우량은 대체로 총 10~50mm 범위에 분포했고, 일부 국지 지역에서는 100mm를 초과했다. 반면 남부 농업 지대는 강수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10mm 미만) 훨씬 더 건조했으며, 이로 인해 주요 곡물 및 유지작물 지대에 스트레스를 가했고, 라팜파 전역에서는 토양 수분이 더욱 고갈되었다. 지역별 기온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평균 대비 1~4°C 높음)을 유지했으며,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에서 후반에 이르렀고, 일부 지역에서는 40°C 초반까지 치솟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2월 30일 기준으로 면화는 파종률이 80%에 도달했으며, 옥수수과 대두는 각각 86%가 파종되었다. 또한 밀은 87%가 수확되었다.

■ 2026년 1월 4일 ~ 1월 10일

라팜파 주변의 옥수수 재배지에는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려 건조 상태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총 강수량은 25mm 미만이었다. 반대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코르도바 남부, 산타페 남부 지역은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강수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대체로 10~100mm를 기록했으며, 일부 국지적 사례에서는 100mm를 초과하기도 했다. 지난주 기온은 상당히 온화해져 평균적으로 평년보다 1~4°C 낮았다. 낮 최고기온은 대부분 30°C 초반에서 중반 수준이었으나, 최북단 일부 지점에서는 30°C 후반에서 40°C 초반까지 올랐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

월 8일 기준으로 면화는 86%가 파종되었고, 옥수수과 대두는 각각 90%와 92%가 파종되었다. 또한 이 지역 전반에서 밀 수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 2026년 1월 11일 ~ 1월 17일

남부 지역에는 10~50mm의 약하거나 보통의 비가 내려 작물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켰다. 중부와 북부 지역도 총 강우량이 비슷했으나 일부 국지 지역에서는 누적 강우량이 100mm를 초과하였다. 기온은 대체로 평년 수준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3°C 높은 편차가 나타났다. 주간 최고기온은 대체로 30°C 초반에서 후반에 머물렀으나, 라팜파, 포모사, 살타, 차코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40°C 초반에 도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15일 기준으로 면화는 97% 파종되었으며, 옥수수과 대두는 각각 92%, 95% 파종되었다.

■ 2026년 1월 18일 ~ 1월 24일

이번 주 중부와 일부 북동부 생산 지역은 비교적 건조했으나, 남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약한 강수에서 중간 정도의 강수(10~50mm)가 이어졌다. 이러한 강수가 시즌 초반에 극심한 건조를 겪었던 라팜파 지역에 특히 큰 완화를 가져와 중요한 토양 수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부는 여전히 건조한 상태에 머물렀다.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에서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서늘한 패턴을 보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계절 평균보다 1~3°C 낮아졌다. 이러한 낮은 평균 기온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반에서 주간 최고기온이 여전히 30°C 초반에서 후반에 도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22일 기준으로 면화, 옥수수, 대두 파종은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 라팜파 지역에서는 현재 개화기와 등숙기에 있는 조기 파종 옥수수가 이전의 고온과 건조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반면, 후기 파종 작물은 비교적 더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한편, 코르도바 남부의 대두는 고온과 수분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히우 쿠아르토(Río Cuarto) 지역에서는 후기 파종 대두가 지속적인 수분 스트레스로 인해 생육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 2026년 1월 25일 ~ 1월 31일

서부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소나기가 계속되어, 이전에 건조했던 지역의 가뭄을 완화했으며 작물 생육을 뒷받침했다. 강우량은 대체로 10~50mm 범위였고, 북부 지역에서는 최대 100mm에 이르는 강우량이 관측되었다. 반면 동부 전반,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산타페의 옥수수 및 대두 주요 생산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거나 전혀 내리지 않았다. 지역 전반의 기온은 평년보다 1~5°C 높았으며, 주간 최고기온은 30°C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렀고, 포르모사 서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40°C 초반이 보고되었다. 1월 29일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주요 재배 지역에서 면화의 생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옥수수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유지했으나, 고온과 바람에 의해 증발산이 증가하면서 작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강우가 필요해졌다.

■ 2026년 2월 1일 ~ 2월 7일

지난주 아르헨티나 전역에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강수량으로 여름작물의 수분 스트레스가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으나, 많은 주요 재배 지역은 여전히 수분 스트레스 상태에 머물렀다. 많은 주요 재배 지역이 여전히 수분 스트레스 상태에 머물러 있기는 했으나, 지난주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지역별 강수량 차이로 인해 여름작물의 수분 스트레스가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 강우는 서부와 일부 북부 지역에서 계속되었으며, 강우량은 10~100mm에 이르렀고 최고 강우는 북부에서 기록되었다. 남부 산타페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부분 지역에서는 토양 수분이 일부 회복되었으나, 강우는 대체로 25mm를 밑돌았고 국지적 소나기만이 최대 50mm에 이르렀다. 이렇게 불균형한 분포로 내린 강수량은 엔트레리오스와 남부 코르도바,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산타페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기존의 수분 부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한편, 평균 기온은 대체로 평년 수준에서 평년 이상(평년 대비 최대 3°C)이었으며, 낮 최고기온은 30°C 중·후반에 이르렀고 포모사에서는 국지적으로 40°C 초반까지 상승하였다. 2월 5일 기준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면화, 대두 작물은 고온과 강수 부족 속에서 생육 상태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옥수수의 생육 상태는 양호에서 보통 수준까지 분포하였으며, 조기 파종 포장은 개화 및 등숙기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 반면 후기 파종 포장은 강우가 재개될 경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면화는 대부분 개화기에서 꼬투리 충실기 단계에 있었으며, 전반적인 생육은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일부 북부 및 동부 지역에서는 수분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두는 특히 이모작 포장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으며, 조속히 강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량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2026년 2월 8일 ~ 2월 14일

북부 농업 지역에서는 유익한 강우가 계속되었으며, 산타페와 엔트레리오스의 농업 지역에도 절실한 완화를 가져와, 생육 중이던 여름작물에 스트레스를 주었던 건조기간을 끊어 주었다. 강우 총량은 대체로 10~50mm 범위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00mm에 이르는 국지적 최고치를 기록하여 이전에 '보통에서 양호' 상태였던 면화와 기타 작물에 도움을 주었다. 반면, 코르도바, 산루이스, 라팜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부 농업 벨트 지역은 강우량이 10mm 미만으로 강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 대체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높은 기온과 불균일한 수분이 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높였다. 기온은 평년 수준에서 평균보다 2°C 높은 범위였으며, 주간 최고기온은 북부에서 30°C 중·후반, 남부에서 30°C 초·중반에 도달하였다. 2월 12일 기준으로 정부는 전국적으로 혼재된 작황을 보고하였는데, 옥수수는 대체로 '양호에서 보통'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조기 파종 포장은 1월의 수분 스트레스 이후 성숙기에 근접한 반면, 만기 파종 작물은 추가적인 수분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대두도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는데, 조기 파종 포장은 대부분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만기 파종 대두는 회복 불가능한 손실 가능성을 동반한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면화는 일부 지역에서 고온으로 인한 수량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우가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에서 보통'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5. 브라질

■ 2025년 12월 28일 ~ 2026년 1월 3일

브라질의 여름작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최적의 생육 여건이 우세했으며, 남부 지역의 지속적인 수분 공급이 이러한 여건을 더욱 뒷받침했다. 주간 누적 강수량은 10~50mm 범위에 분포했으며, 일부 국지 지역에서는 50mm를 초과했다. 이러한 중간 정도의 소나기는 히우그란지두술과 파라나를 포함한 남부 주들에서 매우 중요했으며, 생육이 계속 진행 중인 작물에 유리한 수준으로 토양 수분을 끌어올렸다. 동부 연안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고온(평균 대비 1~4°C 높음)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지역적으로 기온은 대체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낮 최고기온은 전반적으로 30°C 초반에서 중반에 머물렀으나, 동부와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30°C 후반까지 오르기도 했다. 12월 30일 기준으로 히우그란지두술 주 관리들은 대부분의 대두가 강한 영양생장 활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특히 조기 파종된 작물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앞서 파종된 포장에서는 수분, 온기, 일사량이 유리하게 결합된 조건 속에서 개화가 시작되었다.

■ 2026년 1월 4일 ~ 1월 10일

광범위한 강수가 지속되면서, 브라질의 여름작물 대부분에게 최적의 생육 여건이 조성되었다. 누적 강수량은 대체로 10~50mm 범위였으며, 보고에 따르면 일부 국지 지역에서는 100mm에 달했다. 북동부 지역은 뚜렷하게 더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으며, 강수는 거의 없거나 전무했다. 남동부 지역, 즉 마투그로수두술에서 남쪽으로 히우그란지두술까지는 기상 여건의 변동성이 더 컸으며, 이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로 강수량이 25mm 미만에 그쳤고, 넓은 지역에서는 10mm 미만이 기록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온은 계절 평균과 거의 일치했으며($\pm 1^{\circ}\text{C}$ 이내), 다만 예외적으로 동부와 먼 동남부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최대 3°C 낮았다. 낮 최고기온은 주로 30°C 초반에서 중반 범위에 분포했다. 파라나 주 정부에 따르면 1월 8일 기준으로 초작 옥수수의 93% 이상과 대두의 86%가 생식기에 도달했다. 한편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같은 날짜 기준으로 대두 파종이 96% 완료되었고, 그중 13%는 이미 개화 단계에 들어섰다. 해당 주의 옥수수 작물은 93%가 파종되었으며, 2%는 이미 수확되었지만, 대부분은 현재 종실 비대기에 있다. 정부 보고서는 지난 몇 주간의 유익한 강우와 적절한 기온이 양호한 생육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밝혔다.

■ 2026년 1월 11일 ~ 1월 17일

브라질 서부 지역은 계속해서 충분한 강수를 받은 반면, 중부와 남부의 작물 생산 지역에서는 보다 산발적으로 강수가 내렸다. 전반적인 여건은 여전히 양호했으며, 총 강수량은 대체로 10~50mm 범위에 머물렀다; 다만 동중부와 남동부 생산 지역 일부에서는 15mm 이하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기온은 전반적으로 계절 수준을 유지했으나, 일부 국지 지역에서는 평년 대비 최대 $\pm 2^{\circ}\text{C}$ 의 편차가 관측되었다. 대부분 지역의 주간 최고기온은 30°C 초반에서 중반 범위에 분포했다. 파라나 주 정부가 1월 15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재평가 결과 주(州) 내 대두 재배 면적의 90%가 양호한 상태로 분류되었다. 현재 작물의 12%는 성숙 단계에 도달했으며, 나머지 88%는 향후 몇 달 동안 더 중요한 생육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날짜의 히우그란지두술 보고서에서는 대두 작물의 21%가 개화 중이며, 5%는 등숙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한 수분과 기상 조건으로 인해 작물 생육이 가속화되었다.

■ 2026년 1월 18일 ~ 1월 24일

남동부는 지난주와 유사한 양상으로 비교적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으나, 광범위한 소나기가 동부 지역에 다시 나타나 지역 대부분을 덮었다. 전반적으로 강수량은 평균 25~100mm였고, 국지적으로는 최대 200mm에 달했으나, 남동부는 강수량이 10mm 미만에 그쳤으며 일부 고립된 지역에 내린 소나기도 최대 25mm 수준에 불과했다. 남동부의 건조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부분에서는 기온이 온화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최고기온은 평균적으로 섭씨 20도 중반에서 30도 중반에 형성되었다. 마투그로수와 마투그로수두술 서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다소 더 높아 섭씨 30도 후반까지 상승했다. 파라나 주 정부의 1월 26일 보고에 따르면, 1기작 옥수수는 대부분 등숙과 성숙의 최종 단계에 있었으며 전반적인 생육 상태는 양호했다. 대두의 생육 단계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주로 착형기, 등숙기, 그리고 초기 성숙 단계에 분포해 있었다. 히우그란지두술 주의 1월 22일 보고서는 최근의 안정적이고 건조한 날씨가 옥수수 수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 2026년 1월 25일 ~ 1월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광범위한 소나기가 계속되었으나, 동부 지역의 수분 조건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고야스와 미나스제라이스에서는 국지적으로 50~100mm에 이르는 강우가 관측되었으나, 동부의 주요 생산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강우(10~50mm)와 함께 누적 강우량이 10mm 미만에 그친 건조한 국지 지역이 혼재했다. 나머지 농업 지역 전반에서는 강우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으며, 대체로 10~100mm를 기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100mm를 초과했다. 지역 전반의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약 2°C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일최고기온은 북동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 30°C 후반까지 기록되었으나, 대체로 30°C 초반에서 중반에 분포했다. 1월 29일자 파라나주 정부 보고에 따르면, 대두 수확은 5%에 도달했으나 최근의 고온과 불규칙한 강우 이후 작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강우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마찬가지로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대두의 수량 잠재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온,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이 결합되면서 증발산이 가속화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최근의 산발적인 강우는 토양 수분 저장량을 완전히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했으며, 특히 토심이 얇거나 사질 토양 지역에서 개화기와 종실비대기 단계에 있는 작물들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징후를 보였다.

■ 2026년 2월 1일 ~ 2월 7일

광범위한 소나기가 지역 대부분에 걸쳐 이어졌으나, 북동부와 남부 농경지 전반에서는 강우가 여전히 부족하였다. 이러한 국지적 건조 지역의 강우량은 10mm 미만에 불과했던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총 10~100mm의 활발한 강수 활동이 나타났다. 평균 기온은 대체로 평년 대비 최대 3°C 높았으며, 낮 최고기온은 30°C 초·중반에 머물렀다. 그러나 더 건조한 남부와 북동부에서는 충분한 강수가 없어 더 강한 고온이 나타났다. 기온은 30°C 후반까지 상승하면서 남부 작물의 증발산율을 더욱 높였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2월 3일 기준 파라나에서 1기작 옥수수는 성숙기에 근접하였으며, 수확량은 과거 평균을 상회하였다. 한편 2기작 파종은 계속되었으나 건조한 토양과 대두 수확 지연으로 인해 진행 속도가 둔화되었다. 대두는 수분 스트레스와 고온의 영향 아래 핵심적인 개화기와 등숙기에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수확이 시작되었다. 2월 5일 현재 히우그란지두술에서 옥수수 수확은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까지 진행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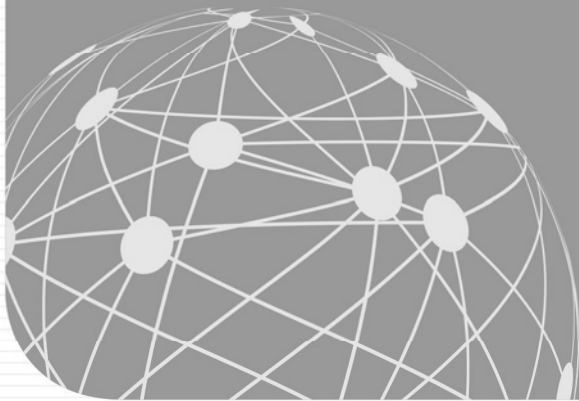
었으며, 불규칙한 강우로 인해 수확량은 지역 간 편차가 컸다. 대두 또한 개화기와 등숙기에 있었으며, 주(州) 전반에서 생육이 고르지 않았다; 토양 수분이 양호한 지역은 높은 수량 잠재력을 보인 반면, 다른 지역은 수분 스트레스를 겪으며 수량 전망이 낮아졌다.

■ 2026년 2월 8일 ~ 2월 14일

이 지역 대부분에 걸쳐 광범위한 소나기가 계속되었으나,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지속적인 건조 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강우 총량은 평균적으로 10~100mm 사이에서 분포하며 상당한 변동을 보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100mm를 초과하는 강우도 기록되었다. 마투그로수에서는 과도한 강우로 인해 대두 수확이 지연되었으며, 작물 품질에 대한 잠재적 우려가 일어났다. 남부 대부분 지역은 유익한 수분을 공급받았으나, 히우그란지두술 일부 지역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여기에 30°C 중·후반의 과도한 고온이 겹치면서 열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수량 잠재력을 위협하였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간 최고기온이 보다 완만하여, 평균적으로 30°C 초·중반 수준을 보였다. 파라나에서는 정부 보고에 따르면 1기작 옥수수 수확이 여러 지역에서 기록적인 수량을 보이며 탄력을 받고 있었고, 2기작 옥수수는 강우 개선 이후 출아 단계로 전환되었다. 대두 수확은 주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20%까지 진행되었으며, 1월의 고온 및 수분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전체 생산량은 예외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대로 히우그란지두술은 장기 가뭄과 고온으로 인해 생식기 대두에서 꽃과 꼬투리의 낙화·낙과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어려움을 보고하였으며, 최근 일부 국지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량 잠재력은 감소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옥수수 수확은 고온·건조한 날씨로 성숙이 가속화되면서 50%나 진행되었으나, 이전의 수분 스트레스로 인해 특히 보수력이 낮은 토양에서 수량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제한된 토양 수분은 주 전역에서 2기작 파종 진행을 계속해서 저해하였다.

Part 5. 부 록

세계 곡물 통계	175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179



세계 곡물 통계

□ 쌀(정곡)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145,280	354,626	16,138	15,837	359,156	118,926	3.62
1994/1995	147,289	364,055	19,380	21,058	363,742	117,561	3.67
1995/1996	148,297	368,655	18,127	19,820	366,462	118,061	3.69
1996/1997	150,165	380,339	16,666	19,110	375,701	120,255	3.75
1997/1998	151,725	387,370	24,232	26,646	377,493	127,718	3.79
1998/1999	153,303	394,960	25,219	25,671	388,174	134,052	3.83
1999/2000	155,850	409,295	20,263	22,843	397,663	143,104	3.91
2000/2001	152,727	399,325	22,073	24,035	393,757	146,710	3.89
2001/2002	151,671	399,518	25,969	27,019	412,115	133,063	3.92
2002/2003	147,634	377,979	26,292	28,696	405,442	103,196	3.81
2003/2004	149,502	392,368	25,014	27,494	410,934	82,150	3.91
2004/2005	151,367	401,016	25,971	28,316	405,889	74,932	3.94
2005/2006	154,161	418,045	26,534	29,775	412,334	77,402	4.04
2006/2007	154,418	420,026	28,585	31,356	418,299	76,358	4.05
2007/2008	154,843	434,115	30,025	31,542	426,644	82,312	4.16
2008/2009	158,540	450,140	27,422	29,071	435,792	95,011	4.23
2009/2010	155,963	440,889	28,256	31,421	435,237	97,498	4.21
2010/2011	158,473	451,393	33,061	35,216	443,941	102,795	4.25
2011/2012	160,063	469,557	35,516	39,956	455,213	112,699	4.38
2012/2013	160,273	476,040	36,738	39,407	462,514	123,556	4.43
2013/2014	163,537	481,893	39,088	43,342	472,529	128,666	4.40
2014/2015	163,128	483,233	41,710	43,867	473,527	136,215	4.42
2015/2016	161,643	477,571	38,690	40,735	467,846	143,895	4.41
2016/2017	164,607	492,462	41,664	47,892	478,439	151,690	4.47
2017/2018	164,179	495,262	47,321	47,885	481,552	164,836	4.50
2018/2019	163,760	498,359	44,326	44,248	485,391	177,882	4.54
2019/2020	161,934	498,705	42,608	43,566	492,215	183,414	4.60
2020/2021	165,506	509,407	47,111	51,992	498,616	189,324	4.60
2021/2022	167,016	514,233	55,686	57,809	516,611	184,823	4.60
2022/2023	167,474	516,928	57,625	55,507	522,969	180,900	4.61
2023/2024	167,856	523,965	53,544	56,750	521,499	180,160	4.67
2024/2025	172,535	541,656	57,883	61,264	527,130	191,305	4.69
2025/2026 (전망치)	172,157	541,282	60,024	63,268	538,467	190,876	4.7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밀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221,030	558,555	98,561	103,717	547,467	182,663	2.53
1994/1995	213,327	523,121	99,877	98,215	543,525	163,921	2.45
1995/1996	216,712	537,498	97,188	99,197	543,624	155,786	2.48
1996/1997	227,070	581,286	98,254	106,943	563,994	164,389	2.56
1997/1998	226,370	610,176	103,533	104,400	575,783	197,915	2.70
1998/1999	219,174	590,495	99,635	101,319	577,432	209,294	2.69
1999/2000	212,633	587,392	106,718	113,435	580,897	209,072	2.76
2000/2001	215,187	582,813	99,344	101,195	583,912	206,122	2.71
2001/2002	214,180	583,791	106,234	105,783	586,787	203,577	2.73
2002/2003	212,688	570,058	103,712	105,341	602,181	169,825	2.68
2003/2004	207,218	556,088	101,107	108,519	581,491	137,010	2.68
2004/2005	215,789	627,061	110,440	111,081	605,692	157,738	2.91
2005/2006	217,445	619,105	111,572	117,394	616,353	154,668	2.85
2006/2007	212,444	596,834	113,934	111,559	619,099	134,778	2.81
2007/2008	217,020	611,710	113,496	116,390	614,378	129,216	2.82
2008/2009	223,433	684,262	137,703	144,121	636,775	170,285	3.06
2009/2010	225,754	687,531	133,605	136,764	650,872	203,785	3.05
2010/2011	216,838	650,300	131,945	133,040	653,373	199,617	3.00
2011/2012	220,910	698,743	150,239	157,644	690,834	200,121	3.16
2012/2013	216,100	660,810	143,166	136,148	687,339	180,610	3.06
2013/2014	219,781	718,132	158,953	165,935	691,037	200,723	3.27
2014/2015	221,403	732,116	159,410	164,253	702,416	225,580	3.31
2015/2016	223,412	739,036	170,106	172,972	713,929	247,821	3.31
2016/2017	222,541	757,269	183,660	186,778	734,193	267,779	3.40
2017/2018	217,945	760,308	184,225	185,449	739,566	287,297	3.49
2018/2019	214,697	729,893	174,108	176,237	731,254	283,807	3.40
2019/2020	215,241	759,308	188,376	194,592	739,042	297,857	3.53
2020/2021	220,216	772,759	194,694	203,541	776,517	285,252	3.51
2021/2022	221,651	780,820	200,496	203,727	787,612	275,229	3.52
2022/2023	219,662	790,475	212,853	221,952	781,968	274,637	3.60
2023/2024	222,251	791,531	222,821	222,238	797,461	269,290	3.56
2024/2025	222,195	800,434	201,820	210,468	801,304	259,772	3.60
2025/2026 (전망치)	219,883	841,798	217,731	221,957	819,833	277,511	3.83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옥수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130,678	475,859	56,973	58,861	507,267	129,444	3.64
1994/1995	135,151	559,592	68,911	66,126	538,473	153,348	4.14
1995/1996	135,001	516,694	65,702	70,422	532,036	133,286	3.83
1996/1997	141,444	592,897	64,846	65,572	559,138	166,319	4.19
1997/1998	136,217	574,161	63,206	63,347	573,137	167,202	4.22
1998/1999	138,905	605,805	66,556	66,938	581,262	191,363	4.36
1999/2000	138,789	608,082	70,859	75,541	600,356	194,407	4.38
2000/2001	136,996	591,538	75,144	76,722	609,231	175,136	4.32
2001/2002	136,883	601,652	71,878	74,579	622,678	151,409	4.40
2002/2003	137,516	604,110	76,240	76,746	628,071	126,942	4.39
2003/2004	141,340	627,532	76,819	77,135	649,457	104,701	4.44
2004/2005	145,151	716,904	76,450	77,659	689,240	131,156	4.94
2005/2006	144,814	699,896	80,624	80,971	707,287	123,418	4.83
2006/2007	149,244	715,299	90,837	93,933	726,865	108,756	4.79
2007/2008	160,615	798,462	98,191	98,917	781,130	125,362	4.97
2008/2009	159,115	806,306	82,581	83,721	794,479	136,049	5.07
2009/2010	158,657	833,716	90,281	96,618	831,943	131,485	5.26
2010/2011	166,338	849,170	93,624	91,557	867,864	114,858	5.11
2011/2012	175,808	910,355	100,631	116,948	886,048	122,848	5.18
2012/2013	184,038	903,265	99,467	95,374	884,676	145,530	4.91
2013/2014	189,059	1,033,821	125,071	131,458	956,924	216,040	5.47
2014/2015	188,867	1,061,041	125,026	142,718	979,452	279,937	5.62
2015/2016	187,500	1,021,192	139,948	120,690	1,007,024	313,363	5.45
2016/2017	195,351	1,129,359	138,443	161,869	1,068,472	350,824	5.78
2017/2018	194,590	1,087,284	152,771	149,489	1,099,155	342,235	5.59
2018/2019	192,948	1,132,822	166,378	182,736	1,131,924	326,775	5.87
2019/2020	195,150	1,128,285	167,564	172,579	1,135,503	314,542	5.78
2020/2021	200,784	1,134,439	185,027	182,926	1,153,724	297,358	5.65
2021/2022	207,709	1,221,050	184,472	206,443	1,182,318	314,119	5.88
2022/2023	202,739	1,165,718	173,416	180,389	1,167,501	305,363	5.75
2023/2024	208,009	1,231,138	197,623	192,654	1,226,207	315,263	5.92
2024/2025	202,508	1,230,584	186,138	187,140	1,250,494	294,351	6.08
2025/2026 (전망치)	210,057	1,295,914	192,078	206,551	1,286,813	288,979	6.17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대두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93/1994	60,254	117,565	28,178	27,729	120,785	18,783	1.95
1994/1995	62,143	137,636	32,762	32,052	132,409	24,720	2.22
1995/1996	61,056	124,683	32,462	31,656	131,671	18,538	2.04
1996/1997	62,423	131,932	35,631	36,364	134,238	15,499	2.11
1997/1998	68,522	157,963	38,164	39,320	145,318	26,988	2.31
1998/1999	71,292	159,831	38,550	37,929	158,731	28,709	2.24
1999/2000	71,872	160,298	45,522	45,708	158,761	30,060	2.23
2000/2001	75,573	175,775	53,089	53,704	170,991	34,229	2.33
2001/2002	79,616	184,897	54,357	52,745	183,656	37,082	2.32
2002/2003	81,577	196,827	62,885	61,156	190,784	44,854	2.41
2003/2004	88,509	186,479	54,037	55,936	189,043	40,391	2.11
2004/2005	93,350	215,491	63,564	64,827	204,561	50,058	2.31
2005/2006	93,035	220,777	63,417	63,637	214,999	55,616	2.37
2006/2007	94,975	235,776	69,559	70,912	224,929	65,110	2.48
2007/2008	91,149	219,309	78,573	78,707	229,624	54,661	2.41
2008/2009	96,609	212,295	77,875	76,707	222,484	45,640	2.20
2009/2010	102,764	260,986	87,512	92,105	239,225	62,808	2.54
2010/2011	103,823	265,046	89,743	91,354	252,757	73,496	2.55
2011/2012	103,046	241,166	94,658	91,826	259,436	58,058	2.34
2012/2013	110,367	268,923	97,131	100,405	265,393	58,314	2.44
2013/2014	113,199	283,320	113,282	112,798	278,276	63,842	2.50
2014/2015	119,160	321,444	124,356	126,442	303,891	79,309	2.70
2015/2016	120,877	316,072	134,044	132,837	316,894	79,694	2.62
2016/2017	120,550	350,805	145,002	147,736	332,155	95,632	2.91
2017/2018	125,189	343,632	154,165	153,403	340,282	99,744	2.75
2018/2019	126,050	363,451	145,923	149,222	345,646	114,250	2.88
2019/2020	124,173	341,728	165,318	165,817	360,281	95,198	2.75
2020/2021	130,226	369,626	166,396	165,174	367,371	98,675	2.84
2021/2022	131,578	360,538	154,763	154,428	366,018	93,530	2.74
2022/2023	137,360	378,360	168,509	171,855	366,762	101,782	2.76
2023/2024	140,660	396,348	178,420	177,835	383,636	115,079	2.82
2024/2025	146,530	427,154	179,488	184,328	413,735	123,658	2.92
2025/2026 (전망치)	144,081	428,179	185,989	187,568	424,744	125,514	2.97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국가별 대두 가공품 통계

■ 대두박

□ 아르헨티나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7,000	0	6,287	245	1,507
1994/1995	6,950	0	6,600	265	1,592
1995/1996	8,200	0	8,277	265	1,250
1996/1997	8,867	0	8,876	270	971
1997/1998	10,357	1	9,235	275	1,819
1998/1999	13,468	0	13,423	325	1,539
1999/2000	13,712	0	13,309	335	1,607
2000/2001	13,718	5	13,730	325	1,275
2001/2002	16,559	0	16,586	325	923
2002/2003	18,663	0	18,468	365	753
2003/2004	19,761	2	19,221	425	870
2004/2005	21,601	0	20,650	500	1,321
2005/2006	25,012	1	24,222	535	1,577
2006/2007	26,061	1	25,625	594	1,420
2007/2008	27,071	3	26,816	640	1,038
2008/2009	24,363	4	24,025	730	650
2009/2010	26,624	2	24,914	830	1,532
2010/2011	29,312	0	27,615	1,000	2,229
2011/2012	27,945	0	26,043	1,450	2,681
2012/2013	26,089	0	23,667	1,850	3,253
2013/2014	27,892	0	24,972	2,100	4,073
2014/2015	30,928	1	28,575	2,402	4,025
2015/2016	33,500	0	30,333	2,672	4,520
2016/2017	33,600	0	31,323	2,867	3,930
2017/2018	28,750	1	26,265	2,996	3,420
2018/2019	31,500	27	28,833	3,125	2,989
2019/2020	30,241	1	27,461	3,200	2,570
2020/2021	31,318	1	28,325	3,275	2,289
2021/2022	30,287	135	26,589	3,325	2,797
2022/2023	23,648	67	20,764	3,450	2,298
2023/2024	28,535	1	24,891	3,500	2,443
2024/2025	33,724	279	29,780	3,500	3,166
2025/2026 (전망치)	31,980	170	29,000	3,600	2,716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브라질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14,491	0	10,661	4,122	1,203
1994/1995	15,837	0	10,445	4,927	1,668
1995/1996	17,096	100	12,226	5,364	1,274
1996/1997	15,728	192	10,557	5,365	1,272
1997/1998	15,729	244	9,587	6,360	1,298
1998/1999	16,651	69	9,813	6,665	1,540
1999/2000	16,478	98	9,950	7,086	1,080
2000/2001	17,725	184	10,673	7,063	1,253
2001/2002	19,407	342	11,862	7,580	1,560
2002/2003	21,449	350	13,657	8,055	1,647
2003/2004	22,450	282	14,792	7,750	1,837
2004/2005	22,740	252	14,256	8,960	1,613
2005/2006	21,920	195	12,895	9,328	1,505
2006/2007	24,110	167	12,715	10,718	2,349
2007/2008	24,890	180	12,138	12,257	3,024
2008/2009	24,700	83	13,109	12,700	1,998
2009/2010	26,120	86	12,985	13,200	2,019
2010/2011	28,160	58	13,987	13,700	2,550
2011/2012	29,510	30	14,678	13,900	3,512
2012/2013	27,310	32	13,242	14,500	3,112
2013/2014	28,540	26	13,948	15,300	2,430
2014/2015	31,300	18	14,290	15,700	3,758
2015/2016	30,750	25	15,407	16,450	2,676
2016/2017	31,280	35	13,762	17,000	3,229
2017/2018	34,300	19	16,033	17,311	4,204
2018/2019	32,746	22	16,095	17,500	3,377
2019/2020	35,991	10	17,499	18,000	3,879
2020/2021	35,940	18	16,576	18,800	4,461
2021/2022	39,091	12	20,207	19,700	3,657
2022/2023	41,488	6	21,334	20,000	3,817
2023/2024	41,859	18	22,722	20,000	2,972
2024/2025	44,266	5	23,390	20,300	3,553
2025/2026 (전망치)	47,092	10	25,500	21,300	3,855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미국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27,682	68	4,972	22,828	136
1994/1995	30,182	64	6,205	23,974	203
1995/1996	29,508	91	5,524	24,085	193
1996/1997	31,035	108	6,451	24,694	191
1997/1998	34,633	60	8,722	25,964	198
1998/1999	34,285	101	6,979	27,305	300
1999/2000	34,102	65	6,912	27,289	266
2000/2001	35,730	50	7,335	28,363	348
2001/2002	36,552	134	7,271	29,545	218
2002/2003	34,649	157	5,728	29,096	200
2003/2004	32,953	259	4,690	28,531	191
2004/2005	36,936	134	6,659	30,446	156
2005/2006	37,416	128	7,301	30,114	285
2006/2007	39,037	142	7,987	31,166	311
2007/2008	38,359	128	8,384	30,147	267
2008/2009	35,473	80	7,708	27,899	213
2009/2010	37,836	145	10,125	27,795	274
2010/2011	35,608	163	8,238	27,489	318
2011/2012	37,217	196	8,845	28,614	272
2012/2013	36,174	222	10,111	26,308	249
2013/2014	36,909	347	10,504	26,774	227
2014/2015	40,880	302	11,891	29,282	236
2015/2016	40,525	358	10,843	30,037	239
2016/2017	40,630	313	10,505	30,314	363
2017/2018	44,657	438	12,717	32,237	504
2018/2019	44,283	620	12,141	32,901	365
2019/2020	46,358	580	12,549	34,444	310
2020/2021	45,872	712	12,406	34,179	309
2021/2022	47,005	594	12,303	35,323	282
2022/2023	47,621	575	13,196	34,946	336
2023/2024	49,084	623	14,564	35,068	411
2024/2025	53,019	732	16,570	37,231	361
2025/2026 (전망치)	55,113	658	17,599	38,125	40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인도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2,880	0	2,200	680	0
1994/1995	2,200	0	1,580	620	0
1995/1996	3,200	0	2,600	490	110
1996/1997	2,920	0	2,450	580	0
1997/1998	3,800	0	2,600	1,200	0
1998/1999	4,295	0	2,800	1,325	170
1999/2000	3,520	0	2,571	1,090	29
2000/2001	3,600	7	2,097	1,305	234
2001/2002	3,520	14	2,175	1,260	333
2002/2003	2,720	3	1,295	1,575	186
2003/2004	4,480	2	3,272	1,270	126
2004/2005	4,000	13	2,573	1,290	276
2005/2006	5,680	3	5,035	835	89
2006/2007	5,200	3	4,433	805	54
2007/2008	6,640	5	5,856	810	33
2008/2009	6,480	8	4,217	1,920	384
2009/2010	6,240	7	3,527	2,540	564
2010/2011	7,480	8	5,169	2,775	108
2011/2012	8,240	7	4,877	3,320	158
2012/2013	8,640	7	4,943	3,530	332
2013/2014	6,960	7	3,252	3,640	407
2014/2015	6,160	7	1,521	4,500	553
2015/2016	4,400	46	409	4,460	130
2016/2017	7,200	11	2,019	4,674	648
2017/2018	6,160	11	1,863	4,739	217
2018/2019	7,680	49	2,185	5,530	231
2019/2020	6,890	23	1,166	5,780	198
2020/2021	8,000	236	2,395	5,850	189
2021/2022	6,800	646	940	6,273	422
2022/2023	8,240	29	1,871	6,625	195
2023/2024	9,040	29	1,966	7,075	223
2024/2025	8,800	10	1,781	7,000	252
2025/2026 (전망치)	7,420	250	850	6,875	197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11,407	18,012	177	29,419	886
2000/2001	13,310	17,776	253	30,910	809
2001/2002	14,243	20,011	332	33,657	1,074
2002/2003	13,123	20,633	346	33,594	890
2003/2004	11,221	22,128	399	32,982	858
2004/2005	11,408	22,019	533	32,893	859
2005/2006	10,904	22,947	714	33,126	870
2006/2007	11,693	22,362	544	33,525	856
2007/2008	11,808	24,619	422	35,432	1,429
2008/2009	10,223	21,153	464	31,836	505
2009/2010	9,950	20,879	471	30,359	504
2010/2011	9,741	21,877	609	30,842	671
2011/2012	9,164	20,872	884	29,342	481
2012/2013	10,033	16,941	536	26,742	177
2013/2014	10,349	18,140	296	28,042	328
2014/2015	11,416	19,623	362	30,142	863
2015/2016	11,811	19,213	304	30,567	1,016
2016/2017	11,060	17,353	734	27,792	891
2017/2018	11,455	16,992	770	27,742	826
2018/2019	11,850	17,197	753	27,892	1,228
2019/2020	12,324	16,329	874	28,342	665
2020/2021	12,482	16,504	847	28,342	462
2021/2022	12,166	16,536	764	27,742	658
2022/2023	11,297	15,997	737	26,742	473
2023/2024	11,455	16,542	651	26,942	877
2024/2025	12,166	20,609	652	31,242	1,758
2025/2026 (전망치)	11,850	19,450	600	30,942	1,516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대두유

□ 아르헨티나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1,539	0	1,395	136	718
1994/1995	1,553	0	1,427	149	695
1995/1996	1,896	0	1,590	175	826
1996/1997	1,966	0	1,993	204	595
1997/1998	2,281	0	1,966	213	697
1998/1999	3,141	0	3,111	224	503
1999/2000	3,121	0	2,843	236	545
2000/2001	3,190	0	3,080	247	408
2001/2002	3,876	0	3,630	327	327
2002/2003	4,394	0	3,920	387	414
2003/2004	4,729	0	4,238	394	511
2004/2005	5,128	0	4,757	396	486
2005/2006	5,998	0	5,597	397	490
2006/2007	6,424	0	5,970	459	485
2007/2008	6,627	0	5,789	1,026	297
2008/2009	5,914	0	4,704	1,420	87
2009/2010	6,476	0	4,453	1,915	195
2010/2011	7,181	0	4,561	2,520	295
2011/2012	6,839	0	3,794	3,020	320
2012/2013	6,364	93	4,244	2,245	288
2013/2014	6,785	9	4,087	2,844	151
2014/2015	7,687	22	5,094	2,401	365
2015/2016	8,433	0	5,698	2,840	260
2016/2017	8,395	0	5,387	3,085	183
2017/2018	7,236	1	4,164	2,981	275
2018/2019	8,044	0	5,268	2,625	426
2019/2020	7,700	0	5,404	2,180	542
2020/2021	7,932	0	6,137	2,045	292
2021/2022	7,664	93	4,873	2,650	526
2022/2023	5,991	0	4,137	1,660	720
2023/2024	7,251	2	5,533	1,770	670
2024/2025	8,626	107	7,099	1,980	324
2025/2026 (전망치)	8,180	50	6,150	1,980	424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브라질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3,468	379	1,345	2,418	336
1994/1995	3,776	125	1,460	2,500	277
1995/1996	4,081	149	1,600	2,665	242
1996/1997	3,736	130	1,273	2,646	189
1997/1998	3,728	245	1,184	2,753	225
1998/1999	3,960	228	1,441	2,741	231
1999/2000	3,943	147	1,137	2,931	253
2000/2001	4,333	69	1,533	2,932	190
2001/2002	4,700	146	1,775	2,935	326
2002/2003	5,205	85	2,394	2,895	327
2003/2004	5,560	26	2,718	2,959	236
2004/2005	5,630	3	2,414	3,091	364
2005/2006	5,430	28	2,466	3,091	265
2006/2007	5,970	4	2,462	3,395	382
2007/2008	6,160	67	2,388	3,955	266
2008/2009	6,120	6	1,909	4,275	208
2009/2010	6,470	37	1,449	4,980	286
2010/2011	6,970	0	1,668	5,205	383
2011/2012	7,310	0	1,885	5,390	418
2012/2013	6,760	6	1,251	5,534	399
2013/2014	7,074	0	1,378	5,705	390
2014/2015	7,759	11	1,510	6,215	435
2015/2016	7,627	63	1,550	6,288	287
2016/2017	7,755	60	1,241	6,570	291
2017/2018	8,485	45	1,511	6,940	370
2018/2019	8,505	24	1,085	7,500	314
2019/2020	9,348	66	1,156	7,850	722
2020/2021	9,335	249	1,262	8,150	894
2021/2022	10,153	32	2,409	7,700	970
2022/2023	10,580	29	2,686	8,300	593
2023/2024	11,055	80	1,352	10,200	176
2024/2025	11,826	85	1,487	10,410	190
2025/2026 (전망치)	12,438	100	1,500	10,950	278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미국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6,328	31	695	5,869	500
1994/1995	7,082	8	1,217	5,857	516
1995/1996	6,913	43	450	6,108	914
1996/1997	7,145	24	922	6,471	690
1997/1998	8,229	27	1,397	6,922	627
1998/1999	8,202	38	1,076	7,101	690
1999/2000	8,085	37	624	7,284	904
2000/2001	8,355	33	636	7,401	1,255
2001/2002	8,572	21	1,143	7,635	1,070
2002/2003	8,360	21	1,027	7,748	676
2003/2004	7,748	139	425	7,650	488
2004/2005	8,782	12	600	7,911	771
2005/2006	9,248	16	523	8,147	1,365
2006/2007	9,294	17	851	8,426	1,399
2007/2008	9,335	30	1,320	8,317	1,127
2008/2009	8,503	41	995	7,378	1,298
2009/2010	8,897	47	1,524	7,173	1,545
2010/2011	8,568	72	1,466	7,506	1,213
2011/2012	8,954	68	664	8,396	1,175
2012/2013	8,990	89	981	8,522	751
2013/2014	9,131	75	852	8,577	528
2014/2015	9,706	120	914	8,599	841
2015/2016	9,956	130	1,017	9,145	765
2016/2017	10,035	145	1,159	9,010	776
2017/2018	10,783	152	1,108	9,698	905
2018/2019	10,976	180	880	10,376	805
2019/2020	11,299	145	1,287	10,122	840
2020/2021	11,350	137	786	10,574	967
2021/2022	11,864	137	803	11,262	903
2022/2023	11,897	170	171	12,070	729
2023/2024	12,289	282	280	12,317	703
2024/2025	13,253	164	1,131	12,197	792
2025/2026 (전망치)	13,581	166	544	13,200	795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인도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3/1994	650	41	0	711	0
1994/1995	495	60	0	555	0
1995/1996	712	60	0	772	0
1996/1997	657	49	0	706	0
1997/1998	859	236	0	1,095	0
1998/1999	972	833	0	1,805	0
1999/2000	792	587	0	1,300	79
2000/2001	810	1,085	19	1,750	205
2001/2002	792	1,215	4	2,000	208
2002/2003	612	1,159	5	1,850	124
2003/2004	1,008	689	5	1,700	116
2004/2005	900	1,554	11	2,400	159
2005/2006	1,278	1,453	13	2,650	227
2006/2007	1,170	1,249	8	2,450	188
2007/2008	1,494	621	16	2,100	187
2008/2009	1,458	892	2	2,300	235
2009/2010	1,404	1,354	1	2,750	242
2010/2011	1,683	817	0	2,550	192
2011/2012	1,854	1,190	10	2,900	326
2012/2013	1,944	1,081	0	3,000	351
2013/2014	1,566	1,804	1	3,350	370
2014/2015	1,386	2,815	3	4,100	468
2015/2016	990	4,269	3	5,250	474
2016/2017	1,620	3,534	1	5,150	477
2017/2018	1,386	2,984	7	4,670	170
2018/2019	1,728	3,000	8	4,750	140
2019/2020	1,550	3,626	16	5,125	175
2020/2021	1,800	3,251	11	4,950	265
2021/2022	1,530	4,231	15	5,825	186
2022/2023	1,854	3,968	11	5,400	597
2023/2024	2,034	3,308	16	5,175	748
2024/2025	1,980	5,471	27	6,645	1,527
2025/2026 (전망치)	1,670	4,250	15	6,570	862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 유럽연합

연도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1999/2000	2,567	84	954	1,702	227
2000/2001	3,033	29	889	2,186	214
2001/2002	3,245	62	894	2,336	291
2002/2003	2,990	30	711	2,345	255
2003/2004	2,557	67	557	2,142	180
2004/2005	2,599	182	526	2,214	221
2005/2006	2,512	719	273	2,925	254
2006/2007	2,694	978	244	3,412	270
2007/2008	2,720	1,038	335	3,205	488
2008/2009	2,350	795	398	2,797	438
2009/2010	2,290	547	386	2,760	129
2010/2011	2,343	906	463	2,400	515
2011/2012	2,204	386	742	2,050	313
2012/2013	2,413	322	1,011	1,850	187
2013/2014	2,489	329	766	1,990	249
2014/2015	2,746	253	1,010	2,040	198
2015/2016	2,841	325	915	2,285	164
2016/2017	2,660	306	973	1,955	211
2017/2018	2,755	288	1,074	1,935	245
2018/2019	2,850	419	977	2,255	282
2019/2020	2,964	483	910	2,380	439
2020/2021	3,002	493	1,061	2,430	443
2021/2022	2,926	458	959	2,305	563
2022/2023	2,717	641	915	2,405	601
2023/2024	2,755	592	663	2,630	655
2024/2025	2,926	757	701	3,005	632
2025/2026 (전망치)	2,850	650	850	2,755	527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26년 2월 1일

발 행 2026년 2월 1일

발행인 한두봉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팩시밀리 061-820-2211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프리비

전화 061-332-1492 팩시밀리 061-332-1491

E-mail: pri_be@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